

박사학위논문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bjectivity of News:
A Q-Methodological Approach

권문한

한양대학교대학원

2008년 2월

박사학위논문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영 상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권문한

이 논문을 권문한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08년 2월

심사위원장 황상재 (인)

심사위원 박영상 (인)

심사위원 김정기 (인)

심사위원 이재진 (인)

심사위원 윤석홍 (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차 례

국문요지 vi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6
제2장 이론적 배경	10
제1절 뉴스 객관성의 가치	10
1. 뉴스와 객관성의 개념	10
2. 뉴스 객관성의 성격	18
1) 규범과 표준으로서의 객관성	18
2) 뉴스제작 절차로서의 객관성	21
3) 언론윤리로서의 객관성	23
4) 객관성에 대한 비판과 회의	25
제2절 뉴스 객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 생성과 진화	28
1. 서구 언론의 객관성의 역사	28
1) 1830년대 이전	28
2) 폐니 프레스의 등장과 객관성 태동	30
3) 객관성의 진화와 도전	36
2. 한국 언론과 객관성	41
1) 1945년 이전	41
2) 1945년 이후	46

제3장 연구 문제	56
제4장 연구 방법과 설계 60	
1. Q 방법론	60
2. Q 표본의 구성	61
3. P 표본의 선정	70
4. 조사의 실행	73
5. 자료의 처리	74
제5장 연구의 결과 76	
제1절 뉴스 객관성에 대한 다섯 유형의 언론인들	76
1. 제1유형 : 규범지상주의형	76
2. 제2유형 : 현실순응형	82
3. 제3유형 : 변화추구형	87
4. 제4유형 : 실천적 원칙주의형	93
5. 제5유형 : 비판적 가치주의형	97
제2절 뉴스 객관성에 대한 태도 유형간 차이점과 공통점	103
1. 규범지상주의형과 다른 유형의 비교	105
1) 규범지상주의형과 현실순응형	105
2) 규범지상주의형과 변화추구형	109
3) 규범지상주의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	114
4) 규범지상주의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	120
2. 현실순응형과 다른 유형의 비교	125
1) 현실순응형과 변화추구형	125

2) 현실순응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	129
3) 현실순응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	135
3. 변화추구형과 다른 유형의 비교	140
1) 변화추구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	140
2) 변화추구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	146
4. 실천적 원칙주의형과 다른 유형의 비교	151
1) 실천적 원칙주의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	151
5. 뉴스 객관성에 대한 태도 유형의 공통점	157
제3절 언론인들의 환경적 요인과 태도 유형	159
 제6장 결론 및 논의	166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166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75
 참고문헌	177
 <부록 1> 부탁의 말씀 · 분류방법안내문 · 인적사항 설문지	186
<부록 2> 뉴스 객관성 Q 분류의 P 표본 현황	189
<부록 3> 뉴스 객관성에 대한 Q 분류 결과	191
 ABSTRACT	198

표 차 례

<표 4-1> Q 분류 진술문	66
<표 4-2> 응답자들의 소속 언론사 종류	71
<표 4-3> 응답자들의 언론사 경력	72
<표 4-4> 응답자들의 직위	72
<표 4-5> 응답자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	72
<표 4-6> 응답자들의 성별	73
<표 4-7> Q 분류의 단계별 진술문 수	73
<표 4-8> Q 표본의 원점수별 빈도수와 변환점수	74
<표 5-1> 제1유형의 Q 분류 결과	77
<표 5-2> 제2유형의 Q 분류 결과	84
<표 5-3> 제3유형의 Q 분류 결과	90
<표 5-4> 제4유형의 Q 분류 결과	94
<표 5-5> 제5유형의 Q 분류 결과	98
<표 5-6> 5개 태도 유형 간 상관계수	104
<표 5-7> 규범지상주의형과 현실순응형의 차이	106
<표 5-8> 규범지상주의형과 변화추구형의 차이	110
<표 5-9> 규범지상주의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의 차이	116
<표 5-10> 규범지상주의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의 차이	121
<표 5-11> 현실순응형과 변화추구형의 차이	126
<표 5-12> 현실순응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의 차이	130
<표 5-13> 현실순응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의 차이	136
<표 5-14> 변화추구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의 차이	141

<표 5-15> 변화추구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의 차이	147
<표 5-16> 실천적 원칙주의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의 차이	152
<표 5-17> 소속 언론사 종류에 따른 태도 유형별 분포	160
<표 5-18> 언론사 근무 경력에 따른 태도 유형별 분포	161
<표 5-19> 직위에 따른 태도 유형별 분포	162
<표 5-20>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에 따른 태도 유형별 분포	163

국 문 요 지

이 연구는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 유형을 찾아내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검토를 통해 뉴스의 개념과 객관성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뉴스 객관성의 성격은 규범과 표준, 뉴스 제작에 따른 절차, 언론 윤리 등 차원에서 논의됐으며 객관 보도의 부작용과 인식론적 한계 등 객관성을 둘러싼 비판적 시각도 논의됐다. 객관성의 개념 형성에 대한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실증적 차원에서 가설 검증이 아닌 가설 생성에 기여하는 Q 방법론을 사용했다. 피험자는 현직 언론인 62명이었다. 연구 결과,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제1유형은 뉴스의 객관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언론인으로서 자존과 정체성을 객관성에 연결해 생각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객관성은 이 언론인들에게 직업윤리의 근본이며, 전문직으로서 준수해야 할 덕목이다. 이런 까닭에 이 유형을 ‘규범지상주의형’으로 명명했다.

제2유형은 뉴스의 객관성을 이상으로 추구하면서도 현실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현실순응형’으로 명명된 이 유형은 객관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들은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적극 찬성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객관성의 철칙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3유형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끌어가려는 성향이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변화추구형’으로 명명했다. 이들은 역파라미드형 기사체로 대변되는 객관보도 방식에 소극적이다. 오히려 이들은 사회 요구나 상황에 따라 객관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유형은 전통적인 가치를 완전히 도외시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주관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있다.

제4유형은 원칙을 중시하되 실천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유형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객관성이라고 간주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유형을 ‘실천적 원칙주의형’으로 명명했다. 이들은 최

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객관성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객관성의 정의를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5유형은 다른 네 가지 유형과는 판이하다. 이들에게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이들은 “객관성은 실현불가능하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는 진술을 강조 한다. 그래서 이 유형을 ‘비판적 가치주의형’으로 명명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태도 유형은 뉴스의 객관성과 관련한 45개 진술문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들 유형은 전체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만큼 각 유형들이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다섯 가지 태도 가운데 규범지상주의형(유형1)과 현실 순응형(유형2)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판적 가치주의형(유형5)은 다른 모든 유형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다른 유형과 객관성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그들의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사의 종류, 근무 경력, 직위, 장기간 근무한 부서 등 근무 환경의 요인에 따라 객관성에 대한 태도 유형의 분포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한국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다섯 가지로 확인됐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뉴스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신뢰도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태도 유형들은 뉴스 보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객관성에 대한 언론 인들의 태도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뉴스의 객관성은 언론의 신뢰를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를 차지해왔다. 뉴스매체가 신문이든 방송이든 또는 인터넷매체이든 객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뉴스보도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거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객관성이 뉴스의 정보제공 기능과 관련하여 사실성이나 불편부당성 또는 균형성 등을 담보해주고, 그것이 매체에 대한 수용자들의 신뢰도 제고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언론 종사자들은 객관성을 뉴스보도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로 인식해오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 종사자들이 신문 또는 방송의 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 또는 표준으로 객관성을 강령에 명시한 것은 객관성에 대한 언론 계의 시각을 짐작하게 해준다. 한국의 신문윤리강령은 제4조(보도와 평론)에서 “언론인은 언론이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 한다”고 적고 있으며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의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미확인 보도 명시 원칙’, ‘보도 자료의 검증과 영리 이용 금지’ 등 항목에서 객관성과 관련된 언론인의 행동준칙을 보여주고 있다¹⁾.

이와 같은 개념은 개별 신문사의 취재준칙 또는 보도준칙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다. 방송의 경우는 현행 방송법²⁾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1항에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심의 규정은 제2절에서 ‘객관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규정 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1) 1957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기해 전국의 신문·통신사 편집인들이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했고, 그 후 한국신문협회·한국통신협회·한국기자협회 등이 추가로 채택했다. 신문윤리강령의 행동준칙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이 함께 채택했다. 현행 신문윤리실천요강은 1996년 8월 개정된 것이다.

2) 이 방송법은 2007년 7월 27일 개정 공포됐다.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방송사들도 각각의 강령에서 객관성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³⁾

위와 같은 법령이나 강령 등에서만 뉴스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들 스스로도 객관성 덕목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1989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언론인 의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조사 결과⁴⁾에 따르면, 한국의 기자들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실의 정확한 취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가한 기자들의 92.3% 가 정확한 사실 취재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다’(24.4%) 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67.9%)고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객관성의 핵심 요소인 사실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좌이다. 피험자들은 또 취재보도 원칙의 중요도를 4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사실의 정확한 취재(3.60)’, ‘근거 없는 소문을 기사화하지 않는 일(3.27)’ 등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취재보도의 원칙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오프라인 기자들이나 온라인 기자들이나 비슷하게 나타났다(황치성, 2007).

한국의 주류 언론기관에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자 훈련에서도 ‘객관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는 객관성에 유념해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연합뉴스의 ‘스타일 북’은 객관성과 관련, “객관보도란 발생한 사건의 사실성에 입각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육하원칙(5W1H)이라는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것이 사실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연합뉴스, 1998, 38쪽).

뉴스보도의 객관성은 일반 보도 기사와 의견 기사에서 정확성, 공정성 등 다른 요인들과 함께 신문 및 언론 전반의 신뢰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3) KBS 방송강령은 총강 제4조 ‘방송의 공정성’ 항목에서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민을 전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MBC 방송강령은 총강 제6조 ‘공정성과 반론권’ 항목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조항은 “우리는 진실에 입각하여 방송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방송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균형유지에 명백히 어긋난 때에는 이를 신속히 바로 잡는다.”로 밝혀 객관성을 공정한 뉴스보도를 위한 핵심 덕목으로 꼽고 있다. SBS 방송강령도 총강 제2조 ‘공익성’ 부분에서 “방송의 정확성·객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의 기대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 조사는 2007년 4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국 신문, 방송, 통신사 기자 907명과 온라인 매체 기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독자들 자신이 보는 신문의 신뢰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김세은, 2003, 127쪽). 이는 매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면의 객관성 즉, 뉴스의 객관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김세은의 연구에서는 사설 등 의견기사의 공격성이나 권위주의 등을 수용자 자신이 보는 신문의 신뢰도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흥미로운 점도 밝혀져,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사설 등 의견기사보다는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등 보도의 긍정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비판이나 불만도 뉴스의 객관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독자나 시청자 중에는 상당수가 보도의 객관성에 관련된 불만들을 털어놓고 있다. 2006년의 경우를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2005년의 883건보다 204건이 늘어난 총 1087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되었고⁵⁾, 이 중 정정보도 청구가 547건(50.3%), 반론보도 청구가 210건(19.3%) 등으로 나타났다(언론중재위원회, 2007, 19쪽). 전체 신청건수의 69.6%인 757건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물론 이들 사례들의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용자로서 신청인들은 언론매체에 보도된 특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그에 따른 피해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청구자의 상당수가 객관성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인 대상 조사에서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객관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기자들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관련해 ‘수용자의 인기에 영합한 선정주의적 보도’(25.1%), ‘자사 이기주의’(12.8%)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고, 온라인 매체 기자들도 ‘수용자의 인기에 영합한 선정주의적 보도’(30.0%)가 신뢰도 하락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황치성, 2007). 여기서 ‘선정주의적 보도’나 ‘자사 이기주의’ 등은 객관성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보도에서는 지적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판은 언론인들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도 나온다. 관훈클럽은 1990년 대 하반기에

5) 이는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다 신청건수로 기록됐다. 조정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새로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건수와 인터넷 신문에 대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언론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날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를 구성, 많은 토론회 등을 거친 뒤 보고서를 냈다. 이를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들이 있었다.

“2000년 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전현직 언론인들은 모두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확성의 결여를 들었고, 부정확한 기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다. 참석자들은 기자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오보가 발생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국 언론이 취재부터 편집까지 전 과정에서 보도의 정확성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언론2000년위원회, 2000, 181쪽). 이는 한국 언론의 뉴스 선택과 보도 과정이 위험 수준에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뉴스 매체가 뉴스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뉴스를 관찰해 전달하거나 혹은 사회에 거울을 들이댈 뿐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인은 마땅히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이 뉴스의 원인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언론인들은 많은 국민들이 언론인들의 활동에 불만을 표시하고 때로 적대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데 바로 그 국민이 오히려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인들의 활동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국민들은 언론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뉴스의 객관성의 미흡이나 균형성의 부족 등을 거론하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로 미루어 뉴스의 객관성은 언론 활동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인은 물론이고 일반 수용자들도 객관성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경우 더욱 확연하다. 미국 언론을 종교에 비유한다면, 그 최상의 신성은 바로 객관성이다(Mindich, 1998, p.1)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객관성은 언론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객관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누구나 사전에서 ‘객관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언론의 객관성’ 또는 ‘뉴스의 객관성’의 뜻을 찾아내기란 용이하지 않다. 미국의 언론사학자

민디치(1998)도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고 어느 누구도 언론의 객관성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 개념의 모호성을 이야기했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을 규정하는 설명들은 연구자에 따라 편차를 보여준다. 직업적 이데올로기’(Reese, 1990; Schudson, 1978; Tuchman, 1978b), ‘언론이란 직업의 핵심 증거’(Lippman, 1920), ‘미국 언론의 엠블렘’(Schudson, 1978), ‘언론인들의 작업 신조’(Brooks, et al., 2002), ‘언론 활동의 지도 교리’(Gynn, 1995) 등은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뉴스의 객관성을 규정한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의들은 객관성이라는 용어의 표준이 되거나 일관성 있는 정의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개념 정의라기보다는 객관성의 성격을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맥奎일(McQuail, 2000)이 그런 경우인데, 그는 ‘객관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는 용어’라는 전제를 달면서 ‘사실의 정확성, 편견의 부재, 의견으로부터 분리, 정보원에 대한 투명성, 한 쪽 편들지 않기 등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브룩스(Brooks, 2002, p.16)는 객관성에 대해 “주류 언론인들이 최상의 진실을 추구하고자 할 때 따르는 규칙들의 요약”이라고 풀이했다. 위의 정의나 설명들은 대체로 객관성을 전제로 할 때 뉴스 보도가 비로소 가장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를 사실의 전달이라고 믿는 것은 단지 신화일 수 있다는 주장들도 엄존하고 있다. 이는 뉴스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로, 뉴스가 반드시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주장들에 따르면, 뉴스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이야기일 뿐이며, 따라서 뉴스의 객관주의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즉, 뉴스가 사실 그 자체는 아니며 누군가의 손으로 전달되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Fowler, 1991; Glasgow University Group, 1976).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뉴스는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주관이나 입장에 따라 서술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풀리처상 수상자이자 전 시카고 트리뷴지 발행인인 풀러(Fuller)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객관적인 보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아무도 객관적인 언론을 이룩한 적이 없고, 아무도 그것을 이룩할 수도 없을 것(1996, p.14).”이라고 규정

했다. 10명의 언론인에게 객관성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10개의 상이한 답변을 얻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Cunningham, 2003).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뉴스의 객관성은 관점에 따라 개념상 차이가 크다. 객관성이 뉴스 보도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당위적 규범인지, 아니면 아예 도달할 수 없는 개념인지 서로 평행선을 달릴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별로 관점의 차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한국의 언론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는 현실이다. 객관성을 바람직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더 이상 쓸모없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취재현장의 기자들과 이들을 지휘하는 데스크 간에 객관성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다른 개념을 상정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언급한 신문윤리강령이나 방송강령조차 객관성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없다. 언론인들은 객관성을 살려 뉴스를 선택해 기사를 작성해 신문을 인쇄하고, 전파에 실는다고 하더라도 그 객관성은 언론인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그리게 될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 지도는 한국 언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언론인들의 뉴스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의 틀을 조사함으로써 뉴스 보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인들은 뉴스의 객관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언론에 대한 독자와 시청자들의 신뢰는 언론의 존재가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독자의 신뢰를 잃은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는 사실상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언론의 힘은 독자의 신뢰로부터 나오는데, 언론

매체가 독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뉴스의 객관성은 핵심 요소로 꼽힌다.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뉴스를 선택해 기사를 쓰는 언론인들의 태도와 가치관, 언론 매체의 관행, 언론 매체의 조직 목표, 언론사 밖의 기구들,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상호작용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언론 매체의 관행은 뉴스를 취재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매체 또는 언론인들이 관행적으로 준수하는 원칙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공정성 균형성 등과 함께 객관성이 포함된다.

한국언론재단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언론학자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감소 원인을 조사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 감소 원인으로 제시된 14개 문항 중에서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이 조사에서 언론학자들과 언론인들은 자사이기주의, 사주 또는 경영진의 편집의 자율성 침해에 의한 보도의 왜곡, 독자 또는 시청자와 유리된 언론의 오만한 자세, 독자 또는 시청자의 인기에 영합하는 선정주의적 보도 등 4가지를 신뢰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서 거론된 자사 이기주의, 편집의 자율성 침해에 의한 보도의 왜곡, 선정주의적 보도 등은 구체적으로 편집에 의한 보도, 공정하지 못한 보도, 사실을과장하는 보도 등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수용자에게는 객관성의 실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강명구 외, 2001, 121~145쪽).

언론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위의 슈메이커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할 수도 있다. 일반 수용자들이 언론에 대해 갖게 되는 신뢰도는 신문 지면이나 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작용의 결과이다. 매체가 전하는 뉴스는 언론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들이 상호 작용을 거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독자들이 지적한 신문 신뢰도 하락 요인들(김세은,

2003)을 보면 이를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독자들이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 것들은 우선 기사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사실과 의견의 구분 모호’, ‘추측성 기사’, ‘선정적 보도’ 등이다. 신문사라는 조직 차원에서는 ‘다른 신문이나 매체와의 지나친 상업적 경쟁’, ‘공익보다는 신문사 이익 우선’, ‘정치권과의 지나친 알력관계’, ‘인색한 정보보도’ 등이며, ‘광고주의 영향’, ‘경영진의 영향’, ‘기자와 취재진의 유착’ 등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도를 달리할 뿐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각기 표현은 다르지만 언론인이 뉴스를 취재해 보도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뉴스 객관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성을 고려하는 보도라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우며,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보도는 바로 객관 보도의 상대적 개념이다. 신문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다른 원인들도 뉴스 객관성에 대한 태도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바로 기사의 흐름과 언론 신뢰도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언론인은 뉴스를 선택하거나 사건이나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어느 정도 자신의 직관을 사용하게 된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의 태도는 이와 같이 뉴스를 선택해 기사화하는 과정에 반영된다. ‘뉴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쉬람(Schramm, 1949)의 지적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뉴스라는 것은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이 발생한 후 지각된 어떤 것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뉴스는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실제 일어난 일과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 연구에서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 또는 지각의 유형화를 통해 모습을 분명히 하게 된다.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매우 드문 설정이다. 한국에 QUANL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 실시한 ‘뉴스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객관성에 대한 대학생과 기자의 상호지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이인옥, 1985). 또 Q 방법을 이용해 '언론인의 윤리의식'을 연구한 결과(이은택, 1999)가 있으나 포괄적인 윤리에 대한 언론인의 태도를 취급했을 뿐 뉴스 객관성 문제는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보도의 객관성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특정 현안에 대한 보도의 객관성 문제를 취급한 연구들은 객관성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전제로 진행되었을 뿐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는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우선 뉴스 객관성에 대한 현직 언론인들의 의식구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의 결과는 뉴스 객관성에 대한 한국 언론인들의 최초의 '인식 지도'를 그려줄 것이다. 이 지도의 판독은 뉴스 보도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뉴스 보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언론인 재교육이나 언론인 지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이 연구결과는 뉴스 객관성과 관련해 현실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뉴스 객관성의 가치

1. 뉴스와 객관성의 개념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뉴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뉴스의 개념 혹은 속성을 파악하지 않고는 뉴스 보도와 객관성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또는 객관성은 뉴스 속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언론인이 뉴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뉴스란 무엇인가? 터크먼(Tuchman, 1978a, p.1)은 자신의 저서 『뉴스 만들기(Making News)』 첫 문장에서 "뉴스란 세상을 향한 창(News is a window on the world)"이라고 단 7개 단어로 간명하게 뉴스의 정의를 내렸다. 뉴스라는 창문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 즉, 정부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구나 제도, 지도자들, 국내외의 삶의 형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뉴스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알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다'고 뉴스의 목적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뉴스의 정의를 부연 설명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것, 알 필요가 없는 것, 알지 않아도 되는 것 따위는 뉴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터크먼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예나 지금이나 유효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사안들을 고려할 때 뉴스는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 지역에서 뉴스로 취급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하는 단순한 이야기로 간주될 수도 있

다. 10년 전에는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TV 뉴스시간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던 뉴스를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연탄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연료이던 시절에는 초겨울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회의 주된 이슈로 부각될 수 있었으나 지금의 과거지사일 뿐이다. 더 이상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뉴스가 되지 않는다. 뉴스는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있다.

사람들은 ‘뉴스란 뉴스 기관이 보도하는 것’으로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한다. 아무리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게재되거나 전파를 탄 것을 전제로 뉴스로 불러주는 인식의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뉴스를 정의하고 있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기버는 오래 전에 “뉴스는 신문기자가 만드는 것”(Gieber, 1964, p.173)이라고 했고, 코헨과 영은 뉴스에 대해 “언론인들에 의해 제조되는 것”(Cohen & Young, 1973, p.97)이라고 주장했다. 또 “뉴스는 뉴스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의 결과”(Fishman, 1980, p. 14)라는 정의도 나왔다. 실제로 자기들의 힘을 과신하는 언론인들 중에도 그러한 정의의 신봉자들이 없지 않다. 언론인을 통해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띄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정의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기사를 쓸 뿐이라고 설명한다. 때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 감각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부정확하기도 하지만 책임 있는 언론인이라면 결코 뉴스를 조작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Schudson, 1989).

뉴스의 정의가 뉴스 취급 과정에서 만나는 사안들을 모두 설명해내기 위해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공허한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폴러(Fuller, 1996, p.6)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는 의미의 정의를 내렸다. 즉, 뉴스란 ‘어떤 공동체에 중요성이나 흥미를 주는 사안으로서 뉴스 기관이 최근에 알게 된 것에 대한 보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뉴스에 대해 학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시각을 달리해 다양한 표현을 해왔다. 뉴스의 전모에 대해 규정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속성을 드러내

주는 주장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통시적으로 또는 주제별로 파악해 보는 것이 뉴스의 성격을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월터 리프만은 1920년대 초에 이미 뉴스와 진실을 서로 다른 것으로 바라보았다. 리프먼은 뉴스와 진실은 동일한 것이 아닌 만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뉴스의 기능은 어떤 사안을 두드러져보이게 하는 것이고, 진실의 기능은 숨겨진 사실들에 빛을 비추는 것”(Lippman, 1922, p.226)이라고 주장했다. 진실은 또한 사실들 간에 서로 관계가 맺어지도록 하고, 사람들이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실제와 똑같은 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다. 리프먼에 따르면, 사회적 조건들이 인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를 갖는 지점에서만 진실이라는 몸체와 뉴스라는 몸체가 일치한다.

처음으로 뉴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 사회학자로 꼽히는 박크는 194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식의 형태로서 뉴스는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에 관심이 있다”고 지적하고, 뉴스란 그것을 듣거나 읽는 사람에 대해 실제적인 흥미를 주는 어떤 것으로 대체로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들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뉴스는 지식의 형태로서 사건의 기록을 통해 역사학과 사회학 등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민속학과 문학 등 인문학에까지 기여한다고 특성을 기술했다(Park, 1940).

헌트(Hunt, 1974)는 뉴스를 사건 중심과 과정 중심 등 두 갈래로 파악했다. 사건 중심 뉴스는 최근에 발생한 일로서 대체로 해설이 곁들여지지 않는 보도이며, 과정 중심 뉴스는 반드시 최근의 사건일 필요는 없으나 해설과 분석을 포함하는 보도를 의미한다.

뉴스의 본질과 관련해서 쉬람(Schramm, 1949, p.260)은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뉴스의 내용과 자극을 주는 맥락”이라며 수신자의 시각에서 뉴스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하나는 즉각 보상형 뉴스로 범죄, 사고, 재앙, 스포츠 등이 해당되고, 다른 하나는 지연 보상형 뉴스로 ‘위협’이라는 뉴스 가치를 갖고 있는데, 독자들은 환경 적응에 사용하기 위해 이 뉴스를 선택하게 된다

는 것이다. 스티븐슨(Stephenson, 1965, p.368)은 이와 관련,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 신문을 읽는데, 나쁜 뉴스까지도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며 신문읽기를 주관적인 놀이로 규정했다. 뉴스읽기를 어떤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리경험의 방편으로 이해한 그는 독자들의 흥미 또는 관심을 뉴스거리의 원인으로 간주했다. 본드(Bond, 1967, p.79) 역시 뉴스에 대해 독자들에게 관심 사항을 제때 전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뉴스는 가장 많은 독자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 같은 시기의 스티븐슨과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폈다. 그보다 10년쯤 앞서 브리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뉴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뉴스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즉, 참신성, 흥미성, 정확성, 현재성, 단순성, 판매성, 중요성, 신중성, 객관성, 피상성 등이다. 그는 뉴스가 이러한 특징들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자신의 정의를 설명했다(Breed, 1956).

뉴스를 사실 그 자체가 아닌 언론인의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도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제기해왔다. 우선 뉴스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는 견해들이다. 이러한 주장을 편 학자들로는 맥두걸(MacDougal, 1972), 호헨버그(Hohenberg, 1973) 등과 함께 그들보다 훨씬 앞선 파크(Park, 1940) 등이 대표적이다. 존슨(Johnson, 1962) 같은 학자는 뉴스에 대해 ‘신문기자가 쓴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처치(Church, 1938, p.191)는 이미 1930년대에 그와 같은 정의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뉴스에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요소들은 첫째 사물 간 관계변화인 사건, 둘째 전달이나 보도의 매개, 셋째 환경 변화를 경험하는 개인 등이다. 그는 뉴스에 대한 흥미를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의미를 갖는다는 증거로 규정했다. 또한 뉴스에 대한 기자의 지각 또는 인식은 수용자의 욕구로 인한 작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뉴스를 사실 그 자체가 아닌 구성으로 보는 입장의 문제점은 편향성 문제이다. 구성된 현실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언론인의 지각에 따라 진실과 판이한

현실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명구(1994)는 왜곡되지 않은 뉴스의 기준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관점으로부터 뉴스를 생산하는 방식들을 찾아야 한다는 갠즈의 주장을 소개하며 뉴스가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소개할 경우, 뉴스와 프로파간다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스가 현실을 편향적으로 보도한다면 편향되지 않은 뉴스는 무엇인지, 현실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뉴스는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갠즈(Gans, 1979, p.80)는 뉴스를 정보원으로부터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로 파악하고, 언론인의 역할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를 다듬고 변화시킨 뒤 수용자에 적절한 생产业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원과 언론인의 관계를 인센티브, 힘, 적절한 정보의 제공, 언론인의 근접성 등 4가지의 관련 요인에 따라 설정했다. 이 4가지 힘의 작용에 따라 뉴스의 선택과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수년간의 언론인 경력을 갖고 있던 호헨버그(1973, p.60)는 뉴스와 관련, “뉴스에는 변함이 없고, 예측 가능한 요인이 없다.”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뉴스의 비정형성을 설명했으며 맥두걸(MacDougal, 1972)은 뉴스를 진실 추구의 결과로 보았다. 즉, 언론인들은 어떤 사안을 기사화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잠재적인 관심 또는 중요성을 판단하고, 그것을 뉴스로 만든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의적 성격을 가진 뉴스를 누가 결정하는가? 혹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한 답변은 미디어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데니스와 메릴로부터 찾아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 둘은 전 TV 앵커인 데이비드 브링클리(David Brinkley)의 말을 인용, 뉴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뉴스 척도를 9가지⁶⁾로 정리했다.

6) Dennis와 Merrill이 제시한 뉴스 척도 9가지는 1.갈등(긴장, 경악), 2.진전(승리, 성취), 3.재앙(패배, 파괴), 4.결과(공동체에 대한 영향), 5.탁월(돌출), 6.진기함(이상함, 극도로 이상함), 7.인간적 흥미(정서적 배경), 8.시의성(신선함과 새로움), 9.근접성(지역적 호소) 등이다.

“ “뉴스란 특이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평온함은 뉴스가 아니다.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한다면 뉴스가 아니다. 하지만 추락하면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뉴스이다(Dennis & Merrill, 2006, p.113).” ”

이와 같은 정의는 언론인들이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현장에서 별다른 의의 없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결과로 판단된다. 두 사람은 뉴스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를 전제로 뉴스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데니스의 입장이 편집자의 판단이 아닌 시장의 힘이 뉴스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반해 메릴은 정반대로 시장의 힘이 아닌 편집자의 판단이 뉴스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집자들이 뉴스 선택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고, 그것이 편집자의 개인적 편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의 힘에 의해 뉴스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인들과 매체 종사자들이 본질적으로 비윤리적⁷⁾이라는 전제로 논지를 전개했다. 하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윤리적이라고 판단한 메릴은 신문이나 방송에 내보낼 뉴스를 미디어 종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미국과 같은 자유 언론 사회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뉴스가 재빠르게 변모하는 등 언론의 실제적 특성이 뉴스에 대한 시장적 접근에 적절하지 않으며 오직 언론인만이 뉴스를 취급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에서 뉴스의 속성에 대한 논의에서 이해했듯이 뉴스는 정보 전달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 흥미 또는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매우 복잡다각한 양태로 표출된다. 뉴스 가치 또는 뉴스 척도는 이와 같이 다양한 양태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외부 세계의 성격을 추출한 개념들이다. 그렇다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추출돼 전달되는 것일까?

7) 저자들은 언론인 일반이 아닌 미국 언론인들에 대해 ‘비윤리적’ 또는 ‘윤리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객관성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객관성이란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자연과학자의 객관적 입장’(Schiller, 1981, p.194)을 뜻하는 것으로, 언론인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뉴스를 전달하는 자세를 갖추게 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언론을 사회의 거울로 보는 시각도 외부세계를 그대로 전달하는 개념으로 객관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언론 활동은 실제 세계의 현실 또는 객관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좁혀진다. 뉴스라는 것은 언론인의 개입 없이 바깥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세상을 보는 렌즈로서의 뉴스(News as a lens on the world)’와 같은 표어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전하고 있다(Zelizer, 2004, p.31).

뉴스의 객관성은 언론이 주관성을 배제한 채 외부 세계 또는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 보도란 사실을 신뢰하고 의견을 불신하는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보도를 말한다(Shudson, 1978). 이와 같은 객관 보도는 일반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오도를 방지하고 결국 매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경향은 지금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학 교과서들이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미국의 경우, 민디치(Mindich, 1998, p.8)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취재 보도 관련 교과서 5종⁸⁾을 분석해본 결과, 4종이 특별히 학생들에게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과서들은 비슷한 용어로 객관 보도의 구성요소들을 5가지로 설명했는데, 사실과 의견의 분리, 불편부당, 역피라미드형 기사체, 순박한 경험주의, 균형성 등이다. ‘객관성’이라는 말을 드러내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 나머지 1종의 교과서(*Beyond the Inverted Pyramid*)도 ‘객관성’을 비슷한 용어인 ‘진실성’, ‘공정성’, ‘균형성’ 등으로 대치했을 뿐이었다. 객관성은 이와 같이 이상적인 뉴스

8) Mindich가 거론한 5가지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Fred Fedler, *Reporting for the Print media*. Melvin Mencher, *News Reporting and Writing*. Mitchell Stephens, *Broadcast News*. Mitchel Stephens and Gerald Lanson, *Writing and Reporting the News*. The Missouri Group(George Kennedy, Daryl R. Moen, and Don Ranly), *Beyond the Inverted Pyramid: Effective Writing for newspapers, magazines, and Specialized Publications*.

전략으로서 신문과 방송 같은 주류 언론을 지배해오고 있다.

진실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도 객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객관성은 사실 보도의 요건일 뿐 진실 보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동원되는 개념이 객관성이며 그 때의 외부 세계는 진실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이 진실 보도와 완벽하게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Schudson, 1978, p.147). 객관성을 진실의 한 측면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메릴(1985, p.11) 등의 주장인데, 이들은 진실의 전달 문제를 객관성의 준수와 동일하게 보았다.

하지만 객관성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야기가 1950년 대 근거 없는 폭로전을 일삼은 맥카시 선풍 때 미국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억울하고 터무니없는 공산주의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당시 객관 보도의 요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했다.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이었던 맥카시가 사회적 명사들을 뚜렷한 근거 없이 공산주의자라고 폭로하며 전국을 누볐지만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지 못한 채 맥카시 의원의 폭로를 인용, 보도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는 태도였다. 맥카시는 객관 보도를 엄격하게 해석해온 언론의 관행을 교묘하게 활용해 언론인들을 조정했다(Fink, 1995).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자 언론의 객관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즉, 객관 보도라는 것이 피상적이며 독자를 오도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객관 보도 또는 언론의 객관성은 기자의 직업적 죄악을 감추는 데 이용되는 ‘전략적 의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The Missouri Group, 1999, p.16).

객관성의 본래 의미가 잘못 이해되고, 대체로 그 의미를 잊어버린 상태라는 주장도 나왔다(Kovach & Rosenstiel, 2001). 당초 객관성이 등장해 언론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이 언론의 정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보를 점검할 수 있는 일관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객관적인 것은 방법이었지 언론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객관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혼란

스러워졌고 의미도 상실되었다. 또한 언론인들은 객관성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며 거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언론인들이 객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객관성이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일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로 미루어 뉴스의 객관성 추구는 한국의 언론 문화에서 여전히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송용희, 2005). 그것은 객관성의 이상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2. 뉴스 객관성의 성격

1) 규범과 표준으로서의 객관성

앞의 논의에서 한국의 언론인들은 취재 원칙으로서 ‘사실의 정확한 취재’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뉴스 객관성을 무엇보다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됐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객관성을 언론인들의 행동강령으로 규정한다.

언론의 객관성에 대해 언론인들이 따라야 하는 표준이라고 한 규정(Gynn, 1995)이 있는가 하면, 뉴스의 객관성 추구를 불편부당한 보도를 이룩하기 위한 게임의 규칙으로 본 연구 결과(Merrill 1991, p.122)도 있다. 언론 활동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어떤 규범이나 표준에 충실했던 것(Westerstahl 1983)으로 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객관성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보자.

스웨덴의 신문 방송 및 세계 4대 통신사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 보도한 내용 및 스웨덴의 광산 노동자 파업 관련 보도내용을 분석, 뉴스의 객관성을 설명한 웨스터슈탈에 따르면, 객관성에 규칙에는 두 가지 주된 요소가 있다. 하나는 사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불편부당성이다. 많은 학자들이 객관성의 개념과 관련,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가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실성 차원은 다시 진실성과 관련성으로 나뉘고, 불편부당성은 비당파성과 중립성으로 나뉘진다. 진실성은 어떤 사건에 관련된 신뢰할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여부를 뜻하고, 관련성은 보도와 관련해 선택되는 사실들이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통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 불편부당성은 사회 현실을 파악함에 있어서 대립되는 시각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비당파성이란 뉴스 보도가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여러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비당파성은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때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측면, 또는 “논전이 벌어질 때 모든 측면”(Mechner, 1987, p.26)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도는 공정하고 균현이 잡힌 것으로 보여진다.

중립성이란 언론인이 사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뜻한다. 즉, 한 당파가 대립되는 어떤 당파의 견해나 주장을 비판할 때 언론인은 그것이 특정 당파의 의견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강명구, 1994). 언론인이 취재 대상과 거리를 두는 것은 불편부당성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언론인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느낌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원으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Mindich, 1998).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인은 “뉴스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Hohenberg, 1973, p.332).

실제로 객관 보도의 전통을 살펴보면,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야 한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왔다. 1970년대에 루 캐넌은 조지 라드너(George Lardner, Jr)를 인용, 객관 보도의 작동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3개 항으로 정리했다.

1. 기자는 자기 스스로의 권한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건(안), 즉, 보고 검증할 수 있는 것들만을 취급한다.
2. 기자는 서로 대립하는 집단의 견해들을 언급함으로써 논쟁적인 사안을 취급해야 한다. 이것은 기자의 설명을 제한하면서 사건(안)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3. 기자는 관찰할 수 있는 사실과 반대 견해들을 동시에 수집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기자는 자신의 신념, 원칙, 취향 혹은 지식의 성향까지도 반영해서는 안 된다. (Lou Cannon, 1974, p.44)

이를 간단한 용어로 풀이하면, 객관 보도는 3가지 기본요건 즉, 사실성, 균형성, 비당파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할 때에만 종국적으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객관성의 하위 개념들은 모든 보도에서 언제나 적용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개념이 서로 동등한 정도나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 객관적인 뉴스보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객관성의 규칙들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기자들에 의해 준수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Westerstahl, 1983, p.421)이 필요한 일이며, 그렇지 않으면 객관 보도의 성취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객관성은 언론이 실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내포하고 있는 가치이지만 마감시간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여건에서 뉴스를 제작해야 하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언론인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있다고 해도 기대하는 대로 성취해내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성의 가치가 몰각되거나 저하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 챌러비(Chalaby, 1998)는 객관성을 저널리즘의 표준이면서 동시에 이상으로 간주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많은 언론인들이 가능한 한 객관적이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전적으로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이기를 요구하는 수용자들의 바람에 따라 자신들의 객관성이 개선되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객관성이 언론 담론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표준으로서의 객관성이다. 다시 말하면, 언론 활동의 표준으로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은 언론인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적으로 볼 때 규범과 표준으로서의 객관성은 언론의 질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규범과 표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때 객관성은 그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뉴스 제작 절차로서의 객관성

객관성을 언론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닌 뉴스 제작 과정의 어떤 절차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언론인 또는 언론 기관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일련의 절차로서 객관성을 채택한 것이며, 객관적인 보도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따라갈 때에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터크먼은 이러한 주장을 이론화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녀는 1972년에 언론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과 언론인들에 대한 인터뷰⁹⁾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논문을 통해 전통적인 규범론을 비판하며 언론인들이 전략적인 이유로 객관성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객관성을 언론인들의 ‘전략적 의례’로 파악한 것이다. 객관성은 언론인들의 행동으로 도출된 잘못된 결과를 없애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터크먼은 이 주제와 관련해, “언론인에게 ‘객관성’이라는 용어는 언론인 자신과 비평가 사이의 방파제이다. 뉴스 소비자가 분간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언론인은 비평가와 자신의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Tuchman, 1972, p.677).”고 주장했다. 언론인은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를 생산해내면 다중적이고 산발적인 위험에 대응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위험들 때문에 ‘객관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언론인들은 이 객관성을 주장하기 위해 4가지 전략적 절차를 밟는다. 그 절차들은 ‘상반되는 가능성의 제시’, ‘지지하는 증거의 제시’, ‘인용부호의 혼명한 사용’, ‘적절한 방식의 정보구조화’ 등이다. 언론 종사들은 왜 이와 같은 전략을 구사할까? 터크먼에 따르면, 이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인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출고 마감시간, 생산된 뉴스에 대한 반론, 공정성의 미비를 주장하는 공격, 명예훼손 소송, 때로는 언론기관 내 상사의 질책 등이 언론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이다. 이와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동기에서 절차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터크먼은 언론인들이 사회에서 발생한 어떤 일을 뉴스로 변형시킴으

9) 터크먼은 언론인들에 대한 참여관찰로 10년 세월을 보냈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매주 하루씩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보냈다. 1967년부터 1969년까지는 한 신문사에서 6개월을 보냈고, 1975년은 뉴욕시의 기자들을 인터뷰한 기간이었다. 1975년부터 1976년 사이의 3개월 동안은 뉴욕시청 기자실을 드나들면서 출입기자들을 관찰했다(Zelizer, 2004, p.217).

로써 현실에 대한 틀짓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객관성은 어떤 일이 뉴스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터크먼은 오랜 동안 언론인들로부터 송양을 받아왔던 객관성이라는 가치를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축소시킨 셈이다. 하지만 그녀의 연구 결과는 언론인들의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하도록 학자들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Zelizer, 2004).

디믹(Dimmick, 1977)은 미디어가 일반화되면서 수용자들의 비판도 갈수록 다양해졌고 언론은 이를 방어하기에 취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언론으로서도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기 위한 규범이나 직업적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야 한다며 객관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의 이와 같은 견해는 객관성에 대한 터크먼의 분석에 보충 자료가 될 수 있다.

시걸(Sigal, 1973)은 객관성의 개념에 대해 터크먼과 약간 다른 견해를 꾀력했다. 그는 뉴스의 객관성과 관련, 전략적 의례로서 관행을 해석하는 장치로 보지 않고 언론의 직업적 이데올로기의 부분으로 그 성격을 파악했다. 시걸에 따르면 어느 직업이든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들로 구성되는 이데올로기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언론인들에게 해설기사를 줄이고 스트레이트 뉴스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객관성의 관행은 순전히 심리적인 것이고 기능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객관성은 언론인들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심리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화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근본적으로 터크먼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터크먼의 이론으로 언론 현실을 설명하는 데 미비했던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전략적 의례로 보고, 언론이 전략적 동기에서 4가지 절차를 밟는다는 터크먼의 주장은 언론인들이 최대한 사실을 사실대로 재구성하고 진실을 발견하려 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이론이다. 예를 들어, 죽음을 무릅쓰는 종군기자들의 활동을 그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길이 막연하다.

객관성을 뉴스 제작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따라야 할 절차로 이해한 터크먼의 주장

은 객관성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인들이 객관성을 추구하는 까닭을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절차로서만 볼 수 없는 현장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숙(2002, 46-47쪽)은 저널리즘의 관행에 대한 터크먼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터크만이 언론 현실에서 통용되는 관행을 진실 추구와는 거리가 먼 하나의 절차로 보는 데 대해 “일반적 학술논문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객관성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에서 최종 목표와 달성된 결과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터크먼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최종 목표(객관성)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뉴스 제작 과정)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3) 언론 윤리로서의 객관성

뉴스의 객관성을 언론 활동의 윤리로 보는 시각도 있다. AP통신사에서 기자 편집자 등으로 21년을 지낸 핑크(Fink, 1995/1995)는 자신의 언론인 경력을 바탕으로 객관성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주장성 저널리즘¹⁰⁾’이 언론인에게 보람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차이점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참된 의미의 객관성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제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성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목표”라며 “언론이라면 취재·보도활동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런 성향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핑크는 ‘사실의 선택과 배열’, ‘용어의 선택’, ‘시기와 정황’ 등에서 현실적으로 객관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자가 사람들이 ‘말한 내용’ 대신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쓰게 되면 그 기사 또한 객관성을 지니기 어

10)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언론의 현상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한 언론운동의 하나로,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전통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이 특정 이슈와 명분을 드러내놓고 지지했다. 주창 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스 용어와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기자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성에 대한 윤리적 시각은 다른 학자들의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캐서린 진은 “객관성이 언론 내의 이상적 규제임을 알려주는 지표라는 사실을 점점 증가해가는 미디어 윤리에 대한 논의에서 발견하게 된다”(Gynn, 1995, p.36)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언론인이 뉴스를 취재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됐느냐에 따라 해당 기사의 윤리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웨스터슈탈은 “객관성의 표준은 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절차적 윤리로서 발전해왔다.”(1983, p.403)고 지적했고, 스텐사스 또한 뉴스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언론 곳곳에 침투해 있는 윤리”(Stensaas, 1986, p.50)라고 주장했다

메릴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객관적인 언론이 윤리적인 언론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관념(Merrill, 1985)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시각은 밀스(Mills, 1983) 같은 학자의 연구로도 지지를 받고 있다. 밀스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반응들은 언론에 있어서 윤리란 ‘객관적인 뉴스 처리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의 연구 속에 등장한 언론인들은 윤리와 관련한 자신들의 주요 관심사는 객관적인 뉴스 처리에 대한 위협 또는 위협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뉴스 처리와 언론인의 개인적 이익, 편견 또는 편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든지 객관적인 뉴스처리와 과다한 업무 간에 생기는 갈등, 무엇이 객관적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갖게 되는 인간적인 한계 등이 언론인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객관성이 언론 현실 속에서 뉴스 제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생생한 윤리 규범으로서 언론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객관적인 언론이 윤리적인 언론이고, 언론의 윤리란 ‘객관적인 뉴스 처리에 충실한 것’이라는 지적은 한국의 언론현장에는 다소 생소할 듯 하다. 그러나 뉴스 객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되면서 언론 윤리와 객관성의 연계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4) 객관성에 대한 비판과 회의

한국 언론인들이 취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행위의 근간이 되는 가치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뉴스의 객관성이다. 학자들은 취재·보도 문화에서 객관성의 추구를 언론사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규범으로 본다(송용희, 2005). 외국에서도 객관성이 언론인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조라는 사실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Brooks, et al., 2002). 이런 이유로 객관성을 두고 언론의 이상적 규제(Gynn, 1995)라거나 직업적 이데올로기(Reese, 1990; Schudson, 1978)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에 대한 비판론이나 회의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김영욱은 객관성에 대한 회의적 혹은 부정적 입장을 두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하나는 인간의 인지와 인지 결과의 언어적 전달이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본 객관성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실제 언론에서 객관성의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 관행들이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두 입장은 혼재된 형태로 나타난다. 즉, 언론의 객관성과 관련한 관행에 대한 비판의 저변에는 인식론적 차원의 객관성에 대한 회의가 깔려있다는 것이다(2002, 16-17쪽). 그렇다면 객관성에 대한 비판론과 회의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가?

우선 비판론을 살펴보자. 무엇보다 객관성은 보도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언론인들에게 단조로운 문체를 사용하게끔 하고, 두드러지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안들만 취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는다. 반대로 어떤 경향성이나 주관성을 필요로 하는 주제는 소홀히 다루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식적인 정보원을 수동적으로 활용하게 되며, 언론인의 의견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Blankenbury & Walden, 1977).

이러한 형태의 언론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1960~1970년대의 다양한 지식인 그룹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다.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언론이 객관적인 현실만 추구한 결과, 개인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은 후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Janowitz, 1975).

또 이 시기 언론인들은 객관적 보도 기준에 의해 자신들은 사안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공식적인 진술을 포함한 사실을 취재하는 데 급급했다고 불평했다. 맥카시 상원의원 취재가 그런 경우였다(Schudson, 1978). 객관성의 이상이 직업적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사고 있다. 코치는 법률가들이나 의사들은 기준을 만들기가 용이하겠지만 언론인들에게는 적절한 직업 활동에 관한 객관적 표준에 동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Koch, 1990). 법률가들은 법에 봉사하는 표준을 믿고, 의사들은 환자 보호를 위한 표준을 믿지만 뉴스 전문가들에게는 지리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분석적 이론의 실체와 비슷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객관성에 대한 비판론은 뉴스에 객관성이 적용될 경우 언론에 나타날 과정에 주된 관심의 초점이 맞춰졌다. 말하자면 객관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비판론에 비해 회의론은 객관성의 성취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회의를 말한다. 객관성에 대한 비판론과는 별개로 이러한 회의론이 사회에 벌써 있다는 지적이다.

1930년대에는 객관성에 혼신하는 언론인들까지도 객관 보도라는 것이 결국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인정했다(Janowitz, 1975). 핀슨(Pinson, 1996)은 슈월츠(Schwartz, 1988)를 인용하면서 언론인들이 객관성의 현실성을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언론인들이 진짜 객관성은 공허한 것이고, 수동적인 정신을 필요로 하지만, 사람의 정신과 자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핀슨에 의하면, 언론인들은 그 대신에 현실성에 대한 합치된 견해를 강조하는 방법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견해를 “준객관성”라고 명명했다. 터크먼이 표현한 ‘전략적 의례’도 준객관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핀슨이 “진짜 객관성”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언론인들이 현실적으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도 오래전부터 뉴스 객관성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Charnley, 1960, p.23). 언론인의 정신에서 주관성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면 뉴스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설사 주관성을 배제한 채 뉴스를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한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 언론이 베트남 전쟁 상황을 정부 발표대로 ‘사실 그대로’ 보도했다가 정부의 의도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뉴스 객관성의 한계를 설명해준다(Schiller, 1981, p.196). 공식적인 진술에 주로 의존하게 되면 언론인들은 결국 현실에 대해 틀 짓는 힘을 정보원들에게 넘겨주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당국이나 다른 기관의 주요 인사가 말하는 것이 뉴스 그 자체이며, 객관성의 이상 같은 편집국의 가치는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고, 보다 큰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필요에 적응되어야 한다(Reese, 1990). 이런 점에서 뉴스 보도의 주관성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데니스와 메릴(Dennis & Merrill, 2006)은 객관성의 성취 가능성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메릴은 보도의 객관성이 가능하지 않다는 쪽에 서 있다. 객관보도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가정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가정들은 언론인이 객관적 행위를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언론인이 전체 사실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언론인은 사실과 관계없이 독립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언론인은 편견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기사에 언론인 자신의 견해를 넣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론보도의 객관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메릴의 견해이다.

그러나 데니스는 객관 보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객관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통적 취재보도 방식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뉴스 취재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하고 취재한 결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 기사화하면 적어도 원하는 수준의 객관보도는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데니스는 언론보도의 객관성이 야말로 1960~1970년대 시류에 밀려난듯하지만 언론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뉴스의 객관성은 아예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뉴스는 본질적으로 객관적일 수가 없고, 오히려 뉴스란 주관성이 개입되는 담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나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보도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건이 본래 내포하고 있는 속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와 시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사건은 ‘선택’되고 ‘각색된다는

것이다(Robonson, 1984).

맥奎일(McQuail, 1986)은 비객관적 뉴스 차원을 도입해 이론을 세웠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언론의 객관성은 필연성과 독립성으로 구분된다. 그는 뉴스 생산 과정에서 언론내적 요인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내적 요인은 언론사의 경제적 조직적 기술적 요인 따위를 일컫는 것으로, 뉴스 생산자인 언론인이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뉴스의 객관성은 이와 같은 제약에 대한 언론인들의 적응 전략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맥奎일이 말하는 독립성은 사설이나 해설기사 등 주관적 판단과 평가를 행사하게 되는 영역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언론보도에서 순수한 객관은 존재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뉴스 객관성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객관성의 폐해를 지적한 비판론을 살펴보고 객관성을 성취할 수 없는 이상으로만 간주하는 회의론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론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의 이상은 남아있고, 언론인들의 뉴스 제작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절 뉴스 객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 생성과 진화

1. 서구 언론의 객관성의 역사

1) 1830년대 이전

언론기관에 따라 뉴스가치가 다르기도 하고, 윤리적 태도 또한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서구의 언론에서 객관성의 원칙은 전통적으로 전문성과 성실성의 초석 역할을 해왔다. 언론인들에게 객관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실성과 전문성에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Campbell, 2004).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는 사정이 그와 달랐다. 그때까지 신문은 정치적 토론과 행위의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신문의 주된 목표는 특정한 견해를 발표하거나 선전하는 일이었다.

오늘날 뉴스의 객관성이 언론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언급되지만 그 뿐만 아니라 1830년대의 미국 언론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이다(Mindich, 1998; Schiller, 1981; Schudson, 1978). 1830년 대 이전에 객관성이라는 것은 이슈가 아니었다. 미국 신문들은 특정 당파의 견해를 전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뿐 중립적인 견해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Schudson, 1978).

당시 미국에는 철저히 상업적인 성격의 신문과 정파적인 성격의 신문 등 두 가지 형태의 신문이 있었다. 상업 신문은 상인 계급의 필요에 충실했고, 주로 광고와 화물 운송 소식으로 지면이 채워졌다. 정파 신문은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 집단에 따라 구분되었고, 정당이나 정치인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다. 편집자들은 정치인들의 견해에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자들에 의한 의제나 정치적 전략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Schiller, 1981). 이와 같은 상황인 만큼 뉴스는 공공연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언론기관은 압박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때문에 언론사학자인 모트(Mott, 1959)는 1795년부터 1835년까지 40년 동안을 “미국 언론의 암흑시대”라고 불렀다.

상업 신문과 정파 신문은 내용도 서로 다르고 독자계층도 상이했으나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었다. 첫째는 재정적으로 후원자들에게 의존하다 보니 신문의 수명이 짧았다. 스튜어트(Stewart, 1969, pp.17~18)는 1812년 이전에 발간된 신문의 절반 이하의 존속 기간이 2년 정도였고, 4년 이상은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둘째는 신문 구독료가 비쌌다는 점이다. 한 부 구독에 6센트 정도였는데 이는 보통 사람들이 신문을 구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액수였다. 페인(Payne, 1970)은 당시 신문이 거리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관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신문들마다 특정한 독자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독자들에게 사적인 분위기와 같은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점이다(Hallin, 1985). 이러한

논의들로 보아 19세기 중반 이전의 미국 신문들은 후원자의, 후원자에 의한, 후원자를 위한 신문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페니 프레스의 등장과 객관성의 태동

1830년대 미국은 자본주의가 기세를 올리기 시작한 시대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언론은 이 시기에 상업적 혁명의 시대를 경험한다. 그 속에서 언론의 분위기를 바꾼 것이 페니 프레스(Penny Press)의 등장이었다. 이는 객관성이 뉴스 보도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는 기점이 되었고, ‘신문은 저렴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놓을 만큼 오늘날의 상업적 매체의 출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뉴욕의 젊은 인쇄업자 벤자민 데이가 1833년 9월3일에 발간한 신문을 제외하고 페니 프레스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는 이 자그마한 신문을 ‘뉴욕 선(New York Sun)’으로 명명하고 한 부에 1센트를 받기 시작했다. 이 신문이 바로 최초의 ‘페니 페이퍼’였다. 당시 발행부수는 4페이지짜리 300부였는데 대부분의 기사는 대단한 뉴스가 아닌 하찮고 가벼운 것들이었다. 과거에는 신문에 게재되지 않고 사람들 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화제를 만들어내던 그런 종류의 정보들이었다. 특히 데이의 신문이 강조한 것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과 폭력에 대한 뉴스였다. 데이의 전략은 값싸고 대중적인 신문을 보급한다는 것이었고, 그의 전략은 적중해서 발행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뉴욕 선’은 창간 6개월이 못되어서 경쟁업체의 2배 가량인 8000부의 발행부수를 기록하게 됐다.

‘뉴욕 선’의 성공과 함께 뉴욕에서는 다른 페니 페이퍼들이 잇달아 창간됐다. 1835년 5월에는 제임스 베넷이 ‘뉴욕 헤럴드’를 발간하기 시작하는 등 1830년 대에 뉴욕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신문만 해도 35개나 되었다. 핸리 레이몬드가 내기 시작한 ‘뉴욕 타임즈’는 1851년에 첫 호를 냈다. 페니 프레스는 뉴욕을 벗어나 다른 도시로 번져 나갔고 이는 미국에 새로운 형태의 신문 제도를 가져다 주었다(Emery, 1984).

데이의 ‘뉴욕 선’은 과거의 신문이 특정 정파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수 엘리트들을 상대로 하던 것과 파격적으로 달랐다. 이런 신문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기능공이나

노동자와 같은 서민층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판매 부수의 증가 덕택으로 신문사들도 경제적인 이익을 보게 되어 더 이상 정치인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도 기업으로서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신문은 기능공이나 노동자들의 정치 과정에도 도움을 주게 되었다 (Stephens, 1997/1999).

당시 신문 발행인들은 정파로부터의 독립을 스스로 선언하곤 했다. 제임스 베넷은 자신이 발행한 ‘뉴욕 헤럴드’ 창간호에 페니 프레스의 형태와 장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어느 정당도 지지 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당파나 집단의 기관지 노릇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느 선거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공중에 관한, 적절한 주제에 대해 채색되지 않은 사실을, 적당한 코멘트와 독자적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차분한 자세로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Kriegbaum, 1962, p39).”

페니 프레스가 등장해 성공을 거두어가면서 신문의 특징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보편적인 시각의 중시와 가치가 배제된 사실에 대한 믿음이었다. 독자 집단이 특정한 계층 또는 집단으로 제한되어 있던 1830년 대 이전 신문들과 달리 페니 페이퍼의 독자는 대중 전체였다. 최초의 페니 페이퍼가 ‘뉴욕 선(Sun)’으로 명명된 것도 이유가 있었다. 그 신문의 로고가 “태양은 모두를 위해서 빛난다 (It shines for all)”였는데, 그것은 페니 프레스의 민주적 전망을 포착한 표현이다. 이는 대중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대중적 정보의 성격 변모를 뜻하는 것이다(Schiller, 1981).

‘뉴욕 선’과 함께 초기 페니 페이퍼로 기록된 ‘뉴욕 헤럴드’는 신문사가 지켜야 할 금언으로 ‘자선, 우애, 정의, 공공선’ 등을 내걸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페니 프레스가 당시 수용자들에게 스스로 선전한 상징들이었다. 이러한 보편적인 개념들을 활용한 것은 특정한 시각이 아닌 보편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전달한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다. 이는 당시 신문들이 특정한 이익이나 정치를 넘어선 곳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찾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개념은 1830년대 페니 프레스가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에 대한 18세기 계몽운동의 유산이었다(Repo, 1986). 19세기 초 미국의 페니 프레스는 엘리트 언론의 주도권에 도전하면서 계몽운동의 담론을 수용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사람들 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페니 프레스는 또한 세상에 대한 정확하고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제공하는 과업을 스스로에게 부과했다. 보편적인 시각과 사실에 대한 중시 외에도 인간적인 관심, 선정주의 등도 페니 프레스라는 상업적 언론이 가져온 새로움이었다.

당시 신문을 통해 얻는 사실은 독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언론인들이 개인적인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을 기울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 세계에 대하여 명확한 출발을 제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명확성이란 것은 노골적인 당파신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Stephens, 1997).

하지만 페니 프레스의 중심적인 특징은 보편적인 시각과 사실에 대한 신뢰였고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Zhao, 1989). 또한 균형성도 언론의 새 규범으로 제시됐고, 뉴스와 의견의 구분도 또 하나의 언론관행으로 개발되었다 (Mott, 1962). 언론에 있어서 객관성의 이상들이 페니 프레스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들이다. 이를 통해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 또는 ‘언론은 균형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사실보도와 의견보도는 구분해야 한다’ 등 세계의 언론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실천적 덕목들이 페니 프레스와 함께 태동한 가치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페니 프레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뉴스 생산과 배포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점도 포함된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의존해왔던 1830년 대 이전의 ‘6페니 페이퍼’들과 달리 ‘페니 페이퍼’들은 광고를 주요한 재정적 원천으로 삼았다. 신문은 구독신청을 통해 가정으로 배달되기보다는 주로 거리에서 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포됐다. 물론 신문 한 부 값은 1 페니였다. 이렇게 해서 언론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이나 노동 계층, 중산층이 신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독자들은 새로이 신문에 등장하는 인간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 범죄 보도와 사회 구석구석의 새 소식 등에 매혹됐다.

신문사의 위상도 변해갔다. 당초에 페니 프레스 즉, 1 페니 짜리 신문들은 인쇄업자들의 부업이나 논객들의 창구로서 출발했으나 점차 주요 사업체로 변해갔다. 동시에 이들 신문 발행인들은 주요 경제계 인사로 대접을 받았다. 이제 그들은 정치 관련 인물이나 사회평론가 또는 활동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업가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들은 언론을 독립적인 자본주의 기구로 확립시킨 떠오르는 자본주의자들이었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말은 페니 프레스가 정치 집단들로부터 편집 차원에서 독립했으며, 재정적으로도 후원자들로부터 독립했고, 신문들이 정부 조직이나 정당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독립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변화들은 1830년 대 이전 정파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단이었던 신문과는 파격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 변화의 급박함에 대해 리프먼(1931)은 페니 프레스 등장이 하나의 혁명으로 보였다고 표현했으며, 셋슨(Schudson, 1978, p.22)은 페니 프레스가 “뉴스의 근대적 개념을 발명해냈다.”고 강조하며 언론 발전에 대한 페니 프레스의 공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 신문은 처음으로 국내외 및 각 지방 뉴스를 다루는 관례를 만들었다. 또 처음으로 경찰로부터, 법원으로부터, 거리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게재했다. 신문은 처음으로 상업이나 정치적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실상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뉴스의 근대적 개념’은 객관성이라는 이상의 씨앗을 안고 있었고, 그 씨앗은 대체로 당파성에서 멀리 떨어진 성격이었다. 셋슨(1978)과 쉴러(Schiller, 1981)는 불편부당이 객관성의 기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민디치도 분리와 불편부당을 두 가지 요소로 명명했다. 특히 민디치의 견해에 의하면, 1830년대와 1840년대에는 ‘분리’라는 개념과 ‘불편부당’이라는 개념이 객관성의 구성요소로서 부각되었고, 1860년대에서는 ‘역파라미드형 문체’가 주요 개념이었다. 또한 사안의 진실과 실제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순박한 경험주의’가 19세기 동안에, 그리고 1890년대에는 ‘균형성’이 특히 강조되는 등 객관성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생성되었다. 민디치는 이렇게 해서 “1890년대에 들어 ‘객관성’이 저널리즘의 위대한 법으로서 법전에 올랐다”고 규정했다(Mindich, 1998, p.114).

한편, 민디치의 이와 같은 선언과 셋슨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객관 보도는 19세기 말까지 미국 언론에서 주요 규범이 되지도 못했고 실천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셋슨에 따르면, 객관성은 1920년대에 들어서야 저널리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그 때까지 객관성에 대한 믿음은 단지 사실과 가치는 분리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 뿐이었다(1978).

객관성이 언론에 완전하게 뿌리내린 시기를 놓고 다소 이견이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 언론에선 1830년대부터 객관성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언론이 정치 집단에 매여 있던 정파언론 시대에서 상업적 이익을 노린 대중 언론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객관보도의 문제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즉, 언론이 어떤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나 예속에서 떠나 대중적 관심을 확보하고 기업적 이익을 키워나가는 수단으로서 객관보도 형식을 주창하게 된 것이다(Schiller, 1981). 철학적으로는 미국에서 19세기 실증주의적 과학이 세계를 보는 방법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널리즘에서도 사실 보도가 지배적 형태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 객관성의 기원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셋슨의 주장으로, ‘페니 프레스’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특징적으로 성장한 ‘민주적 시장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시장 사회 속에서 신뢰가 상실되면서 생겨난 방법이 바로 객관성이다. 19세기 후반에 사실에 대한 믿음은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학에서 사실주의가 융성하면서 더욱 강화됐다. 1890년대 기자들은 사실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산업생활의 경제적, 정치적 사실들을 누구보다도 대담하고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알리는 과학자”(1978, p.71)로 믿었다. 그는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을 “순박한 경험주의(naive empiricism)”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통신사에 의해 개발된 비당파적, 사실적 보도에서 객관성의 근원을 찾는 기술적 주장이다. 즉, 19세기 기술과 산업화, 도시화 속에 객관성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다. 객관보도가 통신사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슈람 등은 『언론의 4이론』에서 다음과 같이 객관보도의 탄생을 묘사했다.

뉴스 통신사는 기자들과 필자들에게 기사가 민주당과 공화당 고객들에게 모두 배포된다는 점과 양자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필자들은 비당파적 기사를 작성하는 데 적응했고, 이 관행으로부터 오늘 현재까지 미국 언론에 스며들어있는 객관보도의 개념이 성장했다.(Schramm 외, 1963, p.60)

송정민(1996)은 허버트 알철을 인용, 미국의 각 언론사의 컨소시엄 형태로 발족한 AP통신사가 그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일찍부터 객관보도를 지향했을 것으로 파악했다.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한 조직인 만큼 특정 정파의 견해를 대변할 수는 없는 처지여서 어느 편에도 치우지지 않는 그야말로 ‘객관성’이 있는 기사를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신을 사용하는 것이 당파적 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은 틀릴 없지만 언론에서 전신의 사용과 객관성의 등장 간에 충분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는 언론에 공공 이익을 감독하게끔 하는 신화로서의 객관성이다. 객관성의 기원과 관련해 언급한 세 가지 개념들이 공통적인 요소, 즉 객관성은 비파당적이고 사실적인 보도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각 개념들은 서로 다른 전제와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19세기 중반 이후 정파적 언론이 지양되고 뉴스의 객관성이 보도에서 보편적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갔다면, 유럽에서는 1930년대 언론이 선전선동 매체로 악용되는 사례를 경험한 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적 토양 위에서 개관주의 언론은 더욱 확고하게 정착되었다(Streeter, 1989).

뉴스의 객관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역피라미드 기사 형식이다. 앞서 객관성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던 역피라미드 기사 형식은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미국은 물론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사체였다. 민디치(Mindich, 1998)에 따르면, 19세기까지 대부분의 뉴스는 연대기적 순서를 따랐고, 충격적인 내용은 기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미뤄두었다. 최근의 신문이라면, 기자가 기사의 ‘리드’로 처리해야 할 내용을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문장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화재 기사라면 당연히 기사의 맨 앞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인명피해니 재산피해의 규모를 담고 있는 문장이 기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위치했다.

미국에서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작성된 첫 번째 리드로 자주 인용되는 문장¹¹⁾은 AP 통신 워싱턴 지국의 로렌스 고브라이트가 쓴 링컨 대통령 피살 소식이다. 그러나 1865년 4월 14일 타전한 이 문장은 리드만 있을 뿐 다른 정보는 담고 있지 않았다. 다른 정보들을 이끄는 문장이 리드인데 고브라이트의 문장은 그렇지 못했다. 이에 민디치는 역피라미드형 기사 최초 작성자를 언론인이 아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 전쟁장관이었던 에드워 스탠튼으로 정리했다. 스탠튼은 뉴욕 사령관인 덕스 장군을 통해 뉴욕의 신문들 앞으로 대통령 피살 소식을 상세히 급전으로 보냈고, 뉴욕 헤럴드 편집자들은 다음날인 1865년 4월 15일 아침 신문에 이 급전을 게재했다. 스탠튼이 작성한 내용¹²⁾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였고, 단락만 나눠져 있었다.

3) 객관성의 진화와 도전

1920년대 전까지 미국 언론에서 객관성의 초점은 파당성에서 독립하고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셋슨(1978)에 따르면, 사회가 변하고,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뀐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객관성의 이상은 직업적 이데올로기로 바뀌어갔다.

민주적 시장 사회의 가치에 의문이 생기면서 지도적 언론인들과 사회과학자들은 사실추구와 이성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전문가 계층에서는 공중의 이성적 활동 능력에 의문을 갖고, 여론을 비합리적인 것으로서 연구 대상 또는 조작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의 전쟁 선전활동은 1920년대 대중 홍보의 폭넓은 성장으로 이어졌다. 스트랙퍼스는 1920년대에 인간성에 대한 불신과

11) 고브라이트가 작성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THE PRESIDENT WAS SHOT IN A THEATRE TONIGHT AND PERHAPS MORTALLY WOUNDED.” (New York Tribune and Herald, 15 April, Mindich, 1998, p.161에서 재인용)

12) 스탠튼이 작성한 문장의 리드는 다음과 같다. “This evening at about 9:30 p.m., at Ford's Theater, the President, while sitting in his private box with Mrs. Lincoln, Mrs. Harris and Major Rathburn, was shot by an assassin, who suddenly entered the box and approached behind the President. (New York herald, 15 April, 1865, Mindich, p.72에서 재인용)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사실들을 수집하려는 경향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의심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지지해주는 철학적 기초를 침식해 들어가고, 민주적 이론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언론인들도 선전활동의 성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선전활동가들이 사실을 조작하고 이슈를 가릴 수 있으며, 언론에 의해 전달되는 사실과 여론도 색깔이 덧칠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같은 상황의 탈출구로서 과학적 방법에 대한 신뢰가 대두됐다. 과학적 방법을 언론을 포함한 인간의 문제에 적용하면 상황을 개선하는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 언론인들의 생각이었다 (Streckfuss, 1990).

1920년대에 사용된 과학적 방법은 단순한 사실추구는 아니었다. 오히려 자각과 주관성에 대한 불신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리프먼(Lippman, 1922, p.256)은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주관을 더욱 깊이 알게 될 수록, 우리는 저쪽에는 없는 객관적인 방법 속에서 향기를 발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셋슨(1978)에 따르면, 객관성이 1930년대까지 언론의 직업적 가치가 되어, 언론인들의 주관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쉴러(1979)는 객관성을 언론인의 전문화를 위한 핵심 개념으로 규정했다. 언론에게는 모험이나 거래보다는 오히려 전문직으로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객관성의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이 전문직이 되면 언론에 보다 많은 힘이 생기고, 특권과 명성을 얻게 되며(Allison, 1985), 수용자의 관심과 요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수용자 보다 더 정당성을 갖추게 된다(Tuchman, 1978b).

전문직으로서 언론은 여러 가지 필요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베임(Beam, 1990)은 언론인에 대한 자유로운 교육, 기사거리에 대한 언론인들의 공정한 접근, 공공의 이익에 대한 봉사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객관성의 표준에 관련되는 요소를 적어도 세 가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들은 바로 객관성의 구성 요소에 포함된 분리, 불편부당, 사실성 등이다. 재노위츠(Janowitz, 1975)가 ‘게이트 키퍼’라고 명명한 전문적 모형 또한 객관성에서 형성된 것으로 언론인들은 이를 통해 과학적 방법의 규범을 적용시켜 자신이 하는 작업의 객관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객관성이 미국 언론의 직업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점은 연구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860년대, 1870년대, 1920년대, 1930년대의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비교해 본 연구(Stensaas, 1986)에서는 1905년부터 1914년까지 10년 이후 줄곧 객관 보도가 우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05년에는 사설면과 일반 기사면이 분리됐으며, 1925년부터 1934년까지는 객관성이 표본의 80%로 확고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객관적인 뉴스 보도, 역피라미드 형식, 권위 있는 정보원 사용 등이 늘었다. 180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정보원 사용이 전혀 없었으나 1925년 이후에는 전체 뉴스 보도의 3분의2 가량이 권위 있는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뉴스의 객관성은 언론에서 실천적 규범 또는 이상으로 널리 인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사실 위주의 보도만으로 참다운 의미의 객관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구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파시즘의 등장, 선정주의, 선전선동술의 발달 등으로 사실이 조작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이 사실을 조작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화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회의감이었다(박영상, 1998).

그러한 회의감이 갈수록 짙어지면서 객관성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친 기간 동안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다. 그 기간 동안 뉴스 관리와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적대적 문화의 충돌이 언론을 변화시켰다(Schudson, 1978). 적대적 문화는 비판 문화를 일컫는 것으로서 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로 대학생들이 운동을 이끌었다. 뉴스 관리는 주로 정부가 개발해온 것이며 맥카시 상원의원에 대한 보도는 뉴스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객관적인 기자들이 수동적으로 공공의 기록을 받아 맥카시에 대한 뉴스와 함께 제공했던 것이다. 물론 그의 거짓말과 비방도 함께 보도됐으나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언급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객관성에 대항하는 새로운 언론 기법들이 제시됐다.

이 새로운 기법들로는 뉴 저널리즘, 주창 저널리즘, 팀사보도, 서비스 저널리즘, 정밀 저널리즘, 시민저널리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뉴저널리즘은 1960년대에 객관성에 대한 대표적인 도전으로서 성장했다. 셋슨(1978)은 뉴저널리즘을 미국 언론의 미문 쓰기 전통이 재생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경향이 더욱 미문을 양산시켰고, 사람

들의 직감, 성격, 스타일, 통찰 등의 가치를 높이면서 언론인들과 독자들의 취향을 객관 보도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이다. 뉴저널리즘은 또 공격성에서 객관 보도의 수동성과 구분되는 탐사 언론을 신장시키는 역할도 해냈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뉴저널리즘을 객관보도의 기반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Ward, 1997)도 있다.

그러나 뉴저널리즘을 객관보도와 뿌리를 같이 하는 객관보도의 다른 양상 정도로 보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진 캐서린이 대표적인데, 그녀는 “문체와 문장 정리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해설보도는 사안을 진실, 공정하고 편견 없이 전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객관 보도의 변형일 뿐”(Gynn, 1995, p.36)이라고 주장, 뉴저널리즘 실행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주창저널리즘은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전통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이 드러내놓고 특정한 이슈나 명분을 지지하는 자세로 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엄청났던 불안의 여파로, 당시의 일부 언론인들이 과학적 방법의 언론 인을 비평가와 해설자로서의 언론인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있어서 객관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들은 특히 소외되고 사회적 혜택을 입지 못하는 집단의 시각을 표현하는 언론인의 과업을 응호하였다. 재노위츠(Janowitz, 1975)는 그러한 직업 모델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한 가지는 개혁가의 충동, 즉 언론인들 간에 도덕적 비평을 통해 변화를 시도해보자는 욕망이며, 다른 한 가지는 권위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정부의 조작으로부터 직업적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관심이 겹들여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탐사 보도는 적대적인 자세로 때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사안의 추이에 무관심하고, 사실만 빨리 전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속기식 보도를 지양하고 나아간다. 서비스 저널리즘은 뉴스에 대한 시장 접근식 보도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뉴스에 색다른 정의를 사용한다. 즉, 독특하거나 새로운 것 보다는 최대 다수 사람들의 공통 사항과 관심사를 강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양식을 통일시켜 수용자들과 일체감을 추구한다. 기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하게 된다. 이 양식의 저널리즘은 시장 연구에 많이 의존한다. 정말 저널리즘은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한 보도 도

구로서 서베이 연구 등 사회과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시민저널리즘은 공공 저널리즘이라고도 하며 1990년대에 일어난 언론 운동이다. 언론이 시민 사회에 참여해 공동체가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불편부당 보도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Dennis & Merrill, 2006).

새로운 언론 양식들은 객관성에 도전하는 자세로 세상에 나왔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객관성보다 더욱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뉴저널리즘에 대한 탐 울프의 짧은 글은 객관성에 대한 이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생각은 객관적인 묘사를 완전하게 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독자들이 장편소설이나 단편을 찾아가는 까닭이 되는 그 무엇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인물의 주관적인 삶 혹은 정서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Wolfe, 1973, p.21)

뉴저널리즘 뿐만 아니라 주창저널리즘 활동가들까지도 자기들이 전통적인 언론인들보다 더욱 진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저널리즘 참여자들은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다. 우리의 뉴스는 더욱 적절하고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Dennis & Merrill, 2006, p. 142). 이와 같은 언급들은 객관 보도에 대한 도전으로서 등장한 언론의 새 접근방식들도 정보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객관성 자체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객관성에 대한 도전들은 뉴스보도에 있어서 객관성이라는 규범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을 감안한 활용방안의 다양화 정도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기자협회(SPJ)는 뉴스 객관성에 대한 도전과 논란을 반영하듯 1996년 윤리강령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객관성에 대한 언급을 제외시켰다. 이 객관성은 1987년 개정안에서는 정확성과 함께 언론활동의 표준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론 현장에서 객관성의 이상까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디치(Mindich, 1998)가 잘 지적했듯이, 많은 언론인들은 순수한 객관성의 이상을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객관성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터크먼이 ‘전략적 의례’로 명명한 것, 즉 비난과 소송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직업적 관행들을 훈련하고 있다. 객관성은 많은 언론인들에게 여전히 목표가 되고 있

는 것이다.

2. 한국 언론과 객관성

한국 언론은 19세기 개화기 때부터 육하원칙에 의한 이야기체 서술방식이 등장하는 등 뉴스 객관성의 맹아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양 문물을 만나고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원의 왕래가 계속되면서 객관 보도의 형식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극심한 통제 하의 언론이었으나 언론 보도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가 지면에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1940년 민간지들이 폐간되면서 한반도는 한글 신문 없는 암흑시대를 맞이했고 민중들은 소문을 통해서나 겨우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한국 언론은 광복이 되면서 미군과 함께 상륙한 미국식 자유주의 언론사상과 신문 이론을 접하게 되었다. 광복의 해인 1945년은 ‘신문 없는 암흑시대’를 보내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 언론시대를 구가하기 시작한 기점이었다. 미국식 이론이 전파되면서 뉴스의 객관성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1945년 이전’과 ‘1945년 이후’로 나누어 뉴스 객관성의 층위를 짚어봄으로써 뉴스 객관성이 한국 언론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1) 1945년 이전

오늘날 언론 현장에서 보편적인 실천 가치로 자리를 잡은 뉴스의 객관성은 앞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서구,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또는 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생성, 진화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객관성이라는 개념은 언제 어떻게 한국 언론에 도입돼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언론의 변화 또는

발전 상황과 구체적인 지면 분석을 통해 언론과 객관성의 관련성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는 1883년 10월 31일 창간되었다가 이듬해 12월 4일 갑신정변으로 발행이 중단되었고, 한성주보(漢城周報)는 1886년 1월 25일 창간되었다가 1888년 7월경 폐간되었다. 두 신문의 뉴스원(源)에는, 조선왕조 때 승정원의 발표사항을 기별서리(奇別書吏)들이 작성해 주로 양반계급에 배포하였던 조보(朝報)가 포함되기도 했다(정진석, 1990). 신문 발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세계정세를 알리는 한편 선진국가의 정치 경제 및 문화 제도를 소개하고 과학지식을 보급시키어 결국은 이 나라를 문명개화의 단계로 이끌어 보기 위한 것”(이광린, 1974, 60쪽)이었다. 관리들이 제작하였지만 한성순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 외국의 문물을 소개하고 정부의 시정 방침과 각 지방의 장계, 관리의 임면, 물가 동향 등을 폭넓게 알리려 했다(차배근 외, 2001, 29쪽). 그러나 이를 초기 근대 신문의 기사가 오늘날과 같은 객관성을 갖추고 작성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1986년 4월 7일 창간된 독립신문,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로 1898년에 창간된 데국신문과 황성신문(皇城新聞) 등 각종 신문 발간에 관계했던 인물들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점으로 보아 조보를 만들 때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제작이 진행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인 통리아문 산하 박문국에서 발행한 한성순보만 하더라도 당연히 관리들이 신문을 만들었지만 실제 준비는 개화파로서 1882년 일본에 갔던 박영효가 이듬해 1월 귀국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한성판윤이었던 박영효는 개화사상을 체계화해 소개한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저자 유길준에게 신문 발간에 대한 실무 작업을 맡겼다. 박영효는 당시 일인 전문가 3명을 데리고 귀국할 정도로 신문 창간에 열정을 갖고 있었다. 독립신문은 갑신정변에 가담 했다가 실패하자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을 중심으로 1896년 4월 7일 창간

됐으며, 데국신문은 이승만 유영석 이종일 등이 1898년 8월 10일 창간했다. 이와 같이 구한말의 신문 창간은 서구 문물에 일찍 눈을 뜬 개화파들이 주도했으며, 당시의 신문제작 형편이 나라 밖과는 완전히 절연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조선에 왔던 서양 언론인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들 서양 언론인들은 극동 전 지역을 하나의 언론권역으로 연결하면서 서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일본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뉴스원이 되었고, 일본의 신문이 중국 신문들의 내용을 전재하기도 했다(정진석, 1990).

이와 관련, 강명구(1994, 59쪽)는 “구한말 신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육하원칙(5W1H)에 따르는 이야기체 기사형식을 채용하고 있어 구미언론의 보도형식이 자연스럽게 이전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5W1H 이야기체는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 이어 1904년 7월 18일 창간된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추광영, 강명구, 1989). 이로써 당시 기사작성에 관한 교육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전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개화파를 중심으로 서양의 문물에 접하고 인원의 잦은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초기 언론들이 객관보도의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선영(1995, 88쪽)은 이와 관련, 언론의 ‘객관주의’가 서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전파 과정은 한국에서도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세계적 보편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듯이 언론의 과학주의로서 객관주의는 언론시장의 확대, 기업화, 합리화 과정을 통해 도구화하였고 형식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서구에서나 한국사회에서나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19세기 말의 한국과 서구는 문화적 풍토가 다르고 인식체계에도 차이가 컸지만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객관성이란 개념이 전통적 사유체계에 머물러 있던 구한말 조선사회에 이식되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1830년대 미국에서 폐니 프레스의 등장과 함께 보통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이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하면서 뉴스 객관성의

태동을 알렸던 것처럼 19세기 말 한국의 신문들도 사실을 지향하는 담론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독립신문은 국민 계몽이나 지식 전달에 중점을 둔 한성순보나 주보와 달리 사실보도와 함께 논평과 비판을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서재필은 창간호 논설에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폭이겠다”(차배근 외, 2001, 39쪽)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일제가 주권을 침탈한 1910년 이후 10년 동안은 언론암흑 시대였으나 3.1 운동의 영향으로 일제의 통치방식이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¹³⁾ 등 3개 민간신문이 조선총독부 허가를 받아 1920년부터 신문발행을 시작했다. 이들 민간지들은 만세 운동의 결과로 세상에 태어난 셈이다. 따라서 독립을 희구하는 조선인들의 뜻을 담아내면서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통과해서 신문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당시 민간지들에게 부과된 가장 큰 현실적 과제였다. 동아일보는 창간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흐른 1920년 4월 15일자 기사¹⁴⁾에 대해 발매금지 및 압수처분을 당했고, 창간 직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조선일보는 인쇄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1920년 4월 28일에야 겨우 제4호를 냈으나 총독부에 압수당하고 말았다¹⁵⁾. 이와 같은 탄압을 시작으로 민간지들은 1940년 폐간될 때까지 검열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가장 많은 발매금지 · 압수처분을 당한 해는 1924년과 1925년으로 조선, 동아, 시대 일보가 평균 1주일에 한 번 꼴로 압수를 당했다(정진석, 1998, 15쪽)¹⁶⁾. 이처럼 신문들은 연명하기에 급급할 정도로 제작 환경이 척박했고, 독자들이 신문에

13) 1920년 3월 5일에는 조선일보, 다음 달인 4월 1일에는 동아일보와 시사신문이 각각 창간되었다. 하지만 친일지 성격의 시사신문은 1921년 2월 16일 사장 민원식이 항일투사 양근환에게 암살당하자 자연스럽게 폐간됐고, 민간지로서는 조선과 동아 두 신문만 남게 되었다.

14) ‘평양에서 만세소요, 14일 오후 2시 평양에서 만세소동이 일어나 대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로 약 4백여명의 청년이 만세를 부르고 많은 시민이 호응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 압수처분을 받은 기사는 ‘어약혼 있었던 민낭자, 지금부터의 각오’라는 제목의 기사로 영친왕과 혼약이 있었다가 일제의 정략 결혼 정책으로 과혼을 당한 박석고개 민규수 맥을 기자가 탐방한 기사였다.

16) 세 신문 중 시대일보는 1924년 3월 31일 창간된 신문으로, 사장은 최남선이었고, 조선동아 또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毎日申報)와 달리 1면을 대담하게 정치면이 아닌 사회면으로 만들었다.

거는 가장 절실한 기대는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는 유형의 기사 제공이었다. 때문에 뉴스의 객관성 문제는 언론인들에게 크게 부각되기 어려운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식 고등교육을 받거나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인물들이 언론계로 진출하면서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의 신문 지면과 관련해 “신문들이 사실보도 보다 평론에 치중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 그대로만을 보도해 주면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기괴하게도 보도와 논평이 병행되고 사회면에 사평이 섞이고 있음”(두선생, 1923, 63~64쪽)을 지적한 글이 있는가 하면, 또한 신문의 본분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출래한 사건을 ‘오죽 공평한 태도로 보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하며 이 점을 망각한 신문은 지극히 위험해야 우리가 상도(想到)치 못할 죄악을 사회에 가급(加及)케 한다”(櫟啞子, 1923, 41쪽)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에도 객관성에 대한 논의에서 계속 제기되는 사안인데, 1920년대에 매체 비평 차원에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주된 독자층인 지식인 계층이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비교적 선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후 언론인들의 객관 보도를 중시하는 태도는 1930년대 들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형성되어간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기관의 기업적 성격이 강화되고, 만주사변 발발 등을 계기로 일제의 언론에 대한 통제가 극심해지면서 지면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도 궤를 같이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인은 주관적 태도를 버리고 민중의 의사 를 표현하려는 객관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오기영, 1934, 83쪽)이 나왔고, 당시의 신문이 기자와 고용주와의 관계, 언론사의 사시, 겸열, 대중의 비판력 성장 등으로 인해 보도 중심으로 흘렀다는 분석(유광렬, 1935, 16~17쪽)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더욱 극심해져 1940년 폐간될 때까지 민간지들은 일제의 군부가 장악한 통신을 통해 전해지는 ‘황군이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전황 보도로 주요 지면을 장식해야

했다. 당시는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바른 인식이 기댈 언덕조차 찾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러나 남재일(2004, 66쪽)은 일제하 신문에선 사실주의 보도의 징후가 나타났고, 사회면을 통해 직접 취재와 단락 구분 등과 같은 형식화가 시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한국 언론의 객관주의 관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언론의 상업화 추세와 식민통치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사실보도의 출발이 범죄기사라는 특수한 유형의 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2) 1945년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한국에는 신문과 통신들이 우후죽순처럼 탄생했다. 광복되던 해 말까지 불과 몇 달 동안에 40종 이상의 신문들이 창간됐다. 일제 말기에 조선과 동아가 폐간 된 이후 한국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은 총 독부 기관지 매일신보(毎日新報) 뿐이었다. 때문에 해방된 공간에서 정보에 대한 요구는 분출했지만 이를 채워줄 미디어는 없었다. 게다가 미군정 당국은 자유방임적 언론 정책을 편다. 새로운 신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특히 광복 직후에는 신문을 이데올로기 투쟁의 도구로 삼는 좌파 신문들 또는 정론지(政論紙)들이 대종을 이루었다(정진석, 1984).

이러한 상황에서는 뉴스의 객관성이 파고들 구석이 없다. 온통 주관성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 제기됐던 뉴스 객관성에 대한 논의도 종적이 묘연했다. 더구나 6·25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은 전시판이 발행되는 등 언론에도 질적인 문제를 거론할 계제가 되지 못했다.

뉴스의 객관성 등 언론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언론단체의 출범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57년 1월 11일 관훈 클럽이 깊은 언론인들의 친목연구단체로 출범했고 4월 7일에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창립됐다. 이어 6월 27일에는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후에 신문협회로 명칭이 바뀜), 7월 11일에는 한국통신협회가 발족됐다. 이와 같이 언론단

체가 잇따라 창립되면서 언론의 윤리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신문편집인 협회가 신문의 윤리강령을 채택했다. 이 강령은 ‘객관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객관보도에 필요한 내용들은 대체로 담고 있었다.

편집인협회가 윤리강령을 채택했지만 당시 신문들은 이 문제를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당시 언론계에서 언론윤리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셈이다. 언론인 단체 가운데 언론의 질적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하고 주장해온 단체는 미국 연수를 다녀온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관훈클럽이었다. 이 단체는 출범 1년 만에 ‘스타일 북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합동통신 기자로 창립 회원이었던 정인양은 클럽 20주년 기념좌담회에 나와 당시의 기사 작성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과장이 아니라 오늘날 신문기사 자체나 스타일은 관훈클럽 회원들이 실천을 통하여 이룩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 당시 기사체는 평면체, 즉 시간적 진행에 따른 서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리드를 먼저 뽑는 역피라미드형이 아니고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끝날 때 끝나는 것이었지요. 예를 들면, 그 당시 한 선배 언론인은 신문은 역사의 기록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기사를 쓰는 데도 회의 진행을 비롯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쓰도록 했지요. 아마 그 당시 편집자들의 고충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목감은 한참 뒤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클럽 회원들은 이런 스타일을 탈피, 요즘식의 기사를 과감하게 썼습니다.”(정법준, 2007, 93~94쪽)

이 증언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까지는 객관성 구성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역피라미드 기사 형식은 일반화된 것은 아니었고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문장을 나열하는 전통적인 문체도 여전히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뉴스 객관성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본격 도입돼 언론인들에게 실천적 덕목으로 작용했을까? 이와 관련해 임근수(1984)는 개화기 근대 언론이 시작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객관보도 개념이 받아들여졌지만, 결국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언론의 상업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1960년 후반부터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객관성 또는 객관보도는 그보다 훨씬 전에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거론한 관훈클럽 회원들은

1959년 12월 25일 『신문연구』(후에 관훈저널로 명칭이 바뀜)라는 잡지를 창간한다. 1963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발간된 이 잡지에 객관보도와 관련한 현직 언론인들의 비판적인 글이 실렸다. 당시 한국일보 외신부장이었던 조세형은 ‘전도(顛倒)피라미트 형(型)¹⁷⁾의 폐단(弊端)’이란 제목의 기고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다.

“해방 후 우리나라 기사문체에 유행한 것에 전도 ‘피라미트’형 이란 것이 있어 왔다. ‘피라미트’나 삼각형을 거꾸로 세워 놓은 듯이 기사를 쓰라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론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서서히 설명을 해나가라는 것이다. 이 기사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7, 8년 전부터서가 아닌가 기억된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미국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 기사체가 거의 요지부동의 왕자를 우리 한국의 신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기자들도 그것을 당연한 기법으로 여겨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전도 ‘피라미트’형에 반성과 비판을 가할 때에 이른 것 같다”(조세형, 1963, 40쪽).

이 글은 몇 가지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있다. 우선 ‘역피라미드’형 문체가 1950년대 중반부터 이미 널리 퍼지기 시작해 1960년대 초반에는 신문 문장의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또한 해방 후 미국인들의 영향으로 쓰게 된 기사체라는 것이다. 역피라미드형 기사체가 일반적인 신문 기사 문장으로 통용되었다면, 그것은 객관성 또는 객관보도에 대한 논의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언론에서 객관보도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된 시기도 앞에서 임근수가 주장했던 1960년 후반보다는 다소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객관보도의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보면 구한말까지 올라가겠지만 광복 후의 한국 언론인들은 광복 후 미국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형에 이어 당시 동양통신 외신부 차장이었던 고명식은 ‘객관보도의 한계’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기자의 주관 확립이 선행해야 한다’는 부제가 암시하듯 객관보도의 원칙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 영어의 'The inverted pyramid'를 번역한 말인데, 현재는 대체로 ‘역피라미드 기사체’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통용되고 있다.

“객관보도는 그 자체로서 객관보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보는 기자의 주관적인 눈이 먼저 문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회에 일단적으로 통용되고 또한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입각한 기자의 주관이 선행되지 않는 객관보도란 것은 결국 객관보도라는 신문의 ‘메커니즘’을 교묘히 이용하여 국민의 의견 방향을 조종하려는 세력에 부지불식간에 농락을 당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명식, 1963, 35쪽).

지금까지 논의에 따르면, 뉴스 객관성은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언론의 실천 원칙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흔히 어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개념의 이식이 이루어질 때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따라서 ‘전도 피라미트의 폐단’이나 ‘객관보도의 한계’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라 발표된 것으로 미루어 더욱 그러한 점이 더욱 확연해진다.

이와 같은 한국 언론의 객관보도 수용에 대해 강명구(1994, 28쪽)는 특정 정파나 집단이 아닌 대다수 독자의 보편적 이해에 봉사한다는 상업적 언론이 직업적 이데올로기로서 정착시킨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1980년대의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대해서도 사실과 관점의 균형이라는 기본적 보도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객관보도’의 외형적 형식만을 수용한 점에 대한 비판의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뉴스 객관성의 외형만 수용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더 논의해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즉 미흡한 공정성은 언론인의 역량이나 인식이 ‘기본적 보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기능적 요인의 결과라기보다는 막강한 정치권력 앞에서 언론이 또는 언론인이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언론인들은 뉴스의 객관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자. 지면을 통해 ‘객관성’ 또는 ‘객관보도’라는 용어가 시기에 따라 어떤 맥락에서 등장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면 한국 언론과 객관성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광복된 해인 1945년부터 비교적 최근인 2005년까지 발행된 조선일보와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검색을 실시했다.¹⁸⁾

그 결과, 뉴스 보도와 관련해 ‘객관적’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경우는 1959년 2월7일자 조선일보였다. ‘서방보도는 객관적’이라는 후루시초프 당시 소련 수상의 발언을 소개한 1단 짜리 외신기사였다. 그러나 그 용어는 뉴스 객관성에 대한 한국 언론인들의 태도를 짐작하기에는 미흡했다.

객관성이 실천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추정된다. 특히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등이 거론되었다. 특히 언론보다도 정부 측에서 언론의 사회책임론과 함께 객관적 보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당시 공보부장관의 IPI 세미나 연설문에 들어있는 구절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객관적 공정 잃지 말아야’라는 제목을 단 당시 공보부 장관의 연설내용을 일부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집약하고 표현하는 선의의 특권을 가진 언론이 객관적이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사소한 이해와 판단의 오류로 국가의 중대 문제들이 경원되거나 묵살되는 일이 있다면 그 높은 사명감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매스콤에 있어서 체송업자가 체송물에 대해 호-불호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매스콤 종사자도 자기의 주관에 의해 그 내용을 차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코먼 캐리어’설이 유력하게 고창되고 있다”(조선일보, 1965, 11, 7).

이 기사는 같은 지면에서 ‘정부와 언론’이라는 특집 제목 아래 당시 편집인협회 부회장 최석채의 연설문과 나란히 게재됐다. 최석채의 글은, “(국가이익을) 누가 판정하느냐가 문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 두 기고에 다른 설명이나 해설은 없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1960년대 ‘언론 보도의 객관성’은 독자들에게도 생소한 명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도의 객관성 또는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기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1970년대는 언론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시기였다. 객관성이 기계적인 물리적 중립

18) 조선일보 지면 검색은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고, 기타 종합일간지에 대한 검색은 한국언론재단의 KINDS를 활용했다. KINDS가 1990년 이후 기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만 운영하고 있어 그 전의 기사에 대해서는 DB 구축이 잘 되어있는 조선일보를 이용했다.

성으로 인식되는 시기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상(事象)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히 판단하여야 하는 신문에 있어서는 노선이나 가치가 날카롭게 대립함에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물리적인 중간에 서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을 읽지 않는 최량의 방법이요 최선의 태도이다.”(조선일보, 1975, 3, 5)라는 입장 천명도 나왔다. 여기서 객관성은 사실의 중시나 균형성 등의 가치는 배제하고 있다. 그런 점 때문에 “현실적 타협의 결과물로서 객관주의는 불편부당론이라는 형해화된 이데올로기로 구체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됐다(유선영, 1995, 112쪽).

1980년대는 이른바 ‘언론통폐합’이 단행되고, 기자들이 대거 강제로 해직된 시기였다. 여기에 사실을 사실대로 쓴다는 순수한 객관 보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독자들은 행간에서 메시지를 찾아내야 했다. 이 시기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뉴스의 객관성’이나 ‘객관 보도’라는 용어 자체가 검색 조차되지 않았다. 언론자유가 위축될대로 위축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뉴스의 객관성에 언론인들이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애써 잊으려고 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이 가기도 한다.

남재일(2004, 246~247쪽)은 한국 언론의 객관주의 형성과 관련, 1960년대 후반 언론기업이 적극적으로 상업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뉴스 상품의 판매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범죄중심보도 경향이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이 군사정권 시기 내내 지속되며 객관주의 관행이 급속도로 형식화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와 같은 범죄 중심보도 중심의 편집방침은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 형식적 사실주의를 객관주의 관행의 패러다임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신문에서는 ‘객관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객관성에 대한 시각도 매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이나 태도 또한 이 시기부터 다양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은 신문의 날을 맞아 ‘신뢰받는 신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른바 ‘대신문’들을 지목, ‘보도의 횡포성과 지나친 자기과신 행위’를 지적하며 “언론의 정도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냉정한 객관성의 유지와 사회정의의 편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경향신문, 1990, 4, 7)이라고 입장을 분명하

게 밝혔다. 상대적으로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가 많은 신문들이 객관성을 냉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문업계 내의 지적은 객관성에 대한 인식 태도가 이미 판이한 형태로 자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객관적 보도와 논평의 목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여론을 형성해서 잘된 일은 더욱 잘 되게 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게 함으로써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한겨레신문, 1990, 6, 10)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범죄에 관련된 보도에서 익명을 삼가고 실명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독자에게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공, 기사의 설득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객관성의 효용을 기사의 신뢰도 제고 차원으로 해석했다(동아일보, 1990, 12, 4).

사회도 객관 보도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언론에 이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폭력적 학생운동에 대한 33개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언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태도”를 요구하였고(한국일보, 1991, 5, 1), 선거보도와 관련,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문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명감을 갖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선거풍토도 개선될 것”(경향신문, 1992, 3, 7)이라고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는 기고도 있었다. 또한 검찰이 수사 진척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 할 테니 언론도 객관적 보도에 힘 써 달라.”고 당부(세계일보, 1992, 7, 15)하는 기사도 실렸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언론계에는 보도의 객관성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객관성에 대한 엄존하는 또 다른 시각이었다. 세계일보가 ‘설왕설래’란에 게재한 글이 대표적이다.

“신문보도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어차피 교과서에서나 논의될 일이다. 남과 북의 언론의 차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아니라 누구의 구미에 맞추느냐에 있을 뿐이다. 남쪽의 상업지는 어쩔 수 없이 아랫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북쪽의 신문은 선동하고 길잡이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의 궁금증에 민감할 리가 없다”(세계일보, 1990, 9, 8).

그러나 같은 신문이 2년 후에는 사설을 통해 방송의 뉴스보도의 경우 객관성과 공

정성이 생명이라며 객관성에 다시 무게를 주는 모습을 보였다. 비판과 찬양을 적당한 비율로 배분하는 보도 자세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이 사설(세계일보, 1992, 3, 12)은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뉴스의 객관성 또는 객관주의를 둘러싼 기사는 신문의 보도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때마다 간헐적으로 게재됐다. 이러한 보도들은 사설로 게재될 경우, 해당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됐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객관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객관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객관 보도의 대안도 신문 지면에 이따금 등장했다. 1992년 신문의 날 조선일보 시론은 ‘신문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객관주의 내지는 형식적 중립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내용이었다(오두범, 1992, 4, 7). 요체는 이제 ‘객관보도’보다는 전문성 신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오택십(1993)은 시론을 통해 1993년 봄의 연속적인 폭로 기사와 관련, “50년대 초반의 미국 언론과 요즘 우리 언론이 놀랍게도 닮은 점은 맹목적 객관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라며 “부정축재 공무원, 이중국적자, 부정입학 관련 혐의자 성명이 사실 확인은 고사하고라도 반증과 반론의 기회 없이 객관적 사실로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동아일보, 4, 24), 맹목적 객관주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민웅(1993)은 언론의 ‘백선장 생존설 오보’와 관련해 신문 기고에서 언론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했다기보다 검찰을 인용함으로써 보도형식만 객관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하며 “객관보도의 요체는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타당성에 있는 것이지 보도형식의 객관화에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동아일보, 10, 30).

언론인들 스스로 객관성에 대한 실천이 잘 되지 않았음을 언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1994년 5월 27일에는 제주도에서 열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 보도국장 세미나에서는 한국 언론의 외교 안보분야 보도가 애국심에 치우쳐 객관성과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심층 해설보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한국일보, 1994, 5, 29). 1996년에는 “선거보도의 경우 단순 뉴스보도보다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등 퍼블릭 저널리즘 또는 시빅 저널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며 하나의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객관보도보다는 주관적 저널리즘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조선일

보, 1996, 3, 1)는 내용을 소개했다. 최현철은 한국일보를 분석하면서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하여 보도하려면 주관적인 선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객관적인 보도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보도의 객관성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한국일보, 1996, 9, 23). 우병동(1996)은 신문 기고에서 맹목적 객관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국 언론인들이 맹목적인 객관보도에 그치지 않고 탐사보도나 정밀보도, 현장르포 등 갖가지 기법을 동원해 생생한 현장을 찾아나서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겨레신문, 11, 4).

뉴스 객관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 또는 우려와 달리, ‘객관성’을 여전히 언론이 추구해야할 이상으로 그리고 있는 기사들도 적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문민시대의 언론 자유’라는 사설에서 “책임 있는 언론이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된 사실보도가 그 생명”(동아일보, 1993, 6, 16)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승관은 “류 상경의 사망사건에 관한 일련의 보도들은 객관적 사실보도의 경계를 넘어 감정적 논평보도에 가깝고, 사려와 절제보다는 예단과 억측에 기반한 불균형 보도에 기울고 있다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며 언론에 대해 “주관적 비평을 절제하고 객관적 사실보도와 균형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주문했다(박승관, 1997, 6, 12). 대한매일(현재의 서울신문)은 2002년 1월 “독립정론지로 국민과 독자 여러분 앞에 우뚝 섰다.”고 선언하고 “모든 사상(事象)을 객관성과 공정성에 입각해서 충실히 보도”(서울신문, 2002, 1, 16)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명구는 2004년 신문의 날에 기고한 글에서 “탄핵과 선거에 대한 보도를 보고 있으면 의회정치만이 위기가 아니라 한국 저널리즘이 위기임을 실감하게 된다.”며 “뉴스 객관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기사를 쓰고 편집해도 된다는 주장은 억지”(강명구, 2004, 4, 7)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언론에 투영된 뉴스의 객관성은 상반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객관보도의 형식화에 치중하고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반대로 여전히 객관성을 언론활동의 주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영상(1998)은 객관성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정확성, 사실성, 그리고 완전성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저널리즘의 관행이나 윤리규범으로서 논

의되고 있을 뿐이어서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나 기준이 달라진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뉴스를 위한 객관성의 재개념화를 시도했다. 즉 다면적인 뉴스를 통해 현실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뉴스의 기능, 가치, 목표 등을 아는 언론인의 주관에 따라 뉴스가 만들어져야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를 맴돌고 있는 객관성 논의가 구체화되고, 더 정확한 뉴스를 위한 현실적인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력이 많거나 규모가 큰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전통적인 객관성 개념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Boyer, 1981)가 있지만 지면 분석에서는 그러한 경향조차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언론인들에게 뉴스의 객관성은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 혹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인들은 뉴스 보도의 이상적인 조건으로 언론기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객관성의 개념과 방법을 체득한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경험하는 객관성은 현실적으로 주관성을 배제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Charnley, 1960). 언론인들은 현실에서 기사의 평균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비슷한 사실을 나열하면서 상반되는 견해 까지 게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태도들은 바로 뉴스의 객관성을 보여주고 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그 언저리에 뉴스 객관성에 대한 한국 언론인들의 인식 양태가 자리를 틀고 있을 것이다.

제3장 연구문제

앞 장까지의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뉴스 객관성의 성격과 그 것의 생성 및 진화 과정이다.

객관성의 성격은 크게 긍정적인 측면, 즉 언론인들에게 이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 즉 현실적으로 언론인들에게 회의감을 주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언론인들이 활동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실천적 덕목으로서 객관성은 사실성 균형성 비당파성 등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덕목들은 언론인들이 작성하는 모든 기사에 언제나 동등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뉴스의 객관성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표준 또는 규범을 준수하려는 언론인의 의지에 따라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객관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언론인의 의식 속에 살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터크먼이 지적한대로 뉴스의 객관성은 현실적으로 ‘전략적 의례’의 성격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객관성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뉴스 객관성이 하나의 이상으로서 저널리즘에서 사라질 수 없는 덕목이라 하더라도, 실천 과정에서는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객관성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객관 보도의 형식이 언론인의 진실 접근에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1950년대 미국 언론의 맥카시 상원 의원 관련 보도는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 사례이며, 뉴저널리즘 등 새로운 언론 방식이 출현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객관성의 한계 때문에 언론인들은 정확성 균형성 공정성 등과 같은 더욱 방어적인 표준에 의존하는 현상도 생겼다(Reese, 1990).

한국의 언론 보도의 객관성도 위의 논의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역 피라미드 기사 형식이 도입된 195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혼란 등 언론 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객관성이 일관성을 갖고 언론 발전에 기여해오지는 못했다. 앞 장의 지면분석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객관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분명한 맥락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현장에서 객관 보도가 성숙해지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이는 관행의 형태로 수행되지만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건중심보도, 정보원의 신뢰성 확인, 표준화된 기사 형식, 편집에 있어 사실보도와 해설보도의 구분 등이 그것이다. 강명구(1994, 73-74쪽)는 이와 같은 전략에서 객관 보도의 형식과 관행들이 언론사 구조와 조직 등의 요인에 의해 채택된다는 점, 사건 중심의 보도 관행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사회적 과정이 개별 사건으로 파편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 ‘믿을 수 있는 정보원’ 선호 관행으로 사회 안의 지배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의 의견이나 이념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서로 작용해 현실과 보도된 현실의 간극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뉴스에 나타난 현실은 기자의 눈을 통해 만들어진 현실이라기보다는 전문화 한 기자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보도 형식이라는 ‘뉴스 틀’을 통해 구성된 현실(87쪽)”이라는 것이다. 결국 뉴스 객관성에 대해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의식이 뉴스를 통한 현실을 구성해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객관성에 대해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언론인들이 객관성과 관련해 어떤 집단 의식을 갖고 있는지 윤곽을 잡기 어렵다. 국내 언론인들이 객관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해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문제 1>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

이 연구문제를 통해 한국의 현직 언론인들은 뉴스 객관성을 대체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태도를 집단의식 개념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인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들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들을 이해함으로써 언론인들이 객관성에 대해 갖고 있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연구문제 2>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 유형 간에는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나?

이 연구문제를 통해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 유형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된다. 유형들을 두 가지씩 비교해가면서 차이점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언론인들이 뉴스 객관성에 대해 합의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공통점을 파악한다. 이는 뉴스 객관성에 대한 이 시대 언론인들의 공통분모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언론인의 환경적 요인(언론사 종류, 근무경력, 직위, 근무부서)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이 연구문제는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유형별 태도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본이 적기 때문에 연구문제 해결책을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연구에 참여한 언론인들의 태도와 환경 요인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태도의 형성 배경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건대, 이 연구의 결과는 뉴스 객관성이 언론인들의 사고체계 속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알려주게 된다. 객관성에 대한 인식 성향을 중심으로 피험자들이 분류되면 각 유형별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뉴스 객관성을 취재·보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으로 지각하는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역으로 객관성을 낡은 관념으로 생각하는 유형이 도출될 수도 있다. 객관성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폄하하는 언론인 유형이 존재할 수도 있다. 유형 간에 구분이 모호할 경우, 유형의 특성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해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유형들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한국 언론에서 작용하는 뉴스의 객관성을 이해하는 길이 된다.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취재 보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언론인들이 보도의 객관성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경우,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되는 태도 유형을 활용하여 논의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객관성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는 취재·보도와 관련한 객관성 논의는 실질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객관성에 대한 태도 유형과 조직 내 언론인들의 특성을 대조, 언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연구 결과는 뉴스보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 결과로 객관 보도에 대한 논의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내용 분석을 통해 보도의 객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들은 대체로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 태도와는 무관하게 정해진 틀로 보도내용을 재는 방식이었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에서 차이가 심할 수도 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같다고 상정하고 보도의 객관성 문제를 따진다면 연구 결과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객관 보도에 대한 논의에는 객관성에 대한 태도 유형 문제를 함께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4장 연구방법과 설계

1. Q 방법론

이 연구는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언론인들이 어떻게 지각 또는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측정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Q 방법론을 중심으로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 즉 주관성을 측정해 보자는 것이다.

뉴스 객관성은 언론인이라는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과 관련해 언론인들이 현재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혹은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Q 방법론은 샌더즈(Sanders, 1972, p.519)가 정의했다시피, “자기를 나타내주는 진술, 즉, 의견 진술을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피험자들이 효과적으로 자기들의 태도를 정의해주는 기법”이다. 다음은 스티븐슨(Stephenson, 1953, 1967)과 켈린저(Kerlinger, 1964)가 제시한 Q 방법론의 특징들을 요약한 것이다.

1) 인식, 인격 구조와 신뢰 체계는 개인 중심적이고, 각 개인 안에서 위계적이다. Q 방법론의 기본 전제는 자아의 중심적 역할이다. Q 방법론의 가정에 따르면, 태도는 개인 중심적이고, 그 태도는 주변 현상에 대한 개인의 시각으로부터 유래한다.

2) Q 방법론은 각 개인의 측정 가능한 주관성을 다루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구조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에 따라 각 개인들 사이의 인지를 측정하고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개인으로부터 나온 자료들은 요인분석으로 처리되고 개인들은 여러 요인들 위에 함께 적재된다. 여기서 요인은 바로 태도 유형이다. 각 개인이 유의미하게 어떤 한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는 정도에 따라 그 요인에 의해 제시된 태도는 영향을 받는다. 요인들 사이의 중첩은 그 요인들에 의해 제시된 이상적인 유형의 중첩을 나타낸다. 따라서, Q 방법론은 개인들과 그들의 태도 사이의 중첩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3) Q 방법론은 의견에 대한 위계적 분포의 문제를 다룬다. Q 기법에서는 개인들이 진술문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에서부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까지 표시되어 있는 강제 분포 연속체를 따라 등위를 매기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견들이 진술에 나타난 다른 의견들과 관련지어서 등위가 매겨진다. 개인은 각 의견 진술의 상대적인 현저성에 따라 어떤 이슈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정신 상태를 보여주게 된다.

스티븐슨(1953, p.343)에 따르면, “Q 기법은 개인의 회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반성, 심리적 합병, 태도, 느낌 등에 대한 심리적 속성, 그 밖의 많은 주관적 성격 등을 다루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해준다.” 또한 컬린저는 Q 방법론에 대해 “일련의 문항에 대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 군집(요인)을 밝히는 통계기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김현수·원유미, 2000, 121쪽).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Q 방법론은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를 규명하기 위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2. Q 표본의 구성

Q 방법론에서 피험자들에게 제공되는 진술문, 즉 Q 표본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진술문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들을 처음부터 세심하게 진행했다. 특히 Q 표본의 이면에 있는 가정들을 재확인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는 주어진 이슈에 대해 의견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Q 표본은 반드시 무작위 샘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 Q 표본은 어떤 이론이나 가설을 반영하도록 구조화된 것이거나 전혀 조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Q 진술문들은 흔히 관련 서적과 논문 등 문헌 자료 또는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된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했다.

먼저, 문헌조사는 뉴스 객관성을 연구주제로 삼은 국내외 석·박사 학위 논문¹⁹⁾을 정독하면서 객관성에 대한 진술문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이 조사는 Q 표본의 구성을 향한 첫 걸음 격이다. 이들 학위 논문에서는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뉴스의 객관성은 분석이나 해석을 피하고 사건이나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다.
- 뉴스의 객관성은 기자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배제하는 것이다.
- 뉴스의 객관성은 나무와 숲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 뉴스의 객관성은 채색을 하지 않은 사실이다.
- 뉴스의 객관성은 순수한 의미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하나의 신화이다.
- 뉴스의 객관성은 사실이나 사안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형식의 문장들을 이 연구의 Q 진술문으로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문장들이 대체로 짧고 그 의미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분명해 뇌 속에 녹아 있는,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복잡한 주관성을 뇌 밖으로 걸으로 끄집어내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헌조사의 다음 단계는 국내외 논문과 연구서들을 읽으면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정의나 설명 또는 단순한 언급 등을 참고해 진술문을 풍

19) 초기에 살펴본 학위논문들로는 이인옥(1985)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뉴스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와 보이어(Boyer, J., 1975)의 미국 미주리대 박사학위 논문 'An intensive study of perceptions of news and objectivity'를 들 수 있다.

부하게 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인터뷰는 문헌 조사를 진행하면서 시작했고, 진술문의 대장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됐다. 인터뷰 대상 언론인들은 근무 경력이 9~15년 된 신문기자 10명이었다. 이 언론인들이 객관성에 대한 정리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적어도 20분 이상 대화가 계속된 뒤에야 진술문 형태의 문장이 겨우 만들어질 수 있었다.

문헌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확보한 진술문은 150여 개에 달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이를 수차례 검토한 결과, 표현은 다르지만 중첩되는 내용이 적지 않았고 난삽한 문장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장들을 걸러내고 남은 진술문이 84개였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진술문들이 뉴스 객관성에 대한 설명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이와 관련, 추출된 진술문들을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뉴스 객관성의 성격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그 기준은 모두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뉴스 객관성을 언론활동의 표준으로 여기는 규범적 차원, 객관성을 언론(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기보다는 뉴스 제작과정에서 따라가야 하는 일로 파악하는 절차적 차원, 객관적인 언론을 바로 윤리적 언론으로 보는 윤리적 차원, 뉴스 객관성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회의적 차원 등이다.

또한 뉴스 객관성에 대한 서술 방식이 Q 진술문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즉, 문장이 응답자 스스로를 나타내주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복합적 차원으로 만들어졌는지, 응답자들이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게끔 약간 복잡하게 되어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문장들을 속아내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결국 84개 진술문을 45개로 조정했다²⁰⁾.

그러나 논문이나 연구서 등에서 추출한 것을 바탕으로 또는 현직 언론인 인터뷰 결과를 정리해 만들어낸 이 진술문들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의미전달이

20) Q 방법론에서 진술문의 수와 관련해서 학자에 따른 편차가 있다. Kerlinger는 통계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0~70 문항이 적절하다 했고, Schlinger은 55~75 문항, Brown은 40~50 문항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홍규는 40~60 문항이 일반적이라고 했다(김현수·원유미, 2000, 52~53쪽).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다시 한번 감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취재 경력이 풍부한 현직 언론인 4명과 언론학자 1명에게 45개의 진술문을 보내 언론인들이 읽어보고 답변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Q 표본, 즉 진술문을 정리하기 위해 선정한 인물들은 모두 언론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뉴스 객관성의 문제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의 견해는 전화와 이메일 또는 직접 면담으로 청취했다. 이들 언론인과 언론학자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현직 언론인; 나이 49세; 20년 이상 주요 신문사의 사회부 등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했고, 현재는 논설위원과 칼럼니스트로 재직 중이다.
- 2) 현직 언론인; 나이 44세; 15년 이상 주요 신문사의 사회부 경제부 국제부 등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했다; 미국 특파원 경력 때문에 미국 신문과 방송 뉴스에 익숙하다.
- 3) 현직 언론인; 나이 49세; 20년 이상 공중파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해왔다. 주로 해외뉴스를 많이 취급했다; 미국의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을 공부했다.
- 4) 현직 언론인; 나이 50세; 25년 동안 주요 신문사 국제부 정치부 등에서 취재기자, 편집국 간부,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유럽 지역 특파원 경력이 있어 유럽의 신문과 방송 뉴스에 친숙한 편이다.
- 5) 현직 언론학 교수; 나이 44세; 주요 신문사에서 10년 이상 취재기자로 활동했다;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저널리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위에 소개한 언론인 4명과 언론학자 1명이 진술문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술문의 내용이 일부 바뀌거나 추가된 것도 있고, 모호하게 정리돼 의미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표현들은 재차 수정됐다.

예를 들어, 1번의 경우, ‘객관성의 형질(形質)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라는 문장은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로 고쳐졌다. 이는 문장의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9번에서는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 보호를 위한 방패일 뿐이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로 보완됐다. 이 경우는 원래의 진술문에 한 문장이 추가된 사례이다. 이 또한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25번의 경우, 문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는 구절을 추가했고, ‘객관성을 들먹인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구절을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로 바꿨다. 이와 같이 문장을 부분적으로 손질한 경우는 전체 45개 진술문 가운데 30개에 달했다.

특히 진술문 간에 내용이 중복된 경우가 이 단계에서도 발견돼 해당 진술문을 폐기하고 새로운 진술문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절차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2개의 진술문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돼 1개를 삭제하고 26번을 추가했다.

그 결과, <표 4-1>과 같이 최종적인 Q 진술문 45개가 정리됐다. 이를 뉴스 객관성의 성격별로 나누어 보면, ‘규범적 차원’에 속하는 진술문 번호는 1, 2, 3, 11, 14, 15, 18, 22, 23, 31, 33, 39, 44, 45 등 14개, ‘절차적 차원’에 속하는 진술문 번호는 4, 7, 9, 20, 25, 26, 28, 32, 36, 37, 38, 40 등 12개, ‘윤리적 차원’에 속하는 진술문 번호는 6, 10, 13, 17, 27, 34, 35, 41, 42 등 9개, ‘회의적 차원’에 속하는 진술문 번호는 5, 8, 12, 16, 19, 21, 24, 29, 30, 43 등 10개 등이다.

최종적으로 진술문을 검토한 언론인들과 언론학자등 5명은 확정된 45개 Q 진술문에 대해 뉴스의 객관성과 관련해 언론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 4-1> Q 분류 진술문

문항번호	진술문
1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근간(根幹)이라는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2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다.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 객관성이라고 생각한다.
3	뉴스는 언론 매체가 만드는 것이라면, 객관성은 뉴스를 만드는 과정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4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5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취재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적의 진실을 캐내고 알리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이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다.
6	객관성은 뉴스가 얼마나 사회 전체(수용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보도를 충실하게 할 때 객관성이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
7	객관성은 저널리즘에서 뉴스에 권위를 부여하고, 취재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언론인에게 취재보도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며 뉴스가 선전이나 광고 등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차별점을 제시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막연히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객관적인 보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9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 11 뉴스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객관성은 협업에서 공유하고 수용자 그리고 사회전체가 요구하는 느슨한 규범이고 원칙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좋은 저널리즘을 향한 유익한 길잡이라고 생각한다.
- 12 객관성에 대한 해석은 사회의 요구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 내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특정한 한 가지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13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 14 전문직에게 으뜸의 실천 덕목은 자신에 대한 담금질이다. 객관성은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발현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고 전문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 15 객관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수록 실체가 명확해지기보다 더 큰 미궁에 빠져들 우려가 크다. 주관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객관성의 요체이다. 원리나 원칙은 간명할수록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 16 저널리즘에서 객관적인 보도란 외연이 넓고 내포가 깊어서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에 담긴 뜻이 변할 수 있다.
- 17 객관성이란 언론인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의 근본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직에 대한 혼신이며 책임과 책무를 다 하라는 명령이다.
- 18 언론에게 부과된 으뜸의 사명은 진실을 캐내고,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접근하면 진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
- 19 객관성의 연원이나 발전 계적은 간단한 것은 아니다.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뚩뚱그리고 싶다.
- 20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사건(안)을 보도할 경우 미디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어떤 관점을 축으로 사건(성)을 정리해 내는 것이 객관성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입체적인 보도가 더 유용한 때문이다.
- 21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짓이다. 사건(안)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22 객관성은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주의 주장을 첨삭 없이 뉴스에 반영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이고 객관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 23 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이다. 언론(인)과 수용자를 묶는 것이 뉴스이다. 수용자는 언론에 의해 가공되고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라 언론의 눈에 비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해주길 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뉴스의 질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4 사회 과학 방법론이 요구하는 검증의 원리를 수용하여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언론(인)에게는 실체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작업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25 언론이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점이나 강조점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 26 객관 보도라 하면 서로 대립하는 견해나 주장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적인 입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은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 보다는 뉴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의 성격이 짙다.
- 27 언론인이 자기에게 충실하다면 객관성은 별 의미가 없다. 언론인이라는 존재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이지 않는 언론은 언론이 아닌 것이다.
- 28 제도화된 뉴스 제작 과정이나 관행에서 언론인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객관성이다. 언론한테는 객관성이라는 직업적 의무가 있으나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은 넓다. 따라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도의 형태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
- 29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 30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객관보도의 주요한 요소로 지적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안(건)을 해석하고 이를 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

- 3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다.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이다.
- 32 언론(인)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 자주권 또는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적인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 33 완벽한 객관성이란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재한다. 충실한 사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 34 객관성은 언론인 의식 속에 존재한다. 무슨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이다.
-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36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뚱뚱그린 것이다. 객관성은 어찌 보면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이다.
- 37 뉴스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을 수용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이한 점이나 관심 사항이 돋보일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뉴스가 만들어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유용한 정보의 전달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 38 뉴스 가치는 일반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며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조건 있는 사실 전체를 보도한다고 그것을 객관 보도라 할 수는 없다.
- 39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 40 언어는 뉴스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언어는 사용자의 선택이나 보도 대상이 되는 사안의 모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사실을 보도할 때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가 객관성을 결정할 수 있다.
- 41 흩어진 사실을 수집하고 사건(안)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해석하며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객관성의 핵심 개념이다.

- 42 뉴스의 다양성은 관점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어떤 목표를 겨냥하고 취재 활동의 범위나 방향을 제시한다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취재보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43 객관성이 목표는 아니다.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정겹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 45 역피라미드형 기사나 6하 원칙에 충실 하라는 얘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3. P 표본의 선정

Q 방법론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피험자로 선정한다. 이 연구도 모집단에 근거한 결과 예측을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험자에 대한 무작위 표본보다는 의도적 표본을 선택했다. 즉, 현재 취급하는 분야 또는 과거에 취급했던 분야를 사전에 알아본 뒤 취재·보도 과정에서 가급적 뉴스의 객관성 문제를 생각해보았음직한 언론인들을 선별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부나 정치부 국제부 또는 편집부 등에서 근무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언론인들을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런 부서에서 취급하는 뉴스들이 상대적으로 객관성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그런 문제에 대면했던 언론인들이라야 뉴스 객관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험자 표본이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들을 가급적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표본 선정에 주의를 기울였다. 피험자들이 다양한 언론사 경력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배려했으며, 소속된 언

론사와 근무 부서도 한 두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했다.

P 표본의 다양성은 요인분석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은 기본적인 가정이다. 하지만, 무작위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요인이 전체 모집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광범위한 태도 조사와 달리, Q 방법론에서는 집중적인 분석에 의존하게 된다. 그것은 적은 수의 사람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을 통해 어떤 사안의 원인 규명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의 P 표본은 62명이다. 표본의 개인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부록 2>에 나타나 있다. 당초 연구자는 현직 신문기자와 방송기자 온라인언론사 기자 등 80명을 응답 후보자를 선정, 조사 자료를 보냈으나 응답자 미회수자가 2명, 기록 착오자가 16명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온라인언론사 기자는 P표본에 포함되지 않았고, 방송기자 수도 신문기자 수보다 훨씬 적어졌다. 그러나 뉴스 객관성에 대한 신문기자와 방송기자 간의 태도 차이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소속 언론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한국 언론인 일반의 태도 유형을 도출하는 것에 이 연구의 주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방송기자 표본을 늘리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다.

Q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물들은 피험자 수를 대체로 30~60명 정도(김현수, 원유미, 2000, 63쪽)로 취하고 있다. P 표본의 특성들은 <표 4-2>에서부터 <표 4-6>까지 나타나 있다.

<표 4-2> 응답자들의 소속 언론사 종류

소속 언론사	응답자 수(명)	비율(%)
신문사	52	83.9
방송사	10	16.1
전체	62	100

<표 4-3> 응답자들의 언론사 경력

경력 기간	응답자 수(명)	비율(%)
5년 미만	10	16.1
5~10년	14	22.6
11~15년	12	19.4
16~20년	22	35.5
21년 이상	4	6.4
전체	62	100

<표 4-4> 응답자들의 직위

	응답자 수(명)	비율(%)
평기자	33	53.2
차장	21	33.9
부장 이상	5	8.1
논설(해설) 위원	2	3.2
선임(전문)기자 · 편집위원	1	1.6
전체	62	100

<표 4-5> 응답자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

부서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 · 전국 · 수도권부	24	38.7
경제 · 산업부	9	14.5
정치부	6	9.7
국제부	6	9.7
편집부	9	14.5
문화 · 생활 · 엔터테인먼트부	4	6.5
인터넷뉴스부	2	3.2
스포츠	1	1.6
논설 · 해설위원회	1	1.6
전체	62	100

<표 4-6> 응답자들의 성별

성별	응답자 수(명)	비율(%)
남자	57	91.9
여자	5	8.1
전체	62	100

4. 조사의 실행

실제 조사는 대상자들에게 대봉투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대봉투 속에는 조사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하는 서신, 진술문 카드 한 벌, 분류 안내문, 분류 기록 양식,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설문서 등과 같은 조사 준비물을 넣었다.

<부록 1>은 진술문 카드 뭉치를 제외한 조사 준비물들이다. 진술문 카드는 $6 \times 10.5\text{cm}$ 크기의 종이에 45개의 Q 진술문을 한 문항씩 읽기에 편안한 크기의 글씨로 인쇄한 것인데, 카드 45개를 밴드로 묶은 뒤 봉투에 넣어 피험자들에게 제공했다. 분류 기록 양식은 피험자들이 진술문의 문항 번호를 골라 적도록 빈 칸 45개를 탑 모양으로 인쇄한 것이다. 이 양식은 아래 부문의 맨 왼쪽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4)’부터 맨 오른쪽 ‘매우 동의한다(+4)’까지 9단계로 분류했다.

Q 분류의 단계별 진술문 수는 <표 4-7>과 같이 제시했다.

<표 4-7> Q 분류의 단계별 진술문 수

동의 정도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4	-3	-2	-1	0	1	2	3	4	
점수 단계	3	5	5	6	7	6	5	5	3	
진술문 수										

Q 진술문의 분류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심이나 가치 혹은 평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분류 기록 양식’에 순서대로 기입해주도록 부탁했다. 분류 기록 양식의 한 칸에는 한 개의 번호

만 적고, 진술문 항목 번호는 단 한 번만 사용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진술문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평소 느낌대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분류 작업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45개 진술문 카드를 한 번 읽어본 뒤 ‘동의하는 것’, ‘동의하지 않는 것’, ‘잘 모른는 것’ 등 3가지 부류로 나누도록 했다. 이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부터 차례로 골라 ‘잘 모르는 것’ 까지 분류 기록 양식에 번호를 적게 하고, 한편으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부터 골라 가운데 쪽으로 진술문 번호를 적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분류 기록 양식의 45개 빈 칸이 진술문 문항 번호로 모두 채워지면 분류 작업이 마무리됐다.

5. 자료의 처리

피험자 78명으로부터 응답 자료를 수집한 뒤 코딩작업을 거쳐 데이터 파일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Q 분류 기록 양식에 같은 진술문 번호를 중복해 쓰고 어떤 번호를 누락시키는 등 잘못 기록한 표본 16명이 제외됐고, P 표본은 62명으로 확정됐다. 코딩은 Q 분류 기록 양식에 적혀 있는 진술문 항목 번호를 확인해가며 <표 4-8>과 같이 변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변환점수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 문항(-4)에 1점을 주고, 이어 (-3)2점, (-2)3점, (-1) 4점, (0)5점, (+1)6점, (+2)7점, (+3)8점 등에 이어 ‘매우 동의하는’ 항목(+4)에 9점을 부여해 점수화했다. 이렇게 주어진 점수를 진술문 항목 번호 순으로 컴퓨터에 입력해 코딩 작업을 마무리했다.

<표 4-8> Q 표본의 원점수별 빈도수와 변환점수

빈도	3	5	5	6	7	6	5	5	3
원점수	-4	-3	-2	-1	0	+1	+2	+3	+4
변환점수	1	2	3	4	5	6	7	8	9

자료 분석은 QUANL 프로그램으로 처리했고, Q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법을 이용

했다. 추출된 요인에 포함된 정보량이 당초 변수가 가지고 있던 정보량보다 많아야 요인분석이 의미가 있으므로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선택했다.

제5장 연구의 결과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Q 분류를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50.5%를 설명했다. 4개 요인 가운데 요인별 설명력은 요인1이 34.99%, 요인2가 9.09%, 요인3이 3.59%, 요인4가 2.82%였다.

요인 4는 28.3%가 부적 항목이어서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이에 따라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 형태는 <부록 3>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되었고, 유형1에는 26명, 유형2에는 22명, 유형3에는 9명, 유형4에는 3명, 유형5에는 2명이 각각 적재됐다. 이는 Q 방법론의 특성상 유형1이나 유형2가 다른 유형들보다 현실에서 반드시 인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 태도 유형별 특성은 Q 분류 결과로 정리된 진술문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관례상 상대적으로 유형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표준점수 (Z-score) +1.00 이상과 -1.00 이하의 진술문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제1절 뉴스 객관성에 대한 다섯 유형의 언론인들

1. 제1유형 : 규범지상주의형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뉴스의 객관성에 지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객관성이라는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자존을 지키며 살아가는 언론인들의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객관성에 대한 높은 표준점수를 갖고 있는 진술문들은 이 유형의 언론인들이 객관성에 대해 품고 있는 존중의 표현들이다. 이 유형에 속한 언론인은 전체 피험자 62명 중 26명이며, 객관성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10개 진술문에 강한 긍정($Z > +1.00$)을 표시하는 반면, 객관성에 대해 다소 소극

적인 내용의 진술문 11개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부정($Z < -1.00$)의 뜻을 밝히고 있다.

객관성의 가치에 높은 점수를 주는 이들의 태도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이들이 보기에 객관성은 “언론인들에게 정체성과 직업윤리의 근본이고, 언론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전문직에 대한 헌신이며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17)이다. 언론이라면 언론활동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덕목으로서 객관성을 으뜸에 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까닭에 이 응답자들은 이 진술문에 강한 동의($Z=1.59$)를 보여주었다.

앞에서 객관성의 성격과 관련해 규범과 표준의 차원, 뉴스 제작 절차의 차원, 언론 윤리 차원 등과 객관성에 대한 회의적 차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구분에 비추어 볼 때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뉴스 객관성을 아주 강하게 규범과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1유형을 ‘규범지 상주의형’이라 명명했다.

<표 5-1> 제1유형의 Q분류 결과(표준점수 +1 이상, -1 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Z-scores (표준점수)
17	객관성이란 언론인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의 근본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직에 대한 헌신이며 책임과 책임을 다 하라는 명령이다.	1.59
2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다.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 객관성이라고 생각한다.	1.48
18	언론에게 부과된 으뜸의 사명은 진실을 캐내고,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접근하면 진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	1.42
39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히 사실 전달을 전제	1.34

로 하여야 한다.

- 1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근간(根幹)이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1.29
- 7 객관성은 저널리즘에서 뉴스에 권위를 부여하고, 취재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언론인에게 취재보도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며 뉴스가 선전이나 광고 등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차별점을 제시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1.22
- 13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1.14
- 41 흘어진 사실을 수집하고 사건(안)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해석하며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객관성의 핵심 개념이다. 1.07
- 3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다.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이다. 1.04
-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1.02
- 36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뚫뚱그린 것이다. 객관성은 어찌 보면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이다. -1.08
- 42 뉴스의 다양성은 관점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어떤 목표를 겨냥하고 취재 활동의 범위나 방향을 제시한다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되거나 혼란될 가능성이 커진다.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취재보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13
- 19 객관성의 연원이나 발전 궤적은 간단한 것은 아니다.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둥뚱그리고 싶다. -1.17
- 4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거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 | | | |
|----|--|-------|
| 5 |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취재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적의 진실을 캐내고 알리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이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다. | -1.27 |
| 30 |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객관보도의 주요한 요소로 지적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안(건)을 해석하고 이를 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 | -1.36 |
| 43 | 객관성이 목표는 아니다.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 -1.55 |
| 9 |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1.60 |
| 21 |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것이다. 사건(안)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1.68 |
| 29 |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 -1.81 |
| 8 |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막연히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객관적인 보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 -1.84 |

이들은 또한 객관성을 사실성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있다. 객관성이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라고 기술한 진술문(2)에 역시 동감($Z=1.48$)을 표했고,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18)”는 진술문에 찬성했다.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39)”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찬동함으로써 객관성을 언론인들의 상징적 가치가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해야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객관성에 대해 “저널리즘의 근간이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1)”는 진술문에 비교적 강한 동의를 표시했으며, 뉴스와 선전이나 광고 등 다른 상품과 차이를 느끼게 해주고, 언론인에게 취재 보도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역할도 객관성이 하고 있다(7)는 반응을 보였다.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에 대한 부정적 뉴앙스를 풍기는 진술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들이 가장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 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로 시작하는 문장(8)으로 아주 강하게 반대의 뜻($Z=-1.84$)을 밝혔다. 유형1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이 구호일 뿐이라는 진술문(29), 객관성에 대한 논의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진술문(21) 등에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특히 객관성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정도보다 부정적인 부분에 반대의 뜻을 밝힌 정도가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쪽은 최고 표준점수가 1.59(17번)였고, 1.40 이상이 세 문장뿐이었으나 객관성에 부정적인 설명을 한 문장에 대한 최고 표준점수가 -1.84(8번)를 기록하는 등 -1.5를 넘는 점수가 매겨진 진술문이 5개(8, 29, 21, 9, 43번)나 됐다.

이처럼 Q 진술문들에 대해 언론인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은 “누구도 더 이상은 객관 보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Fuller, 1996, p. 14)”며 객관성이라는 가치를 사문화된 법조문 취급하던 사람들의 판단과는 판이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 현장을 오랫동안 관찰한 끝에 터크먼이 뉴스 객관성에 대해 ‘전략적 의례’로 이해하고 관련 논문(Tuchman, 1972)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동조자를 불러 모았고, 지금까지 주요한 이론으로 꼽히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제1유형으로 분류된 규범지상주의 언론인들은 그녀의 이론에도 반기를 든 셈이다. 이들은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

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9)”는 진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Z=-1.60$)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을 제작과정의 잘못을 방어해줄 방패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다분히 진실을 찾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문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살펴보면,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객관성의 핵심 개념(41)”이라는 진술문이나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13)”해야 한다는 문장, “객관성은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31)”이며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44)”는 진술 등은 이 유형의 언론인들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동감을 표시한 것들이다. 반면, 객관성이 왜 최고의 덕목인지 모르겠다는 진술(43), 주관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객관적인 보도라는 말(30), 객관성의 실현 불가능성(5) 등은 언론인들이 분명히 동감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지금까지 논의로 미루어 이 유형은 객관성에 대해서 원활한 언론 활동을 위한 방어기제가 아니라 실천적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실 추구의 현실적 도구로 믿고 있다. 또한 언론인들의 정체성을 살려주고 직업윤리의 근본이 되는 것도 객관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객관성에 대한 교과서적인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언론 활동의 현장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마디로 이 유형에 속한 언론인들로서는 뉴스의 객관성을 ‘살아 숨쉬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 26명은 신문기자 21명 방송기자 5명이며, 언론사 경력은 16~20년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11~15년은 7명, 5년 미만 3명, 5~10년과 21년 이상 각 2명 등이다. 언론사 내 직위는 평기자와 차장이 각각 10명이고, 부장 이상 3명, 논설(해설)위원 2명, 선임(전문)기자 또는 편집위원 1명 등이다. 언론사 근무 경력이 많고 직위가 중간 간부급인데도 뉴스 객관성을 순수한 상태로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오래 동안 근무한 부서로는 뉴스의 객관성과 늘 치열하게

갈등을 빚어야 하는 사회·전국·수도권부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편집부(5명), 정치부(4명)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1명만이 여성이었다.

2. 제2유형 : 현실순응형

뉴스 객관성에 대한 두 번째 유형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을 현실적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객관성의 이상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객관성을 펼쳐하는 듯한 진술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일상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해결해나가는 생활인이지만 한편으로 삶의 이상을 가능한 선에서 찾고 있는 자세로 이 언론인들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유형을 ‘현실순응형’으로 명명했다.

이 유형의 언론인들의 특성은 <표 5-2>에서 볼 수 있듯이 38번($Z=1.56$) 진술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 핵심 내용은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무조건 있는 사실 전체를 보도한다고 그것을 객관보도라 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사실 객관성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른바 ‘기사 거리’를 찾고 사실 확인까지 마쳐야 하는 언론인들에게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유형의 진술문 선택 결과를 더 살펴보면 이와 같은 태도는 더욱 확연해진다. 전체 45개 Q 진술문 중에서 6개 진술문의 표준점수(Z)가 +1.0을 초과했는데 모두 뉴스 객관성을 평이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해준다.

일반적으로 언론이 뉴스를 보도할 때는 우선 기자가 뉴스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언론이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인의 세계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객관성은 없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유형의 피험자들은 극단을 택하지 않는다.

이들은 언론인의 관점이나 강조점이 뉴스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

라서 주관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진술(25)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Z=1.50$).

이와 함께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도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28), 객관성이 저널리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객관성을 준수한다고 성공적인 언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32), 객관성 실현의 지름길은 충실한 사실 보도, 정보 전달을 중시하는 보도태도라는 것(33) 등의 내용에 동감함으로써 뉴스 객관성을 지극히 실천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객관성을 “저널리즘의 근간(1)”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성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높이 인정하는 태도이다. 같은 맥락에서 표준점수는 다소 낮지만($Z=.99$)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44)”이라는 진술에도 찬성하는 유형이 바로 ‘현실순응형’의 언론인들이다.

이들은 객관성의 원칙들을 현실의 범위 안에서 실행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만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들 못지않게 객관성의 이상을 인정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진술문에서 그런 흐름을 읽게 된다.

현실순응형 언론인들은 우선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 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누가 무엇이 객관적인 보도냐고 물어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8)”라는 진술문에 매우 강하고 밀도 높게 찬동하지 않는다($Z=2.22$). 현실에 바탕을 두고 활동하는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듯한 반응이다.

이들은 또한 뉴스 객관성을 ‘전략적 의례’로 보는 시각도 거부한다. 객관성이 언론인의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며 실제로 객관보도라는 것은 없다는 진술(9)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들을 보여준다.

<표 5-2> 제2유형의 Q분류 결과(표준점수 +1 이상, -1 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Z-scores
38	뉴스 가치는 일반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을 빼고 정확하며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조건 있는 사실 전체를 보도한다고 그것을 객관 보도라 할 수는 없다.	1.56
25	언론이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점이나 강조점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1.50
28	제도화된 뉴스 제작 과정이나 관행에서 언론인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객관성이다. 언론 한테는 객관성이라는 직업적 의무가 있으나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은 넓다. 따라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도의 형태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	1.33
1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근간(根幹)이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1.30
32	언론(인)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 자주권 또는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적인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1.29
33	완벽한 객관성이란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재한다. 충실한 사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1.19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01
29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1.04

-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1.17
- 19 객관성의 연원이나 발전 궤적은 간단한 것은 아니다.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뭉뚱그리고 싶다. -1.31
-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 4라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1.33
- 21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것이다. 사건(안)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43
- 5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취재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적의 진실을 캐내고 알리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이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다. -1.48
- 22 객관성은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주의 주장을 첨삭 없이 뉴스에 반영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이고 객관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1.52
- 9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1.99
- 8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막연히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객관적인 보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2.22

언론인들이나 언론학자들 간에는 객관성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언론 현장의 현실순응형 언론인들에게 객관성은 실천

적 덕목이자 추구해야 할 이상이다. 이들은 객관성과 관련해 기계적인 형평성이나 균형성에 찬성하지 않는다. 보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첨삭 없이 반영시키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보도에 찬성하지 않는다(22). 이는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하지 무조건 있는 사실 전체를 보도한다고 그것을 객관보도라 할 수 없다.”는 진술문(38)에 강하게 찬성한 것과 정확하게 맥락을 유지하는 반응이다.

언론인들에게 뉴스 객관성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일 뿐인가? 이 유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앞부분에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5번 진술문에 비교적 강하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진술문은 뒷부분에 “이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라는 윤리적인 색채가 짙게 풍기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지만 표준점수가 ‘동의 못함’($Z=-1.48$)으로 나왔다. 앞부분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인식으로는 객관성이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는 부분에 대해 동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부질없는 짓(21)’,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4)’, ‘객관성은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19)’,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10)’, ‘객관성은 구호일 뿐(29)’,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35)’ 등 뉴스 객관성 또는 객관 보도에 대해 회의적인 진술문에 대해 이들은 비교적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객관성을 준수하며 기사를 취재·보도하는 일에서 현실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이들은 동의하고 있지만, 동시에 객관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객관성의 이상조차 허물어진다면 언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이들의 인식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닐까?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안(건)을 해석하고 이를 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라고 주장하는 30번 진술문에 대해 강하지는 않지만 반대($Z=-.95$)의 뜻을 밝힌 것이 바로 엄격한 객관성을 향하고 있는 이들의 태

도인 것이다. 말하자면 ‘현실은 현실이고 이상은 이상’이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에 순응하는 생활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생활 태도이다.

이 유형에 속한 피험자들은 모두 22명이며 이중 17명이 신문사 소속이고 5명은 방송사 소속이다. 언론사에서 실제로 일한 경력은 5~10년이 9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11~15년 5명, 16~20년 4명, 5년 미만 3명, 21년 이상 1명이다. 제1유형인 규범지상주의형에서는 경력 16~20년이 전체 26명 가운데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험자들의 언론사 내 직위는 평기자가 16명, 차장 6명이다. 이들이 언론사 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는 사회·전국·수도권부 7명, 경제·산업부 5명, 생활·엔터테인먼트부 3명, 국제부 편집부 각 2명, 정치부 인터넷뉴스부 스포츠부 각각 1명씩 등이다. 그리고 남자는 20명 여자는 2명이다.

3. 제3유형 : 변화추구형

제3유형의 언론인들이 뉴스 객관성에 대한 진술문에 대해 매우 동의하거나 ($Z>1.00$) 매우 동의하지 않은 ($Z<-1.00$) 경우는 <표 5-3>에 나타나 있듯이 각각 9개씩 모두 18개이다. 이 유형의 특성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진술문에서 더 잘 드러난다. 한마디로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인정하는 데 무척 소극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쪽에 가담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언론인들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을 ‘변화추구형’이라 명명했다.

이 유형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 ($Z=-1.74$)을 보인 진술문 항목은 45번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있는 그대로’ 역피라미드형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객관 보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사실 역피라미드형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뉴스의 객관성 또는 객관보도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언론인들이 뉴스 객관성을 기사에 반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역피라미드형 문장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민디치(Mindich, 1998, p.8)는 역피라미드형 기사체를 객관성의 5가지 구성요소 중 세 번째 요소로 제시했다. 그만큼 역피라미드형

기사체는 객관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나 유형3인 변화추구형 언론인들은 역파라미드형 기사체에 반기를 들고, ‘있는 그대로’ 기사가 객관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진술문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식의 경향은 다른 진술문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두 번째 반대 항목은 ‘어떤 사안에 대해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객관성’(35)이라는 진술문이다. 변화추구형 언론인들은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객관 보도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앞의 논의에서 1960년대 미국에서는 객관 보도에 회의를 가진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뉴저널리즘 탐사보도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언론 현장에 도입했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언론 현장에 스며들어 있다. 말하자면 이 연구에서 변화추구형으로 분류된 언론인들은 객관 보도라는 이름으로 언론이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있는 그대로 또는 일어난 대로만 보도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충실한 사실보도, 정보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가 객관성 실현의 지름길”이라는 진술문(33)과 “뉴스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항목(39)이 꽤 높은 정도($Z=-1.61$)로 부정적 반응을 받았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객관 보도라고 해서 사실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저널리즘을 거부하고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언론인들이다.

‘동의 한다’는 의견을 보인 항목들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Z=1.94$)를 받은 항목은 12번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나는 객관성에 대한 해석이 사회 요구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 가지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사회 환경에 따라 객관 보도에 담긴 뜻이 변할 수 있다는 진술문(16)에 강한 동감을 표시함으로써 고정적인 객관성 개념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객관 보도의 풍토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언론인들이 사회에 포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변화를 지향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뉴스 객관성을 둘러싼 전통적인 가치를 완전히 버렸다고 볼 수는 없다. 객관성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두 번째로 강하게 동의를 표시한 25번 진술문은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사실 전달만 충실히 하는 객관 보도에 동의하지 않지만 언론이 기사를 통해 지나친 자기주장을 폄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게($Z=1.49$) 주관성을 견제할 수 있는 객관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항목을 찬성하고 있다. 또 14번 항목과 1번 항목에도 비교적 높은 점수들이 주어졌다. 이는 변화추구형 언론인들에게도 ‘객관성이 전문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라는 점이나 ‘객관성이 저널리즘의 근간이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는 점 등은 여전히 공감을 사고 있음을 알려준다. 객관성은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항목(13)에도 동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항목이나 물리적인 형평성과 균형성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 번도 객관성을 생각해본 일이 없다.”는 항목 등에는 모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일정 부분 객관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다.

하지만 언론에 있어서 객관성이라는 덕목이 쌓아온 위세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서 별다른 감흥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종의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이다. “객관성은 뉴스가 사회 전체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므로 충실히 보도로 객관성이 지켜진다.(6)”는 항목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객관성이 언론인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의 근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진술(17)에도 무덤덤한 의사표시를 했을 뿐이다.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다.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 객관성”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대립적인 찬반의견을 내지 않았다.

<표 5-3> 제3유형의 Q분류 결과(표준점수 +1 이상, -1 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Z-scores
12	객관성에 대한 해석은 사회의 요구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 내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특정한 한 가지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1.94
25	언론이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점이나 강조점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1.49
16	저널리즘에서 객관적인 보도란 외연이 넓고 내포가 깊어서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에 담긴 뜻이 변할 수 있다.	1.48
14	전문직에게 으뜸의 실천 덕목은 자신에 대한 담금질이다. 객관성은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발현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고 전문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1.44
1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근간(根幹)이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1.42
13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1.40
4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거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1.34
7	객관성은 저널리즘에서 뉴스에 권위를 부여하고, 취재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언론인에게 취재보도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며 뉴스가 선전이나 광고 등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차별점을 제시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1.12
24	사회 과학 방법론이 요구하는 검증의 원리를 수용하여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언론	1.01

- (인)에게는 실체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작업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27 언론인이 자기에게 충실하다면 객관성은 별 의미가 없다. 언론인이라는 존재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이지 않는 언론은 언론이 아닌 것이다. -1.12
- 22 객관성은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주의 주장을 침삭 없이 뉴스에 반영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이고 객관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1.13
- 8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막연히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객관적인 보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1.28
- 3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다.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이다. -1.32
- 21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것이다. 사건(안)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35
- 39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향 사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1.61
- 33 완벽한 객관성이란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재한다. 충실향 사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1.61
-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71
- 45 역피라미드형 기사나 6하 원칙에 충실 하라는 얘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1.74

전통적으로 언론인들은 언론사에 입사한 초기부터 대체로 도제식 교육 등 사회화 과정을 통해 뉴스의 객관성을 마땅히 도달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유형3의 언론인들에게 그러한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객관성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권위에서 탈피해 변화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유형3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의 기본 가치는 인정하되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객관 보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의 언론 활동에 객관성은 더 이상 요지부동의 가치는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다시 정의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진술(24)에 동감하고 있다.

신문기자 경력이 20년이 넘는 40대 후반의 현직 언론인은 Q 분류 과정에서 뉴스 객관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는 바로 언론 현장에 있는 변화추구형의 모습이다.

“뉴스의 객관성이라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자들 스스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최종 목표’로서 객관 보도라는 것에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어차피 뉴스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선택된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보도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객관적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도 뉴스에 따라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자가 눈으로 보는 사실만 가지고 객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실의 이면에 감추어진 사실들, 즉 진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한 사전 지식과 연구가 필요하다.”

변화추구형으로 분류된 피험자 9명은 모두 신문사 소속으로, 경력은 16~20년이 4명, 5년 미만 3명, 5~10년 1명, 21년 이상 1명 등이다. 이들의 신문사 내 직위는 평기자 4명 차장 3명 부장 이상 2등이다.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로는 사회·전국·수도권부가 5명, 정치부 국제부 편집부 인터넷뉴스부 각 1명이다.

4. 제4유형 : 실천적 원칙주의형

뉴스 객관성에 대한 Q 분류에서 네 번째로 형성된 도출된 객관성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원칙들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뉴스의 객관성을 언론의 최고의 가치, 즉 언론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언론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언론인이 뉴스를 취재해 보도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객관성을 관념의 세계에서 뉴스를 제작하는 실무의 마당으로 끌어내린다. 이런 이유로 이 유형을 ‘실천적 원칙주의형’으로 명명했다. 이 유형에는 전체 62명의 피험자 중에서 3명이 속해 있다. 피험자들이 Q 분류에서 강한 긍정(표준점수=Z> +1.00)과 강한 부정(표준점수<-1.00)으로 반응을 보인 Q 진술문들이 <표 5-4>에 나타나 있다.

실천적 원칙주의형이 응답한 Q 진술문 항목 중에서 가장 표준점수가 높은 것은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 (Z=2.17).”이라는 내용의 항목(10)이다. 이는 객관성의 정의를 매우 좁혀서 인식하는 것으로 언론 현장에서 지켜내기가 용이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천적 원칙주의형이 이 항목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한 것은 이 유형의 성향이 원칙을 지향한다는 것을 응변해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답한 항목 가운데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13)”이라는 진술문(Z=2.06)은 두 번째로 표준점수가 높았다. 이 두 항목은 정확하게 객관적인 기사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이 갖고 있는 객관성에 대한 성격은 엄격한 실천적 규범으로 그 폭을 좁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 유형은 특히 역피라미드형 기사체에 대한 문항(45)을 강하게 긍정 (Z=1.08)하고 있다. 이 진술문에 따르면, “역피라미드형 기사나 6하 원칙에 충실 하라는 얘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진술문에 높은 점수를 주는 언론인들이 실천적 원칙주의형에 속한다.

<표 5-4> 제4유형의 Q분류 결과(표준점수 +1 이상, -1 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Z-Scores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2.17
13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2.06
34	객관성은 언론인 의식 속에 존재한다. 무슨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이다.	1.91
36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뚱뚱그린 것이다. 객관성은 어찌 보면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이다.	1.70
45	역피라미드형 기사나 6하 원칙에 충실 하라는 얘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1.08
12	객관성에 대한 해석은 사회의 요구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 내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특정한 한 가지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1.03
24	사회 과학 방법론이 요구하는 검증의 원리를 수용하여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언론(인)에게는 실체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작업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1.01

1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근간(根幹)이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1.03
16	저널리즘에서 객관적인 보도란 외연이 넓고 내포가 깊어서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에 담긴 뜻이 변할 수 있다.	-1.07
21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짓이다. 사건(안)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12
43	객관성이 목표는 아니다.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1.27
19	객관성의 연원이나 발전 궤적은 간단한 것은 아니다.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뭉뚱그리고 싶다.	-1.29
26	객관 보도라 하면 서로 대립하는 견해나 주장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적인 입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은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뉴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의 성격이 같다.	-1.36
20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사건(안)을 보도할 경우 미디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어떤 관점을 축으로 사건(성)을 정리해 내는 것이 객관성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입체적인 보도가 더 유용한 때문이다.	-1.61
29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1.63

이들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객관성 자체에 대해 거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객관성에 관해 “한 세기 동안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뭉뚱그린 것”으로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이라는 항목

(36)에 높은 표준점수($Z=1.70$)을 주었다. 이와 같은 선택은 매우 솔직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객관성의 핵심 개념”이라는 진술(41)에 강하지는 않지만 반대의 뜻을 밝힌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성과 관련해 “언론인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의 근본(17)”이라는 개념 규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낮은 점수($Z=.93$)를 주었을 뿐이다. 현실에 기반을 둔 실천적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한 표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4유형은 실천적 원칙주의형이지만 현실을 중시하는 쪽이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원칙의 한계를 인정한다. 즉, ‘사회의 요구에 따라 객관성을 신축성 있게 해석할 수 있고, 특정한 한 가지 원칙에 매달리면 뉴스의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12)’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늘 마감시간을 의식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 실체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객관성의 정의를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24)는 점을 비교적 강하게 긍정하고 있다. 이는 이 유형의 언론인들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현실을 감안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실천적 원칙주의형의 특성이 좀 더 분명해진다. 이 유형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답한 진술문 중에서 표준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라는 29번 항목($Z=-1.63$)이다. 객관성이 실체가 없다는 진술에 대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이 유형이 ‘실천적 원칙주의형’임을 환기시켜준다. 객관성에 대해 다분히 현실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터에 객관성을 단지 구호로 규정하는 것은 이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객관성의 원칙을 중시하는 만큼 주관성을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주관 개입으로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입체적인 보도가 더 유용하기 때문에 다면적인 성격의 사건(안)을 보도할 경우 미디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20)’는 내용에 강하게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객관성을 벼린 태도이기 때문이다.

뉴스 객관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한 진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실천적 원칙주의형은 ‘객관성이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스럽지도 않기 때문에 이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태도’라는 진술(5)에 약하지만 부정적인 반응($Z=-.45$)을 보인다. 객관성에 대해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뭉뚱그리고 싶다(19)’,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43)’, ‘사건(안)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21)’등 객관성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진술문에는 비교적 강하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실천적 원칙주의형은 피험자 62명 중 신문기자 3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인원이 작지만 현실에서도 유형4와 같은 인원이 반드시 적다는 뜻은 아니다. 언론사 경력은 16~20년, 5~10년, 5년 미만 등이 고루 1명씩 포함되어 있다. 직위는 평기자 2명, 차장 1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2명, 여자 1명이다.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는 사회·전국·수도권부 1명, 경제·산업부 1명, 편집부 1명 등이다.

이들은 현실 상황에서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고집불통들은 아니다. 명칭의 전면에 ‘실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관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유형은 언론 활동을 해나가면서 객관성이라는 가치의 장점을 살리는 데 나름대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제5유형 : 비판적 가치주의형

뉴스 객관성에 대한 제5유형의 사고 패턴은 독특하다. 앞서 객관성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면서 규범과 표준, 뉴스 제작 절차, 언론 윤리 등 3가지 차원에서 윤곽을 파악하고 회의론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했다. 그러나 Q 분류에서

결과된 유형5는 위에 거론된 성격들로 설명하기도 적절하지 않다. 다른 4가지 유형과는 인식의 방향이 엇갈리는 형국이다. 그런 면에서 이 유형을 비판적 가치주의형이라 명명했다. 유형5가 45개 Q 진술문 가운데 강하게 동의 ($Z>+1.00$)를 표하거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Z<-1.00$) 진술문은 <표 5-5>에서 알 수 있듯이 18개로 집계됐다.

이 유형은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라는 진술(29)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동 ($Z=1.95$)을 표하고 있다. 이 진술문에는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포함돼있으나 객관성의 허구성을 지적한 부분에 강한 찬성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이 유형이 두 번째로 높은 표준점수($Z=1.62$)를 준 진술문이 “기사를 쓰면서 한 번도 객관성을 생각해본 일이 없다(8).”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유형을 ‘비판적 가치주의형’으로 명명했다.

<표 5-5> 제5유형의 Q분류 결과(표준점수 +1 이상, -1 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Z-scores
29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 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1.95
8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막연히 언론 이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객관적인 보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1.62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1.47
5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취재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적의 진실을 캐내고 알리는 것은 언론 (인)의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이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다.	1.38

- 21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것이다. 사건(안)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38
- 28 제도화된 뉴스 제작 과정이나 관행에서 언론인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객관성이다. 언론한테는 객관성이라는 직업적 의무가 있으나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은 넓다. 따라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도의 형태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 1.31
- 3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다.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이다. 1.23
- 33 완벽한 객관성이란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재한다. 충실한 사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1.23
- 38 뉴스 가치는 일반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며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조건 있는 사실 전체를 보도한다고 그것을 객관 보도라 할 수는 없다. 1.07
- 4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1.05
- 13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1.05
- 42 뉴스의 다양성은 관점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어떤 목표를 겨냥하고 취재 활동의 범위나 방향을 제시한다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되거나 혼란될 가능성이 커진다.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취재보도에 아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07
- 37 뉴스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을 수용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이한 점이나 관심 사항이 돋보일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유용한 정보의 전달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1.23
- 34 객관성은 언론인 의식 속에 존재한다. 무슨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와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이다. -1.23

39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1.71
32	언론(인)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 자주권 또는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적인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1.71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1.79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1.95

객관성은 언론 활동에서 추구해야 마땅한 덕목으로 널리 인정을 받아 왔다. 언론인이 처한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차이는 피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언론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막연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비판적 가치주의형의 태도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생각과는 엇갈린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나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이들이 찬반을 선택한 진술문을 통해 그 특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생각에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35). 따라서 “객관성은 실현불가능하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진술(5)에 강한 동감($Z=1.38$)을 표시하고 있다. 언론인이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취재할 때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순수한 객관성이 존재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논의가 부질없다는 항목에 동감을 표시한다.

객관성 무용론에 가까운 기본 인식은 진술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나타낸 항목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태도 유형이 전체 45개 Q 진술문 중에서 가

장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44번이다($Z=-1.95$). 그 내용의 전문을 보면, “언론(인)은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로 객관성이야말로 언론에서 버릴 수 없는 높은 가치로 묘사되어 있다. 비판적 가치주의형은 이 진술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응답은 우발적인 것이 아닌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객관성’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 전통적인 가치에 반기를 들고 그 가치를 비판하고 있다. 객관성에 대해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한 진술(10), ‘객관성이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항목(32),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히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진술(39) 등에 모두 강하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뒤틀린 듯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언론인들은 현실에서 무엇을 잣대로 뉴스를 취재 또는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일까? 이들은 어떤 정해진 틀에 따라 뉴스를 선택하고 보도하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이 부각되다보니 객관성 무용론에 가까운 인식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Q 분류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유형5가 언론 활동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파괴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은 넓기 때문에 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도의 형태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는 항목(28)에 비교적 높은 표준점수 ($Z=1.31$)를 주었다. 또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고,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라고 규정한 항목(31)이나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진술(38)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성향은 현실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서고

자 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가치주의형’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저돌적인 언론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들에게서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뉴스의 객관성에서는 객관성이라는 문자가 함축하는 바와는 달리 ‘주관의 개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와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서 동감을 표시한 진술문이 4번으로 보인다. 즉 객관성이 뉴스 제작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가치주의형’은 ‘변화추구형’이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45번 진술에 대해 비교적 약하지만($Z=.81$) 동의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즉 ‘역피라미드형 기사나 6하 원칙에 충실하라는 얘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설명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객관성의 개념 속에 언론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어떤 틀의 성격이 내재돼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진술에는 동감하지 않고 있다.

‘객관성은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34)’, ‘객관성은 유용한 정보의 전달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37)’, ‘객관성은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13)’등의 진술문들은 모두 비판적 가치주의형이 매우 낮은 표준점수($Z<-1.00$)를 준 진술들이다.

주로 신문사의 사회부와 경제부에서 기자생활을 한 40대 초반의 한 언론인은 Q 분류 과정에서 태도 유형5와 같은 인식에 동감을 나타내며 객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사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부터 주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이 취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다. 다만, 언론이 자유로우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의 주관이 합쳐져서 객관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 보도의 객관성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쳐 놓은 그물이다. 이 그물이 없어지면 독자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사를 쓸 때 리드 문장에 무엇을 넣고, 그 다음 문장에 어떤

사실을 넣을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것부터 주관적이다. 수습기자 시절부터 선배들로부터 지적받아온 것이 ‘왜 중요한 걸 마지막 문장에 써 넣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주관적 판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판적 가치주의형’은 전통적으로 인정해온 객관성의 개념, 즉 사실을 중시하는 개념을 거부하면서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혀 ‘주관의 개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언론 현장의 현실은 인정하는 쪽이며, 자유로운 사고를 지배하는 어떤 경직된 틀을 거부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의 피험자 가운데 남자 신문기자 2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언론사 경력은 5~10년 1명, 16~20년 1명이며, 각각 평기자와 차장의 직책을 갖고 있다.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는 2명 모두 사회·전국·수도권부이다.

제2절 뉴스 객관성에 대한 태도 유형 간 차이점과 공통점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 유형 간에는 배타적인 특성이 있는가 하면 유형 간 차이가 다소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유형들이 동감을 표시하거나 반대의견을 표시한 Q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은 뉴스 객관성에 대한 5개 태도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해결됐고, 여기서는 ‘연구문제2’를 해결하기 위해 유형 간 표준점수 차이가 ‘+1.00 이상’ 또는 ‘-1.00 이하’의 진술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점수 차이의 절대값이 클수록 유형간 특성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언론인들이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도 알아볼 예정이다.

각 유형간의 구체적인 특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이미 논의한 5개 태도 유형 별로 언론인들이 뉴스 객관성에 대한 태도를 놓고 얼마나 가까운가 또는 서로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형1인 규범지상주의형과 유형2인 현실순응형의 상관관계

가 다소 높았고, 유형2와 유형3인 변화추구형도 상관관계가 있는 편이었다. 유형1과 유형4인 실천적 원칙주의형도 상관관계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형1과 유형3, 유형2와 유형4, 유형3과 유형4 등 간에는 이렇다 할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5인 비판적 가치주의형은 다른 4개 유형들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6>에 따르면, 규범지상주의형(유형1) 언론인들과 현실순응형(유형2) 언론인들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상관계수 .622)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유형의 언론인들이 서로 다른 태도로 분류됐지만 뉴스 객관성에 대한 생각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유사하고 가까운 관계임을 뜻한다.

두 번째로는 현실순응형(유형2) 언론인들과 변화추구형(유형3) 언론인들도 정적인 상관관계(상관계수 .408)로 객관성에 대한 태도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세번째로 규범지상주의형(유형1)과 실천적 원칙주의형(유형4) 언론인들은 정도는 낮지만 상관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6> 5개 태도 유형 간 상관계수

유형	1	2	3	4	5
1	xxxxx	.622	.142	.324	-.521
2	.622	xxxxx	.408	.114	-.391
3	.142	.408	xxxxx	.015	-.163
4	.324	.114	.015	xxxxx	-.370
5	-.521	-.521	-.163	-.370	xxxxx

<표 5-6>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제5유형인 ‘비판적 가치주의형’이 다른 모든 유형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는 비판적 가치주의형 언론인들의 뉴스 객관성에 대한 태도가 다른 유형들의 언론인들과 판이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그 중에서도 비판적 가치주의형과 규범지상주의형

은 상관계수가 -.521로 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두 유형에 속하는 언론인들이 뉴스 객관성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가장 거리가 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비판적 가치주의형과 현실순응형(유형2), 비판적 가치주의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유형4)에 속한 언론인들 사이도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객관성에 대한 태도에서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1. 규범지상주의형과 다른 유형의 비교

1) 규범지상주의형과 현실순응형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 가운데 ‘규범지상주의형’(유형1)과 ‘현실순응형’(유형2)은 객관성의 긍정적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객관 보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의 특성을 보인다. 그런 면에서 두 태도 유형 간 상관계수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두 유형간의 구체적인 차이는 <표 5-7>의 표준편차를 통해서 검증된다.

무엇보다도 규범지상주의형은 현실순응형에 비해 주관의 배제에 역점을 두는 성향이다. 규범지상주의형이라는 명칭이 암시하듯이 객관성의 고유한 성격에 몰입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유형2는 상대적으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현실순응형’ 언론인들이다. 이들은 객관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지고의 가치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저널리즘을 위한 도구로 간주할 뿐이다.

진술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성향은 더욱 확연하게 비교된다. 규범지상주의형의 두드러진 특성은 진술문 10번에 나타나 있다.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며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객관성에 대한 기본 교리를 알려주는 듯한 이 특성으로 인해 뉴스를 선택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은 현실순응형에 비해 현저하게 사안의 검증 여부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표 5-7> 규범지상주의형(유형1)과 현실순응형(유형2)의 차이
(표준점수 차이 +1이상, -1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Z-Scores)		
		1	2	차이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864	-1.171	2.035
3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다.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이다.	1.044	-.586	1.630
45	역피라미드형 기사나 6하 원칙에 충실 하라는 얘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397	-.891	1.289
22	객관성은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주의 주장을 침삭 없이 뉴스에 반영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이고 객관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266	-1.516	1.250
18	언론에게 부과된 으뜸의 사명은 진실을 캐내고,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접근하면 진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	1.423	.329	1.094
25	언론이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점이나 강조점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	.488	1.499	-1.010

다.

20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사건(안)을 보도할 경우 미디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어떤 관점을 축으로 사건(성)을 정리해 내는 것이 객관성을 훼드는 것은 아니다.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입체적인 보도가 더 유용한 때문이다.	-.069	.947	-1.016
32	언론(인)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 자주권 또는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적인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010	1.287	-1.296
38	뉴스 가치는 일반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며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조건 있는 사실 전체를 보도한다고 그것을 객관 보도라 할 수는 없다.	.153	1.557	-1.404
28	제도화된 뉴스 제작 과정이나 관행에서 언론인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객관성이다. 언론한테는 객관성이라는 직업적 의무가 있으나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은 넓다. 따라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도의 형태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	-.161	1.328	-1.489
43	객관성이 목표는 아니다.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정점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1.553	.332	-1.886

규범지상주의형은 또한 객관성에 대해 주관의 개입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사실성 등이 어우러져서 객관성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믿는 특성을 보인다. 역피라미드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한다. 역피라미드형 기사체로 5W1H 원칙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언론인이 편집국의 사회부 테스크라면 ‘객관성’을 보장하는 역피라미드형 기사체를 외면

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작성을 요구하든지 ‘출고보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규범지상주의형은 또한 현실순응형에 비해 객관성의 형식성을 강조한다. 그런 까닭에 어떤 갈등적 사안을 기사화할 경우, 양측의 주장을 첨삭 없이 반영해 뉴스를 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이고 객관성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18)는 진술을 현실순응형보다 훨씬 강조한다. 진실을 캐내고 진실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면,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접근할 경우 진실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규범지상주의형의 시각이다. 진실을 발견하려면 성실한 언론인의 객관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순응형의 특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성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현실을 감안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객관성이란 저널리즘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인데 왜 최고의 덕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진술(43)에 대해 규범지상주의형과 달리 아주 약한 긍정($Z=.332$)을 나타냈다. 이 두 유형은 이 진술문과 앞에서 언급한 10번 진술문이 가장 차이가 컸다.

객관성과 관련한 현실순응형의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언론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언론한테는 객관성이라는 직업적 의무가 있으나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은 넓다. 따라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도의 형태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는 진술(28)에 태도에서 그러한 점이 확실하게 비교된다. 규범지상주의형은 이 진술에 대해 약한 부정($Z=-.161$)의 뜻을 밝혔지만 현실순응형은 강한 긍정($Z=1.328$)을 보여주었다. 말하자면 규범지상주의형은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현실순응형은 대조적으로 그 폭이 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실순응형은 어떤 사안에 대해 관점을 축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객관성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반해 규범지상주의형은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흔드는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진술(25)에 대해 유형2인 현실순응형은 강하게 긍정하는데 비해 규범지상주의형은 그 정도가 미약하다. 이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규범지상주의형은 객관성의 개념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언론에 반영해야 한다는 태도인 반면 현실순응형은 언론 현장의 현실 속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규범지상주의형이나 현실순응형이나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는 진술문(44)에 대한 표준점수의 차이는 .025에 불과했고, “객관적이지 않은 언론은 언론이 아닌 것이다.”라는 항목(27)에서 차이는 .022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객관성이 “저널리즘의 근간이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진술문(1)에 대해서는 두 유형 간에 별 차이 없이 강한 긍정을 보여주었다.

2) 규범지상주의형과 변화추구형

‘규범지상주의형’(유형1)과 ‘변화추구형’(유형3)은 상대적으로 닮지 않은 구석이 많다. <표 5-8>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 45개 Q 진술문 가운데 20개 항목에서 표준점수로 절대값 1 이상의 차이가 났다. 규범지상주의형과 현실순응형 사이에서는 그 항목수가 11개에 불과했다. 그만큼 대조가 분명한 유형의 언론인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점수로 볼 때 두 유형을 가장 첨예하게 갈라놓는 진술항목은 39번으로 표준점수 차이가 2.942에 이른다. 진술내용은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향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이다. 반드시 ‘사실 전달’이 있어야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진술에 규범지상주의형에 속한 언론인들은 강한 긍정($Z=1.337$)을 나타냈지만 변화추구형 언론인들은 그보다 더

육 강하게 부정($Z=-1.606$)을 표시했다. 규범지상주의형에서는 ‘사실 전달’을 뉴스 객관성의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지만 변화추구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표 5-8> 규범지상주의형(유형1)과 변화추구형(유형3)의 차이
(표준점수 차이 +1이상, -1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Z-Scores)		
		1	2	차이
39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향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1337	-1.606	2.942
3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다.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사실성의 총화이다.	1.044	-1.324	2.367
45	역피라미드형 기사나 6하 원칙에 충실 하라는 얘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397	-1.739	2.136
33	완벽한 객관성이란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재한다. 충실향한 사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250	-1.610	1.860
2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다.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 객관성이라고 생각한다.	1.484	-.323	1.807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864	-.729	1.593

17	객관성이란 언론인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의 근본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직에 대한 헌신이며 책임과 책무를 다 하라는 명령이다.	1.588	.065	1.524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	-1.715	1.516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1.017	-.325	1.342
41	흘어진 사실을 수집하고 사건(안)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해석하며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객관성의 핵심 개념이다.	1.066	-.044	1.110
3	뉴스는 언론 매체가 만드는 것이라면, 객관성은 뉴스를 만드는 과정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981	-.075	1.056
36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뚁뚱그린 것이다. 객관성은 어찌 보면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이다.	-1.082	.152	-1.234
24	사회 과학 방법론이 요구하는 검증의 원리를 수용하여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언론(인)에게는 실체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작업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274	1.010	-1.284
29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1.808	-.399	-1.409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30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객관보도의 주요한 요소로 지적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안(건)을 해석하고 이를 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	-1.359	.239	-1.598
16	저널리즘에서 객관적인 보도란 외연이 넓고 내포가 깊어서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에 담긴 뜻이 변할 수 있다.	-.326	1.485	-1.811
43	객관성이 목표는 아니다.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1.553	.499	-2.052
9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1.598	.618	-2.216
12	객관성에 대한 해석은 사회의 요구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 내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특정한 한 가지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473	1.937	-2.410
4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거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1.175	1.337	-2.512

표준점수로 볼 때 두 유형을 두 번째로 첨예하게 갈라놓는 진술항목은 4번으로 표준점수 차이가 -2.512에 이른다. 즉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거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라는 진술문을 놓고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들이 강한 부정($Z=-1.175$)을 나타냈는데 변화

추구형 언론인들은 강한 긍정($Z=1.337$)의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변화추구형은 객관성을 뉴스 제작의 관행으로 이해하는 데 비해 규범지상주의형은 그런 관행이 아니라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있는 가치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뉴스 객관성과 관련한 두 유형의 태도는 ‘사실 전달’에 대한 시각 차이와 ‘제작 관행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대별된다.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들에게는 객관성이란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가운데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변화추구형에서는 객관성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이 그리 강하지는 않다. 주관의 개입을 금한다는 것이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의 언론인들에게 마땅치 않은 것이다.

흔히 역파라미드형 기사 형식이나 6하 원칙은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과 상통 한다. 또 ‘있는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객관 보도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야기도 언론 현장에서는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태도 또한 두 유형의 차이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유형1에서 찬성하는 정도보다는 유형3의 언론인들이 반대하는 강도가 높아 태도의 차이를 크게 만들었다.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기사가 객관 보도’라는 진술에 대해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들은 그렇다고 동조하고 있지만 ‘변화추구형’ 언론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인식 태도를 보인다.

진술문 2번의 “뉴스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말은 언론 현장에서 누구나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차이가 크다.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 객관성”이라는 문장이 바로 뒤에 따라오기 때문이다. 사실보도에 대한 태도 차이는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44)”이라는 진술도 찬반을 확실하게 갈라놓는다. 객관성의 가치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규범지상주의형은 긍정($Z=1.017$) 신호를 보냈지만 변화추구형은 부정적인 손짓($Z=-.325$)을 보여준다.

뉴스의 객관성을 제작 관행의 시각으로 보는지 여부도 여러 진술문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변화추구형’인 유형3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에 대한 해석이 사회의 요구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진술(12)에 대해 강한 긍정 ($Z=1.937$)을 나타냈다. 객관성에 대한 어떤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태도이다. 물론 이는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귀결이지만 유형1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다보면 객관성은 사실의 전달이라는 전제가 훼손된다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성을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 패일 뿐’이라는 ‘전략적 의례’로 파악하는 진술(9)에 대해서도 기본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듯 ‘강한 부정($Z=-1.598$)’을 표시했지만 변화추구형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반응($Z=.618$)이다.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들은 뉴스 객관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객관성을 목표가 아닌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정검다리라고 생각한다는 진술(43)에 찬성할 수가 없다. 하지만 변화추구형 언론인들은 그러한 진술에 다분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두 유형은 이와 같이 많은 진술문에서 거의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를 두고 두 유형을 대비해보면 유형1은 소극적인 태도인 반면 유형3은 매우 적극적이다. 하지만 두 유형은 ‘객관성은 뉴스의 질을 저울질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진술문(23)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3) 규범지상주의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

뉴스 객관성에 대한 ‘규범지상주의형’(유형1)과 ‘실천적 원칙주의형’ (유형4)

은 실천의 측면에서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유형1은 뉴스 객관성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면서 언론 활동을 해야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유형4는 객관성을 실천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의 지평을 보여준다.

<표 5-9>에 나타나 있는 진술문 2번과 1번, 그리고 36번은 두 유형의 태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객관성에 대해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으로,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2)으로 설명하는 항목을 두고 표준점수 차이가 2.456에 이를 만큼 두 유형은 서로 다른 시각을 노정하고 있다. 즉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들은 이에 대해 강한 긍정 ($Z=1.484$)을 보인데 비해 실천적 원칙주의형 언론인들은 비교적 강하게 부정하는($Z=-.972$) 태도를 보였다.

‘실천적 원칙주의형’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는 관념적 진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태도의 연장에서 유형4는 객관성이 “저널리즘의 근간이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는 진술문(1)에 비교적 강한 부정($Z=-1.028$)의 뜻을 보여주고, 유형1은 강한 긍정($Z=1.289$)을 나타내 결과적으로 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객관성에 대해 ‘어찌 보면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으로 성격을 규정한 항목(36)은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들이 ‘강한 반대’를 보인 반면, 실천적 원칙주의형 언론인들은 ‘더욱 강한 찬성’ 의사를 표시해 태도차이를 나타낸 표준점수가 -2.783을 기록했다.

객관성을 진실의 발견과 연결지어 인식하는 태도에서도 차이점이 보인다. 규범지상주의형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접근하면 진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18)’는 점을 무척 강조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나 실천적 원칙주의형은 오히려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오로지 객관성만이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는 논리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을 수집하고 사건(안)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해석하며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객관성의 핵심 개념’이라는 진술 항

목(41)이나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사실성의 총화가 객관성’이라는 항목(31)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분명한 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5-9> 규범지상주의형(유형1)과 실천적 원칙주의형(유형4)의 차이
(표준점수 차이 +1이상, -1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Z-Scores)		
		1	2	차이
2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다.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 객관성이라고 생각한다.	1.484	-.972	2.456
1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근간(根幹)이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1.289	-1.028	2.317
3	뉴스는 언론 매체가 만드는 것이라면, 객관성은 뉴스를 만드는 과정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981	-.972	1.953
18	언론에게 부과된 윤리의 사명은 진실을 캐내고,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접근하면 진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	1.423	-.355	1.778
41	흘어진 사실을 수집하고 사건(안)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해석하며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객관성의 핵심 개념이다.	1.066	-.561	1.627
3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다.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이다.	1.044	-.505	1.549

20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사건(안)을 보도할 경우 미디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어떤 관점을 축으로 사건(성)을 정리해 내는 것이 객관성을 훼드는 것은 아니다.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입체적인 보도가 더 유용한 때문이다.	-.069	-1.607	1.538
25	언론이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점이나 강조점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488	-.935	1.423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1.017	-.224	1.242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	.860	-1.058
24	사회 과학 방법론이 요구하는 검증의 원리를 수용하여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언론(인)에게는 실체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작업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274	1.009	-1.283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체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864	2.168	-1.304
8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막연히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객관적인 보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1.841	-.392	-1.449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12	객관성에 대한 해석은 사회의 요구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 내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특정 한 한 가지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473	1.028	-1.501
4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거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1.175	.561	-1.736
34	객관성은 언론인 의식 속에 존재한다. 무슨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이다.	.167	1.906	-1.739
36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뭉뚱그린 것이다. 객관성은 어찌 보면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이다.	-1.082	1.701	-2.783

유형1은 객관성에 대해 ‘언론의 생태적인 사명’(44)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유형4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형1의 언론인들은 언론이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함에 있어서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객관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유형 4는 객관성이라는 것을 생태적인 사명이라는 점이나 객관성이 있어야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범지상주의형에 속한 언론인들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긍정의 태도를 보이는 항목들에 대해 실천적 원칙주의형 언론인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태도 차이가 벌어진 경우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객관성을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 뉴스 제작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4)에 대해 규범지상주의형은 강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실천적 원칙주의형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유형1은 객관성의 절대성 훼손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성에 대한 해석이 사회의 요구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실천적 원칙주의형인 유형4는 객관성의 상대성에 호응하고 있다.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 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8)’는 Q 진술문은 이 연구에 피험자로 참여한 현직 언론인들에게 주목을 끌었다. 대체로 대부분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해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응을 분류한 결과에는 차이가 커졌다. 유형1의 언론인들은 매우 강한 부정($Z=-1.841$)을 나타냈다. 언론인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객관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유형4의 언론인들은 물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표준점수는 많이 달랐다($Z=-0.392$). 때문에 두 유형간의 태도차이는 이 부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또 실천적 원칙주의형은 객관성을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진술(10)에 대해 아주 강하게 동의를 표했으나 규범지상주의형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약하게 동의를 표현했다. 하지만 두 유형 모두 객관성과 관련해 사실의 검증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 간에 태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객관성에서 물리적인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중요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첨삭 없이 뉴스에 반영시키는 것이 객관 보도이고 객관성 실천의 길(22)이라는 점에 대해 태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두 유형 모두 이 진술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기계적인 균형성에서 객관성을 찾는 것은 규범지상주의형이나 실천적 원칙주의형에게나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객관적이지 않은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는 항목(27)과, 객관성을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며 객관성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진술(19)에 대해서도 두 유형이 비슷한 정도로 동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태도 비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4) 규범지상주의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

뉴스 객관성에 대한 태도 유형 가운데 ‘규범지상주의형’(유형1)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유형5)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많다. <표 5-10>을 보면, 전체 45개 Q 진술문 중 27개 항목에서 두 유형이 각각 강조하는 내용으로 확인하게 나누어졌다. 규범지상주의형이 강조하는 것은 15개 항목이고, 비판적 가치주의형이 강조하는 것은 12개 항목이다. 각각 표준점수도 높아 대비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유형5의 태도가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다.

유형1이 ‘강한 동감’을 표한 진술문은 대체로 유형5가 ‘강한 반대’를 밝힌 진술문들이다. 이렇게 해서 두 유형 간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점수가 ± 3.000을 초과하는 경우가 4개나 되고, 2.000을 초과하는 것은 9개에 이를 정도로 유형1에 속한 언론인들과 유형5에 속한 언론인들은 객관성에 대한 생각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판적 가치주의형은 객관성을 구호일 뿐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본 일이 없으며,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부질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반면, 규범지상주의형은 객관성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므로 사실 전달을 전제로 객관성 논의를 해야 하고, 객관성이 없이는 사실보도나 진실보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두 유형이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진술문을 살펴보자. ‘객관성이란 언론인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의 근본이므로 책임을 다 하라는 명령(17)’,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2)’,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18)’ 등은 규범지상주의형이 유난히 강하게 강조하는 진술문들이다. 이 때문에 두 유형 간에 객관성에 대한 태도 차이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비판적 가치주의형이 유난히

동감을 강조한 진술은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35)’,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은 넓다. 따라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도의 형태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28)’ 등을 들 수 있다.

**<표 5-10> 규범지상주의형(유형1)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유형5)의 차이
(표준점수 차이 +1이상, -1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Z-Scores)		
		1	2	차이
39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1.337	-1.708	3.044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1.017	-1.949	2.966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864	-1.795	2.659
17	객관성이란 언론인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의 근본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직에 대한 협신이며 책임과 책무를 다 하라는 명령이다.	1.588	-.965	2.553
2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다.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 객관성이라고 생각한다.	1.484	-.810	2.294

13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1.145	-1.052	2.196
23	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이다. 언론(인)과 수용자를 묶는 것이 뉴스이다. 수용자는 언론에 의해 가공되고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라 언론의 눈에 비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해주길 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뉴스의 질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69	-.897	1.767
18	언론에게 부과된 유품의 사명은 진실을 캐내고,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접근하면 진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	1.423	-.308	1.731
32	언론(인)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 자주권 또는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적인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010	-1.708	1.698
14	전문직에게 유품의 실천 덕목은 자신에 대한 담금질이다. 객관성은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발현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고 전문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966	-.656	1.623
41	흩어진 사실을 수집하고 사건(안)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해석하며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객관성의 핵심 개념이다.	1.066	-.395	1.461
34	객관성은 언론인 의식 속에 존재한다. 무슨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이다.	.167	-1.225	1.393

25	언론이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점이나 강조점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488	-.897	1.386
7	객관성은 저널리즘에서 뉴스에 권위를 부여하고, 취재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언론인에게 취재보도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며 뉴스가 선전이나 광고 등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차별점을 제시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1.223	-.154	1.377
37	뉴스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을 수용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이한 점이나 관심 사항이 돋보일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유용한 정보의 전달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104	-1.225	1.330
36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몽뚱그린 것이다. 객관성은 어찌 보면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이다.	-1.082	.000	-1.082
28	제도화된 뉴스 제작 과정이나 관행에서 언론인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객관성이다. 언론한테는 객관성이라는 직접적 의무가 있으나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은 넓다. 따라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도의 형태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	-.161	1.312	-1.473
19	객관성의 연원이나 발전 궤적은 간단한 것은 아니다.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뭉뚱그리고 싶다.	-1.167	.395	-1.563

30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객관보도의 주요한 요소로 지적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안(건)을 해석하고 이를 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	-1.359	.241	-1.600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	1.467	-1.665
43	객관성이 목표는 아니다.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1.553	.482	-2.036
4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거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1.175	1.052	-2.226
9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1.598	.965	-2.562
5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취재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적의 진실을 캐내고 알리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이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다.	-1.269	1.380	-2.649
21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짓이다. 사건(안)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680	1.380	-3.060
8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막연히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객관	-1.841	1.621	-3.462

적인 보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29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1.808	1.949	-3.757
----	--	--------	-------	--------

규범지상주의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은 태도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 당연할 듯하지만 항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서로 인식의 방향을 같이 하거나 태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주목되는 사례들이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24)’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취재보도에 아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42)’ 등은 두 유형 모두 동감하지 않는 쪽으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현실순응형과 다른 유형의 비교

1) 현실순응형과 변화추구형

뉴스 객관성에 대한 ‘현실순응형’(유형2)과 ‘변화추구형’(유형3) 간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진술문(표준점수 ± 1.000 이상)은 <표 5-1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45개 가운데 12개였다. 가장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는 진술문은 33번과 4번이었다.

“완벽한 객관성이란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재한다. 충실향 사실 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33)”라고 객관성에 대해 짧막하게 설명한 문장을 ‘현실순응형’의 언론인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뉴스 객관성 확보의 요체는 사실 보도와

정보 전달이라는 시각으로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변화추구형’의 언론인들은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거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4)”라는 진술문이 제공해준다. 변화추구형 언론인들은 현실순응형과 달리 객관성이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들의 관행일 뿐이라는 진술을 강하게 지지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를 바탕으로 두 유형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태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39)’는 진술과 관련, 변화추구형은 강하게 거절하고 있지만 현실순응형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두 유형이 갖고 있는 태도의 방향은 객관성과 사실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로 등을 대고 있다.

<표 5-11> 현실순응형(유형2)과 변화추구형(유형3)의 차이

(표준점수 차이 +1이상, -1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Z-Scores)		
		1	2	차이
33	완벽한 객관성이란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재 한다. 충실한 사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1.187	-1.610	2.797
39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419	-1.606	2.024

32	언론(인)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 자주권 또는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적인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1.287	-.445	1.732
34	객관성은 언론인 의식 속에 존재한다. 무슨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이다.	.706	-.730	1.434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992	-.325	1.317
38	뉴스 가치는 일반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며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조건 있는 사실 전체를 보도한다고 그것을 객관 보도라 할 수는 없다.	1.557	.261	1.296
40	언어는 뉴스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언어는 사용자의 선택이나 보도 대상이 되는 사안의 모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사실을 보도할 때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가 객관성을 결정할 수 있다.	.990	-.044	1.035
16	저널리즘에서 객관적인 보도란 외연이 넓고 내포가 깊어서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에 담긴 뜻이 변할 수 있다.	.447	1.485	-1.038
30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객관보도의 주요한 요소로 지적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안(건)을 해석하고 이를 축으로 기사를	-.954	.239	-1.193

작성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

- | | | | | |
|----|--|--------|-------|--------|
| 12 | 객관성에 대한 해석은 사회의 요구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 내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특정한 한 가지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143 | 1.937 | -1.794 |
| 9 |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1.990 | .618 | -2.608 |
| 4 |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거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 -1.328 | 1.337 | -2.665 |

현실순응형은 객관성을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32)’로 보고 있지만 변화추구형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객관성을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이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34)’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두 유형은 찬반으로 완벽하게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변화추구형 언론인들의 태도는 객관성이라는 것도 배워서 익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객관성이 언론인의 취재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9)’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현실순응형’ 언론인들은 강하게 거부하는 반면, ‘변화추구형’에서는 객관성의 그러한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현실순응형은 객관성의 가치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인정하면서 취재 보도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지만 변화추구형은 그런 태도를 멀리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정한 한 가지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진술문(12)을 ‘현실순응형’에 비해 ‘변화추구형’이 강하게 공정하는 태도가 그런 경향을 보여준다.

바람직한 객관 보도에 대한 시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안을 해석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30)’라는 진술을 유형2(현실순응형)는 비교적 강하게 거부하지만 유형3(변화추구형)은 인정하는 쪽이다. 또한 유형3은 ‘개인이나 사회 환경에 따라 객관적인 보도의 뜻이 변할 수 있다’는 면에서 확실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유형2는 긍정하는 정도가 다소 약해 서로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두 유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두 유형은 시각을 공유하기도 한다.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어떤 관점을 축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객관성을 훼드는 것은 아니다(20)’라는 시각에 대해 ‘현실순응형’이나 ‘변화추구형’이나 비슷한 정도로 긍정적이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하다(25)’는 논리에 대해서도 두 유형이 모두 비슷한 정도로 강하게 긍정하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짓(21).’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비슷한 정도로 강하게 부정적이다. 이로 미루어 ‘현실순응형’이나 ‘변화추구형’에 속한 언론인들은 언론 현장에서 뉴스 객관성을 강조하는 언론인들이며, 다만 그 활용 방법에서는 위에 논의한 차이들을 보일 것으로 해석된다.

2) 현실순응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

‘현실순응형’ 언론인들로 구성된 유형2와 ‘실천적 원칙주의형’ 언론인들로 이루어진 유형4는 뉴스 객관성에 대해 많은 항목에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45개 Q 진술문 가운데 23개 항목에서 표준점수 ± 1.000 이상의 차이를 드러냈다. 우선 유형2가 객관 보도에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인데 반해 유형4는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유형4는 순수한 객관 보도를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두 유형은 <표 5-12>에서 보듯이 10번 진술문과 20번 진술문에서 가장 확연한 태도 차이를 나타낸다.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

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10).” 이 항목에 대해 유형2인 현실순응형은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주관을 배제하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형4인 실천적 원칙주의형은 같은 진술문에 대해 유형2가 거부한 것보다 정도가 훨씬 강한 정도로 긍정하는 태도($Z=2.168$)를 보인다. 주관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건 또는 사안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을 경우 객관성 자체가 손상을 입는다는 인식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5-12> 현실순응형(유형2)과 실천적 원칙주의형(유형4)의 차이
(표준점수 차이 +1이상, -1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Z-Scores)		
		1	2	차이
20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사건(안)을 보도할 경우 미디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어떤 관점을 축으로 사건(성)을 정리해 내는 것이 객관성을 혼드는 것은 아니다.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입체적인 보도가 더 유용한 때문이다.	.947	-1.607	2.555
25	언론이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점이나 강조점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1.499	-.935	2.433
1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근간(根幹) 이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1.297	-1.028	2.325
43	객관성이 목표는 아니다.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객관성이 최	.332	-1.271	1.603

고의 덕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16	저널리즘에서 객관적인 보도란 외연이 넓고 내포가 깊어서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에 담긴 뜻이 변할 수 있다.	.447	-1.065	1.512
33	완벽한 객관성이라면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재한다. 충실한 사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1.187	-.318	1.504
2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다.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 객관성이라고 생각한다.	.509	-.972	1.481
3	뉴스는 언론 매체가 만드는 것이라면, 객관성은 뉴스를 만드는 과정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453	-.972	1.424
26	객관 보도라 하면 서로 대립하는 견해나 주장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적인 입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은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뉴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의 성격이 짙다.	.001	-1.365	1.365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992	-.224	1.216
38	뉴스 가치는 일반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을 빼놓고 정확하며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조건 있는 사실 전체를 보	1.557	.430	1.127

도한다고 그것을 객관 보도라 할 수는 없다.

41	흘어진 사실을 수집하고 사건(안)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해석하며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갾관성의 핵심 개념이다.	.563	-.561	1.124
5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취재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적의 진실을 캐내고 알리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이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다.	-1.485	-.449	-1.036
34	객관성은 언론인 의식 속에 존재한다. 무슨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이다.	.706	1.906	-1.200
22	객관성은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주의 주장을 침삭 없이 뉴스에 반영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이고 갾관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1.516	-.300	-1.217
9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갾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1.990	-.728	-1.261
13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481	2.056	-1.575
8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갾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막연히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갾관적인 보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2.218	-.392	-1.826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009	.860	-1.868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거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1.328	.561	-1.889
45	역피라미드형 기사나 6학 원칙에 충실 하라는 얘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891	1.084	-1.975
36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뚱뚱그린 것이다. 객관성은 어찌 보면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이다.	-.768	1.701	-2.469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1.171	2.168	-3.339

위에서 살펴본 유연성과 염격성은 두 유형의 태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다. 현실순응형 언론인들은 뉴스를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인의 관점이 스며든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주관이 지나치면 사실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것(25)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이들이 주관의 개입에 대해 부드러운 태도인데 비해 실천적 원칙주의형은 그렇지 않다. 뉴스 제작 과정에서 주관의 개입을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용인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객관성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한 진술(1)에 대해서도 두 유형이 정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유형2는 진술에 강한 동감을 표하지만 유형4는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전하는 원칙을 중시하면 객관성의 개념을 굳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태도이다. 객관성을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정경다리로 보면서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43)'는 항목에 대해서도 원칙을 중시하는 유형4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데 비해 유형2는 비교적 약하지만 긍정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유형4가 유난히 강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로 두 유형의 차이가 커진 경우들도 있다.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끊뚱 그런 것으로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36)'이라는 진술에 대해 유형4는 강한 긍정($Z=1.701$)을 보여, 다소 부정적($Z=-.768$)인 유형2와 큰 대조를 보여준다. '있는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진술(45)에 대해서는 유형4인 실천적 원칙주의형 언론인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유형2인 현실순응형은 부정적인 태도여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유형4는 역피라미드형 기사체나 5W1H에 의한 기사 작성 등의 방식을 통한 엄격한 객관 보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반대로 유형2는 그러한 태도에는 부정적인 뜻을 보여준다.

객관성에 대해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13)'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유형2와 유형4가 모두 긍정을 보여주지만 유형4의 긍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Z=2.056$) 두 유형간의 태도 차이는 실제로 크다고 할 수 있다.

Q 진술문에 대해 두 유형이 함께 거절하는 태도, 즉 부정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정도가 달라 태도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 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진술문(8)에 대해 유형2가 유형4 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객관성은 언론활동의 방패일 뿐(9)', '객관성에서는 물리적인 형평성과 균형성이 중요하다(22)',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바라직스럽지 않다(5)' 등의 내용은 방향에서는 두 유형의 언론인들이 '부정'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나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 유형2가 상대적으로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성에 대한 두 유형의 태도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나온다. ‘객관성은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뭉뚱그리고 싶다.(19)’,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가 객관성을 결정할 수 있다.(40)’, ‘객관성은 불평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이다.(31)’, ‘객관적이지 않은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27)’등이 비슷한 태도를 보인 진술들이다.

3) 현실순응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

뉴스 객관성에 대한 다섯 가지 태도 유형 가운데 ‘비판적 가치주의형(유형5)’은 다른 유형들과는 지향점이 다르다. 이 점은 규범지상주의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이미 지적했다. 유형2(현실순응형)와 유형5(비판적 가치주의형)의 태도 비교에서도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상이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전체 45개 Q 진술문을 분류해 두 유형을 비교한 결과, 표준점수가 +1.00 이상이거나 -1.00 이하로 나온 경우는 22개였다. 이중 유형2가 긍정을 표하고 유형5가 부정을 표한 진술문은 <표 5-13>에서 볼 수 있듯이 11개, 유형2가 부정을 표하고 유형5가 긍정을 표한 경우도 11개였다.

두 유형의 태도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32)’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진술에 대해 유형2는 강한 긍정($Z=1.287$)을 보이고 있지만 유형5는 그보다 더 옥 강한 부정($Z=-1.708$)을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유형2는 뉴스의 객관성을 살려서 기사를 작성해야 언론의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그렇지만 유형5는 그와는 정반대의 가치를 보여준다.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굳이 객관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는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태도로 보인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자.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 번도 객관성을 생각해본 일

이 없다. 무엇이 객관적인 보도인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진술문 8번에 대한 두 유형의 상반된 태도이다. 유형2는 터무니없는 진술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듯 강한 부정($Z=-2.218$)을 나타낸 반면, 유형5 비판적 가치주의형은 정반대로 강한 긍정($Z=1.621$)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언론 활동을 한 경우, 객관성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때가 있지만 유형5의 언론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표 5-13> 현실순응형(유형2)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유형5)의 차이
(표준점수 차이 +1이상, -1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Z-Scores)		
		1	2	차이
32	언론(인)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 자주권 또는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 한 전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적인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1.287	-1.708	2.994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992	-1.949	2.941
25	언론이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점이나 강조점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1.499	-.897	2.396
39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스	.419	-1.708	2.127

	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향 사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37	뉴스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을 수용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히 한 점이나 관심 사항이 돌보일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뉴스가 만들어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유용한 정보의 전달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773	-1.225	1.958
34	객관성은 언론인 의식 속에 존재한다. 무슨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이다.	.706	-1.225	1.931
17	객관성이란 언론인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의 근본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직에 대한 협신이며 책임과 책무를 다 하라는 명령이다.	.688	-.965	1.653
13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481	-1.052	1.533
2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다.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 객관성이라고 생각한다.	.509	-.810	1.319
23	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이다. 언론(인)과 수용자를 묶는 것이 뉴스이다. 수용자는 언론에 의해 가공되고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라 언론의 눈에 비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록 주길 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뉴스의 질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4	-.897	1.222
14	전문직에게 으뜸의 실천 덕목은 자신에 대한 담금질이다. 객관성은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발현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고 전문직을 단단히	.526	-.656	1.182

	게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30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객관보도의 주요한 요소로 지적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안(건)을 해석하고 이를 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	-.954	.241	-1.195
45	역파라미드형 기사나 6하 원칙에 충실 하라는 얘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891	.810	-1.702
19	객관성의 연원이나 발전 궤적은 간단한 것은 아니다.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둥뚱그리고 싶다.	-1.309	.395	-1.705
3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다.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이다.	-.586	1.225	-1.812
4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거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1.328	1.052	-2.379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009	1.467	-2.475
21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것이다. 사건(안)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435	1.380	-2.815
5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취재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적의 진실을 캐내고 알리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이타적이고 주	-1.485	1.380	-2.864

관적인 판단이나 직업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다.

9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1.990	.965	-2.954
29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1.038	1.949	-2.987
8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막연히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객관적인 보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2.218	1.621	-.3839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두 유형 간에 태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44번 진술문이 있다. 이 항목에는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형2가 긍정의 태도를 보인데 반해 유형5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듯 강한 부정의 태도를 보였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라는 25번 진술문에 대해서도 두 유형은 정반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유형2가 강한 긍정을 나타냈고 유형5는 부정을 나타내 그 차이가 커졌고, 언론 현실에서 이들의 태도는 상반된 상태여서 뉴스 처리와 관련해 유형2 언론인들과는 계속 크고 작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 가치주의형은 객관성과 사실 전달은 전혀 별개로 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조항(39)의 경우, 현실순응형 언론인들이 약한 긍정으로 유연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비판적 가치주의형 언론인들은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 객관

성 논의와 사실 전달을 무관한 듯 인식하는 양태를 보여준다.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라는 진술 항목(29)에 대해서는 유형2의 언론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유형5는 아주 강한 긍정을 표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진술 항목들도 많다.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이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 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라고 생각한다(5)’,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부질없는 짓이다.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21)’,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제작관행이 뿐(4)’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두 유형은 객관성을 ‘전략적 의례’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대립한다. ‘객관성은 언론인의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9)’이라는 진술에 대해 비판적 가치주의형은 긍정을 표시했으나 현실순응형은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하지만 두 유형에게 비슷한 시각도 있다. 두 유형 모두 ‘객관성은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뉴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의 성격이 짙다(26)’는 진술에 찬반의 강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고,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다(28)’는 조항에는 두 유형 공히 강한 긍정을 표시한다. ‘충실한 사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33)’이라는 조항에도 두 유형에서 모두 강한 긍정의 반응을 보인다.

3. 변화추구형과 다른 유형의 비교

1) 변화추구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

‘변화추구형’(유형3)과 ‘실천적 원칙주의형’(유형4)의 태도는 전체 45개 Q 진술문 가운데 19개 항목에서 큰 표준점수 차이($Z=+1$ 이상, -1 이하)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태도의 뚜렷한 차이는 <표 5-14>에서 두 유형의 표준점수를

비교해보면 금세 나타난다. 우선 두 유형의 언론인들이 언론 현실에서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뉴스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0번 진술문에 대한 반응들이다.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이 문장에 대해 실천적 원칙주의적인 유형4는 매우 강한 동감($Z=2.168$)을 표시했다. 사회 현상을 보도할 때는 마땅히 주관의 개입 없이 사안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추구하는 유형3은 이 문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Z=-.729$)이다. 그 강도에 있어서 유형4에 미치지 못하지만 ‘검증 가능한 사실을 쓰는 것’으로 객관성의 개념을 축소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전통에 얹매이는 것이며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4> 변화추구형(유형3)과 실천적 원칙주의형(유형4)의 차이
(표준점수 차이 +1이상, -1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Z-Scores)		
		1	2	차이
16	저널리즘에서 객관적인 보도란 외연이 넓고 내포가 깊어서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에 담긴 뜻이 변할 수 있다.	1.458	-1.065	2.550
20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사건(안)을 보도할 경우 미디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어떤 관점을 축으로 사건(성)을 정리해 내는 것이 객관성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입체적인 보도가 더 유용한 때문이다.	.908	-1.607	2.515
1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근간(根幹) 이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1.417	-1.028	2.445

25	언론이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점이나 강조점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1.486	-.935	2.421
43	객관성이 목표는 아니다.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499	-1.271	1.770
9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618	-.728	1.347
29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399	-1.626	1.228
15	객관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수록 실체가 명확해지기보다 더 큰 미궁에 빠져들 우려가 크다. 주관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객관성의 요체이다. 원리나 원칙은 간명할수록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653	-.561	1.214
18	언론에게 부과된 으뜸의 사명은 진실을 캐내고,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접근하면 진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	.843	-.355	1.198
26	객관 보도라 하면 서로 대립하는 견해나 주장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적인 입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	-.240	-1.365	1.125

은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 보다는 뉴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의 성격이 짙다.

14	전문직에게 으뜸의 실천 덕목은 자신에 대한 담금질이다. 객관성은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발 현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고 전문직을 단단 하게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1.439	.392	1.047
11	뉴스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객관성은 현업에서 공유하고 수용자 그리고 사회전체가 요구하는 느슨한 규범이고 원 칙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좋은 저널리즘을 향한 유익한 길잡이라고 생각한다.	.815	-.224	1.039
33	완벽한 객관성이란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 재한다. 충실한 사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 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다.	-1.610	-.318	-1.293
36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뭉뚱그린 것이다. 객관성은 어찌 보면 언론이 스 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 세우는 상징 같은 것이다.	.152	1.701	-1.549
39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 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 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 제로 하여야 한다.	-1.606	.953	-2.559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 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715	.860	-2.575
34	객관성은 언론인 의식 속에 존재한다. 무슨 기 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 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이다.	-.730	1.906	-2.636
45	역파라미드형 기사나 6하 원칙에 충실 하라는	-1.739	1.084	-2.823

얘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0.729 2.168 -2.897
-

변화추구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의 태도 차이는 진술문 10번에 대한 반응 차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인 보도란 외연이 넓고 내포가 깊어서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에 담긴 뜻이 변할 수 있다.(16)’는 항목에 대해서는 두 유형이 정반대로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유형3은 객관 보도의 성격에 대해 현실에 맞게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쪽이고 유형4는 그렇게 되면 객관성이 훼손돼 저널리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관점을 축으로 사건(성)을 정리해 내는 것이 객관성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20)’라는 항목과 ‘객관성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이 어렵다(1)’는 항목, 그리고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이며, 다만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25)’이라는 항목 등에서도 변화추구형은 비교적 ‘강한 긍정’인데 반해 실천적 원칙주의형은 ‘강한 부정’이다. 객관성에 대해 언론인의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라는 시각(9)에 대해서도 대립적인 반응 양태를 보여준다. 객관성의 가치를 단순한 도구로 볼 수는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유형4인 실천적 원칙주의형 언론인들이 뉴스의 객관성과 관련해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객관성을 구호일 뿐(29)’이라는 항목에 ‘강한 부정($Z=-1.626$)’을 보여주고 있다. 객관성은 구호가 아닌 현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유형3에

서도 부정적인 반응($Z=-.399$)을 보이고 있으나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역피라미드형 기사체 관련 진술문(45)에 대해서는 유형3이 강하게 부정의 뜻을 밝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데 반해 유형4는 비교적 강한 긍정을 표시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변화추구형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실천적 원칙주의형은 마땅히 인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명제로 받아들인다.

‘객관성은 언론인의 의식 속에 있다.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34)’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변화추구형이 부정하는데 비해 실천적 원칙주의형이 강하게 긍정하고 있어 태도 차이를 나타낸다. 변화추구형의 언론인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39)’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유형3이 강하게 부정하고 유형4는 비교적 긍정하는 편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언론인들의 입장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뉴스의 본질로 보고 있는 이 항목을 긍정할 경우, 공정성 같은 가치를 추구할 길이 막힌다고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유형은 이 항목에 대해서도 서로 등을 마주하고 멀리 피해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24번 진술문에서는 두 유형이 합일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전문은 “사회 과학 방법론이 요구하는 검증의 원리를 수용하여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언론(인)에게는 실체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작업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형3과 유형4의 언론인들은 공히 긍정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유형의 언론인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도를 충실하게 할 때 객관성이 지켜진다(6)’는 항목에 확실한 찬반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이나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44)’는

항목에 대해 함께 ‘약한 부정’을 나타낸 것은 변화추구형과 실천적 원칙주의형에도 공통되는 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2) 변화추구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

뉴스 객관성에 대한 ‘변화추구형’(유형3)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유형5)의 태도는 전체 45개 진술 가운데 24개 항목에서 서로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표 5-15>를 보면, 진술문 항목 번호 13, 25, 23, 10, 17번과 35, 8, 33, 21, 45, 31, 29번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13)’이라는 항목에서 두 유형의 다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항목의 진술 내용에 대해 유형3은 ‘강한 긍정’을 보이고 있으나 유형5는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변화추구형은 객관성이 갖고 있는 기본 가치를 확신하는 태도이지만 비판적 가치주의형은 그 가치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이다. 이와 같이 객관성의 가치를 불신한 결과, ‘주관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하다(25)’는 항목에 대해서도 유형5는 부정적인 태도이다.

두 유형의 태도는 정반대의 시각으로도 비교된다. ‘객관성은 뉴스의 질을 저울질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23)’는 진술문에 대해 유형3은 비교적 강한 긍정을 나타냈고, 유형5에서는 비교적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말하자면 유형5는 객관성으로 뉴스의 질을 저울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두 유형은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35)’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 유형3은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내지만 유형5은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기사를 쓰면서 객관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8)’, ‘객관성 실현의 지름길은 충실한 사실보도와 정보전달(33)’,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짓(2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며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사실성의 총화(31)’등의 진술문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5-15> 변화추구형(유형3)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유형5)의 차이

(표준점수 차이 +1이상, -1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Z-Scores)		
		1	2	차이
13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1.401	-1.052	2.452
25	언론이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점이나 강조점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1.486	-.897	2.383
12	객관성에 대한 해석은 사회의 요구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 내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특정한 한 가지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1.937	-.174	2.111
14	전문직에게 유품의 실천 덕목은 자신에 대한 담금질이다. 객관성은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발현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고 전문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1.439	-.656	2.095

23	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이다. 언론(인)과 수용자를 묶는 것이 뉴스이다. 수용자는 언론에 의해 가공되고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라 언론의 눈에 비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해주길 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뉴스의 질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11	-.897	1.709
16	저널리즘에서 객관적인 보도란 외연이 넓고 내포가 깊어서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에 담긴 뜻이 변할 수 있다.	1.485	-.174	1.659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325	-1.949	1.624
24	사회 과학 방법론이 요구하는 검증의 원리를 수용하여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언론(인)에게는 실체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작업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1.010	-.328	1.338
7	객관성은 저널리즘에서 뉴스에 권위를 부여하고, 취재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언론인에게 취재보도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며 뉴스가 선전이나 광고 등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차별점을 제시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1.125	-.154	1.279
32	언론(인)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 자주권 또는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적인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445	-1.708	1.263
18	언론에게 부과된 유품의 사명은 진실을 캐내	.843	-.308	1.151

고,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접근하면 진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

11	뉴스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객관성은 협업에서 공유하고 수용자 그리고 사회전체가 요구하는 느슨한 규범이고 원칙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좋은 저널리즘을 향한 유익한 길잡이라고 생각한다.	.815	-.328	1.143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729	-1.795	1.066
17	객관성이란 언론인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의 근본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직에 대한 협신이며 책임과 책무를 다 하라는 명령이다.	.065	-.965	1.029
19	객관성의 연원이나 발전 궤적은 간단한 것은 아니다.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뭉뚱그리고 싶다.	-.664	.395	-1.060
27	언론인이 자기에게 충실하다면 객관성은 별 의미가 없다. 언론인이라는 존재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이지 않는 언론은 언론이 아닌 것이다.	-1.122	.328	-1.450
5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취재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적의 진실을 캐내고 알리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이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다.	-.842	1.380	-2.221

29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 .399	1.949	-2.347
3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다.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이 종화이다.	-1.324	1.225	-2.549
45	역피라미드형 기사나 6하 원칙에 충실 하라는 얘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1.739	.810	-2.549
21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짓이다. 사건(안)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354	1.380	-2.733
33	완벽한 객관성이란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재한다. 충실한 사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1.610	1.225	-2.836
8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막연히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객관적인 보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1.278	1.621	-2.898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715	1.467	-3.182

어떤 진술문에 대한 Q 분류에서 두 유형이 모두 긍정 또는 부정을 표시했으나 그 인식 정도가 달라 태도 차이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객관성이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32)’라는 진술문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객관성(10)’이라는 진술문 등은 유형3과 유형5 모두 찬

성하지 않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유형5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태도가 다른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태도 차이가 선명한 유형3과 유형5의 언론인들 사이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는 대체로 긍정과 부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들이다. ‘형평성이나 균형성 보다는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안(건)을 해석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객관적인 보도(30)’라는 지적에 대해 두 유형은 약한 긍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거의 없다. 또 ‘객관성이 목표는 아니다.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43)’는 진술에 대해서도 유형3과 유형5는 비슷한 정도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변화추구형이나 비판적 가치주의형이나 뉴스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실천적 원칙주의형과 다른 유형의 비교

1) 실천적 원칙주의형과 비판적 가치주의형

이 연구에서 제시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다섯 가지 태도 가운데 ‘실천적 원칙주의형’ (유형4)과 ‘비판적 가치주의형’ (유형5)은 비교의 대척점에 자리하고 있다. 명칭만으로도 그러한 현상을 유추할 수 있다. <표 5-1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체 45개 Q 진술문 중에서 표준점수를 기준($Z=\pm 1$ 이상)으로 태도 차이를 드러내는 진술문이 28개나 된다.

태도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진술문은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10)’이라는 항목이다. 이에 대해 유형4의 ‘실천적 원칙주의형’ 언론인들은 매우 높은 정도의 동감을 표하고 있다.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뉴스는 기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성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데서 나온 반응이다. 하지만 유형5의 ‘비판

적 가치주의형' 언론인들은 정반대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기사를 쓰면서 일체의 주관을 배제하고 사회 현상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유형 간 차이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명하지만 유형4가 '부정적'인 태도를, 유형5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도 등장한다. 그 대상은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29)'라는 항목이다. 유형4의 실천적 원칙주의형 언론인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규범으로서의 객관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유형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는 태도이다.

<표 5-16> 실천적 원칙주의형(유형4)과 비판적 가치주의형(유형5)

차이 (표준점수 차이 +1이상, -1이하)

문항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Z-Scores)		
		1	2	차이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2.168	-1.795	3.963
34	객관성은 언론인 의식 속에 존재한다. 무슨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이다.	1.906	-1.225	3.132
13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2.056	-1.052	3.108
39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953	-1.708	2.661

	뉴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향 사설 전 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32	언론(인)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 자주권 또는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적인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467	-1.708 2.175
17	객관성이란 언론인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의 근본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직에 대한 협신이며 책임과 책무를 다하라는 명령이다.	.934	-.965 1.899
37	뉴스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을 수용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이한 점이나 관심 사항이 돋보일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뉴스가 만들어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유용한 정보의 전달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598	-1.225 1.824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224	-1.949 1.725
36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뚱뚱그린 것이다. 객관성은 어찌 보면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이다.	1.701	.000 1.701
23	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이다.	.729	-.897 1.626

언론(인)과 수용자를 묶는 것이 뉴스이다. 수용자는 언론에 의해 가공되고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라 언론의 눈에 비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해주길 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뉴스의 질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4	사회 과학 방법론이 요구하는 검증의 원리를 수용하여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언론(인)에게는 실체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작업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1.009	-.328	1.337
12	객관성에 대한 해석은 사회의 요구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 내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특정한 한 가지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1.028	-.174	1.202
14	전문직에게 으뜸의 실천 덕목은 자신에 대한 담금질이다. 객관성은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발현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고 전문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392	-.656	1.048
7	객관성은 저널리즘에서 뉴스에 권위를 부여하고, 취재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언론인에게 취재보도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며 뉴스가 선전이나 광고 등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차별점을 제시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879	-.154	1.033
27	언론인이 자기에게 충실히 하면 객관성은 별 의미가 없다. 언론인이라는 존재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이지 않는 언론은 언론이 아닌 것이다.	-.691	.328	-1.020
3	뉴스는 언론 매체가 만드는 것이라면, 객관	-.972	.261	-1.233

성은 뉴스를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26	객관 보도라 하면 서로 대립하는 견해나 주장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적인 입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은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뉴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의 성격이 짙다.	-1.365	-.087	-1.278
33	완벽한 객관성이란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재한다. 충실향 사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318	1.225	-1.543
20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사건(안)을 보도할 경우 미디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어떤 관점을 축으로 사건(성)을 정리해 내는 것이 객관성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입체적인 보도가 더 유용한 때문이다.	-1.607	.000	-1.607
19	객관성의 연원이나 발전 궤적은 간단한 것은 아니다.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뚱뚱그리고 싶다.	-1.290	.395	-1.685
9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객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728	.965	-1.693
3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다.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이다.	-.505	1.225	-1.731
43	객관성이 목표는 아니다. 더 나은 저널리즘	-1.271	.482	-1.753

을 위한 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5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취재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적의 진실을 캐내고 알리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이 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윤리에 충실했던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다.	-.449	1.380	-1.828
1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근간(根幹)이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1.028	.830	-1.858
8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막연히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객관적인 보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392	1.621	-2.013
21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짓이다. 사건(안)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121	1.380	-2.501
29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1.626	1.949	-3.575

하지만 유형5의 비판적 가치주의형 언론인들은 역시 강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유형4인 실천적 원칙주의형은 객관성에 대해 ‘언론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34)’,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13)’,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논의해

야 하는 것(39)', '언론인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 윤리의 근본(17)' 등으로 규정한 진술을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나, 유형5 비판적 가치주의형은 거의 정반대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 유형5는 뉴스의 객관성과 관련해 '부질 없는 논의(21)', '기사 작성 과정에서 생각해본 적 없다는 점(8)',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스럽지도 않은 것(5)' 등으로 표현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에 대해 유형4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식의 방향이 정반대는 아니지만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큰 경우도 주목된다. 그러한 사례로는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인데, 이러한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44)'는 항목을 들 수 있다. 실천적 원칙주의형 언론인들은 이에 대해 약한 정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비판적 가치주의형 언론인들은 매우 강하게 진술에 동감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혁경하게 다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하다(25)',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18)', '보도를 충실히 할 때 객관성이 지켜진다(6)' 등의 진술이 두 유형에서 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식의 방향이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는데, 매우 독특한 현상이지만 동시대에 동일한 지역에서 언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분석된다.

5. 뉴스 객관성에 대한 태도 유형의 공통점

뉴스 객관성에 대한 5개 태도 유형의 언론인들이 합의하는 진술문 항목은 2개였다. 하나는 항목 6번으로 "객관성은 뉴스가 얼마나 사회 전체(수용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보도를 충실하게 할 때 객관성이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항목의 표준점수는 다소 낮은 수준($Z=.06$)이다.

또 다른 항목은 42번으로 “뉴스의 다양성은 관점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어떤 목표를 겨냥하고 취재 활동의 범위나 방향을 제시한다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취재 보도에 아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이다. 이 항목의 표준점수도 높지 않다($Z=-.89$).

전체 45개 진술문 가운데 공통점으로 일치되는 항목이 2개 뿐이며, 그것들 조차도 합의의 정도가 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개의 태도 유형들의 특성이 비교적 독특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2개의 공통 항목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6번 항목의 경우,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인들이 객관성을 충실한 보도의 전제 또는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물론 객관성의 정의는 유형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언론인들은 어떤 유형에 속해있든 충실한 보도와 객관성의 준수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진술문 42번 항목은 참가자들 모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는 언론 현실을 경험하는 언론인들로서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 ‘취재보도에 아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언론인들에게는 대체로 뉴스 또는 보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일 뿐이다. 때문에 그것은 객관성 준수의 책무와 별개이며, 그런 이유로 객관성이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생각에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언론인들은 모두 서울에 있는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활동하고, 취재 현장에서 수시로 만날 수도 있다. 동시대 동일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만큼 뉴스 객관성에 대해 공통분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Q 분류 결과, 다섯 가지 태도들 간의 공통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미 지적한대로 각 유형 간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그만큼 언론인들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비판적 가치주의형의 출현이 유형간의 공통점 미흡으로 이어졌다 고 볼 수 있다. 다른 유형들과는 세계관이 판이한 비판적 가치주의형 언론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비판적 가치주의형 언론인의 태도가 확인된 것은 한국 언론인들이 객관성에 대해 매우 다양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언론인들의 환경적 요인과 태도 유형

‘연구문제3’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인들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기본 목적은 Q 방법론을 이용해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특성에 따라 태도 유형이 얼마나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것이 Q 방법론으로 도출된 객관성에 대한 유형들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한 특성은 피험자들이 속한 언론사의 종류, 근무 경력, 직위, 오래 근무한 부서 등이다.

우선 <표 5-17>과 같이 언론사 종류에 따른 태도 유형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 연구에 참여한 62명의 유형별 비율은 규범지상주의형(유형1) 41.9%, 현실순응형(유형2) 35.5%, 변화추구형(유형3) 14.5%, 실천적 원칙주의형(유형4) 4.8%, 비판적 가치주의형(유형5)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치로 볼 때 규범지상주의형과 현실순응형이 전체의 7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인 집단 가운데 이 두 가지 태도 유형이 반드시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론사 종류별로는 신문기자의 경우 유형1이 40.4%, 유형2가 32.7% 등 5개 유형에 분포되어 있고, 방송기자들은 유형1과 유형2에 각각 50%가 분포되어

있을 뿐 다른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유형인 현실순응형에서는 신문기자들이 32.7%인데 비해 방송기자들은 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험자 가운데 방송기자 수가 적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방송기자와 신문기자의 특성 차이에서 오는 현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표 5-17> 소속 언론사 종류에 따른 태도 유형별 분포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전체	
소속 언론사의 종류	신문사	21	17	9	3	2	52	
		40.4%	32.7%	17.3%	5.8%	3.8%	100.0%	
	방송사	5	5	0	0	0	10	
		50.0%	50.0%	.0%	.0%	.0%	100.0%	
전체		26	22	9	3	2	62	
		41.9%	35.5%	14.5%	4.8%	3.2%	100.0%	

이와 관련해 이 연구에서 ‘현실순응형’으로 분류된 기자 경력 25년인 한 방송 기자의 말은 참고가 될 만하다. 그는 신문사 수습기자로 입사해 12년을 일하다 방송기자로 전직한 경우여서 신문기자와 방송기자의 특성을 고루 이해하고 있다. 다음은 이 방송기자가 신문기자와 방송기를 비교한 발언이다.

“방송기는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신문기자에 비해 현실을 감안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것은 근무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방송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매체의 특성상 춰재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뉴스와 직접 관련이 안 되는 쪽의 사람들도 만날 기회가 많다. 또 신문에선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방송에선 순환근무가 많다. 내근도 해야 한다. 기자라고 해서 뉴스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신문기자와 같은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다양성을 갖추게 된다. 나 스스로 방송사로 옮기고 나서 현실을 치중하는 쪽으로 변화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이와 같은 환경 차이는 뉴스를 판단할 때도 영향을 줄

것이다.”

피험자 수를 늘리면 방송기자 중에도 다섯 가지 태도 유형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표 5-17>과 위의 증언으로 미루어볼 때 방송 매체의 특성상, 즉 방송 기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현실순응형의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뉴스의 객관성을 탄력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체화되면서 하나의 태도로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변화추구형(유형3), 실천적 원칙주의형(유형4), 비판적 가치주의형(유형5) 등의 태도가 방송 기자 피험자 중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위에 설명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근무 경력 또는 근무 기간에 따라 뉴스를 바라보는 눈도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표 5-18> 언론사 근무 경력에 따른 태도 유형별 분포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전체	
언론사 근무 경력	10년 이하	5	12	4	2	1	24	
		20.8%	50.0%	16.7%	8.3%	4.2%	100.0%	
	11년 이상	21	10	5	1	1	38	
		55.3%	26.3%	13.2%	2.6%	2.6%	100.0%	
전체		26	22	9	3	2	62	
		41.9%	35.5%	14.5%	4.8%	3.2%	100.0%	

실제로 Q 진술문을 구성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근무 기간에 따라 객관성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의 조언에 따라 근무 경력을 10년 이하와 11년 이상으로 나누어 태도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근무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 대체로 중견 기자로 분류할 수 있고, 언론사

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후배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역할 차이가 생긴다.

그 결과는 <표 5-18>에서 보듯이 규범지상주의형(유형1)에서 11년 이상 경력자가 55.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현실순응형(유형2)에서는 10년 이하 경력자가 50.0%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고 경력이 적은 언론인들이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현실순응형 태도에 쓸리고 있고, 연령대가 높고 경력이 많은 언론인들이 규범지상주의형 태도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어느 직종에서든지 일반적으로 근무 경력이 많으면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규범이나 원칙을 비켜서서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근무경력이 많은 쪽이 규범을 중시하고, 근무경력이 낮은 쪽은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9> 직위에 따른 태도 유형별 분포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전체	
현재 직위	평기자	10	16	4	2	1	33	
		30.3%	48.5%	12.1%	6.1%	3.0%	100.0%	
	데스크	16	6	5	1	1	29	
		55.2%	20.7%	17.2%	3.4%	3.4%	100.0%	
전체		26	22	9	3	2	62	
		41.9%	35.5%	14.5%	4.8%	3.2%	100.0%	

이와 같은 현상은 직위에 따른 태도 유형별 분포를 보여주는 <표 5-19>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피험자들을 평기자와 데스크로 구분해 태도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규범지상주의형(유형1)에는 평기자가 30.3%인데 비해 데스크들은 55.2%가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실순응형(유형2)에는 평기자의 경우 48.5%가, 데스크는 20.7%가 속해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 5-18>과 <표 5-19>에서 나타나듯이 근무경력 또는 직위에 따른 태도 유형의 차이는 유형1과 유형2에서 나타난다. 이는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태도가 ‘근무 경력 10년’ 또는 ‘직위의 차이’를 기준으로 달라지고 있거나, 세대 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의 태도가 연령이나 직위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 세대간 인식 차이일 가능성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한국 언론인들의 주된 태도는 규범지상주의형에서 현실순응형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세가 더욱 계속된다면 한국 언론의 보도에서 객관성은 더욱 유연성 있게 해석되고,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형3(변화추구형), 유형4(실천적 원칙주의형), 유형5(비판적 가치주의형)는 근무경력과 직위를 중심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에 따른 태도 유형 분포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전체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	사회 · 전국 · 수도권부	9 37.5%	7 29.2%	5 20.8%	1 4.2%	2 8.3%	24 100.0%
	경제 · 산업부	3 33.3%	5 55.6%	0 .0%	1 11.1%	0 .0%	9 100.0%
		4 66.7%	1 16.7%	1 16.7%	0 .0%	0 .0%	6 100.0%
	국제부	3 50.0%	2 33.3%	1 16.7%	0 .0%	0 .0%	6 100.0%
		5 55.6%	2 22.2%	1 11.1%	1 11.1%	0 .0%	9 100.0%
	기타 부서	2 25.0%	5 62.5%	1 12.5%	0 .0%	0 .0%	8 100.0%
		26 41.9%	22 35.5%	9 14.5%	3 4.8%	2 3.2%	62 100.0%
전체							

근무 부서도 언론인들에게 주요한 환경적 특성이다. 사회 · 전국 · 수도권부, 경제 · 산업부, 정치부, 국제부, 편집부, 기타 부서 등 6개 부서를 중심으로 태

도 유형별 분포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표 5-20>에 나타나듯이 기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문제 가 현안으로 대두되기 쉬운 사회·전국·수도권부에서는 유형1-유형2-유형3-유형5-유형4 순으로 언론인들이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지상주의형에 가장 높은 비율(37.5%)을 보인 것은 사회 관련 부서로 가장 많은 언론인들이 뉴스 객관성을 준수해야 할 대상, 도달해야 할 목표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사의 사실성 또는 공정성, 불편부당성 등을 놓고 시비가 갖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객관성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판적 가치주의형(유형5)이 사회 관련 부서에서만 나타난 것은 현실적으로 사회 관련 뉴스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주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20>에서 정치부, 국제부, 편집부 등도 50% 이상의 기자들이 규범지상주의형(유형1) 태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부는 주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내 정치 관련 뉴스를 취급하고, 국제부는 국가간에 이해가 달라지는 국제관계 또는 국제정치 뉴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뉴스 객관성의 규범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는 상대적으로 원칙을 중시하며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부서인 만큼 객관성에 대해 규범지상주의형 태도를 보여준 것이며, 많은 뉴스 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부서의 특성에서 비롯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산업부 언론인들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유형2(현실순응형)에 기울어져 있다. 이는 경제 관련 뉴스가 객관성에 대한 엄격성을 상대적으로 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바로 그러한 특성이 언론인들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 참여한 언론인들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객관성에 대한 태도 유형이 어떻게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언론사 종류, 근무 경력, 직위, 오래 근무한 부서 등 요인에 따라 태도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개인의 성

장과정에서 체득한 윤리의식이나 규범의식 또는 세계관이나 가치관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미루어 언론인 개개인의 환경적 특성 또한 뉴스 객관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제6장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수용자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뉴스의 객관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Q 방법론을 통해 알아본 것이다.

뉴스 객관성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성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 우선, 규범과 표준으로서의 객관성이다. 이는 언론인들의 행동강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실성 균형성 비당파성 등의 원칙이 강조된다. 두 번째로는 객관성을 언론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기보다는 뉴스 제작에 따른 절차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언론(인)이 어떤 필요에 의해 객관성이라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객관성을 언론인들의 ‘전략적 의례’ 또는 ‘언론인과 비평가 사이의 방파제’라는 표현들이 그러한 이론을 대표한다. 다음으로는 윤리적 성격이다. 언론인이 어떤 사건(안)을 보도할 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꾸준히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객관성에 대한 논의에는 늘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해왔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본 객관성의 한계가 그 중 한가지인데, 요체는 인간의 인지와 언어적 전달이 본래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객관성의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 관행들이 현실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객관성을 반영한 보도, 즉 객관 보도는 자본주의가 번성하기 시작한 1830년대 미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페니 프레스’와 함께 태동해 진화해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 후 뉴스의 객관성은 언론에서 확고부동한 행동강령의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단순한 사실의 전달보다도 전달하는 사안의 원인과 배경 전망 등 깊이 있는 보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면서 단순

한 객관 보도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다. 1960년대에는 객관 보도에 대한 도전이 더욱 강해졌다. 뉴 저널리즘 운동, 주창 저널리즘 운동 등은 그러한 도전이 구체화한 모습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 신문에서 육하원칙에 의한 이야기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부터 간접적으로 서구 언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역피라미드 기사체 등 객관 보도 양식은 광복 후 미국과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본격화했다. 연구 과정에서 역피라미드형 문체가 1950년대 중반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해 1960년대 초반에는 신문 문장의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그 이후 한국 언론에 있어서 뉴스의 객관성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위치를 조정해왔으며, 지금도 언론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언론의 객관성 추구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출현해 진화해왔지만 한국의 경우는 외부에서 차용해온 제도이기 때문에 다분히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객관성 또는 객관보도를 단순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에서 중간의 자세를 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 언론에서 객관보도라 하면 늘 육하원칙과 역피라미드 기사체가 동의어처럼 따라다니게 됐다.

이 연구는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를 밝히고자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 유형을 찾아내 그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었다. 때문에 가설 검증이 아닌 가설 생성에 기여하는 Q 방법론을 사용했다. Q 표본, 즉 진술문은 45개로 조정했고, 서울시내 신문사와 방송사 기자 62명을 P 표본으로 선정했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P 표본의 Q 분류결과를 QUANL 프로그램으로 처리한 결과,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 유형이 다섯 가지로 도출됐다. 이는 제1유형(규범지상주의형), 제2유형(현실순응형), 제3유형(변화추구형), 제4유형(실천적 원칙주의형), 제5유형(비판적 가치주의형) 등이다. 이 유형들은 뉴스 객관성 또는 개판 보도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각 태도 유형별로 나타나는 주요한 특성들이다.

◇제1유형(규범지상주의형)=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뉴스의 객관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언론인으로서 자존과 정체성을 객관성의 존재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객관성은 이 유형의 언론인들에게 직업윤리의 근본으로 인식되며, 전문직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덕목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이 태도 유형을 ‘규범지상주의형’으로 명명했다.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아주 강하게 뉴스 객관성을 언론 활동의 규범과 표준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객관성을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진술을 강하게 찬성, 객관성을 언론 현실에서 반영하고 활용하는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들은 객관성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진술문에는 반대하고 있다.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 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로 시작하는 문장이라든지 ‘객관성이 구호일 뿐’이라는 진술,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부질 없다’는 진술 등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 보도가 없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을 언론인 또는 언론기관의 ‘전략적 의례’로 간주하는 터크먼 식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객관성을 실천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살아 숨쉬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규범지상주의형으로 구분된 언론인은 26명으로 연구에 참여한 전체 62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제2유형(현실순응형)=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을 언론 활동의 이상으로 추구하면서도 현실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즉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접목시키면서 현실적인 장애들을 해쳐 나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생활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돼 제2유형의 명칭을 ‘현실순응형’으로 붙였다.

객관성을 바라보는 이 유형의 시선은 부드럽다. 이 유형의 언론인들이 가장

동감을 표시하는 진술문에는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객관보도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철칙에 매달리지 않고 제작 현실을 반영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기사처리에 주관과 객관을 반영하는 문제와 관련, 극단을 선택하지 않는다. 뉴스에 언론인의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관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도 넓게 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제1유형의 ‘규범지상주의형’ 언론인들 못지않게 객관성의 이상을 추구한다. 또한 객관성이 언론인의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며 실제로 객관보도라는 것은 없다는 진술도 거부한다.

◇제3유형(변화추구형)=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뉴스 객관성과 관련, 전통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이끌어가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들은 역피라미드형 기사체로 대변되는 객관 보도, 즉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방식에 소극적이다. 오히려 사안이나 사건 보도에서 언론인이 개입하지 않는 객관성에 불만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1960년대 미국에서 뉴저널리즘 운동에 참가했던 언론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변화추구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사회 요구나 상황에 따라 뉴스 객관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정적인 객관성 개념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한마디로 변화를 지향하는 태도이다.

하지만 제3유형이 뉴스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주관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있다. 객관성은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진술에도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객관성이 언론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식으로 객관성을 지고의 위치에 놓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객관성이야말로 언론인들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의 근본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무덤덤한 표정이고, 객관성이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감흥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다시 정의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제4유형(실천적 원칙주의형)=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의 원칙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객관성은 뉴스를 취재해 보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인의 정체성이나 언론이 추구해야 할 목표 등 객관성을 둘러싼 관념상의 이상들은 이 유형의 언론인들에게는 다소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객관성에 대해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감한다. 이들은 또한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진술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역파라미드형 기사체를 강조한다.

이들 언론인은 원칙을 중시하지만 현실 또한 중시한다. 때문에 객관성의 한계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즉, 사회의 요구에 따라 객관성을 신축성 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객관성의 정의를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강하게 긍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을 중시하면서 현실을 감안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라는 진술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객관성에 대한 현실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터에 객관성을 허구적인 구호로만 간주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유형4에 속한 언론인들은 원칙을 중시하지만 객관성 자체에 거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천적 원칙주의형’ 언론인들은 주관성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주관 개입으로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뉴스 객관성의 존재 자체를 부

정하려는 듯한 진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 유형의 언론인들은 ‘실천적’이기는 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 현장에서 자기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하지만 객관성의 가치를 뉴스 제작에 반영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유형(비판적 가치주의형)= 이 태도 유형은 이 연구에서 도출된 다른 4 가지 유형과는 인식의 방향이 엇갈린다. 그런 면에서 ‘비판적 가치주의형’이라는 명칭이 나왔다. 이 유형의 언론인들에게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뉴스 객관성은 일반적으로 언론 활동에서 추구해야 마땅한 덕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수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이는 앞에 언급된 수용자 의식조사나 언론인 의식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유형5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은 실현불가능하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진술문에 강하게 동감한다. 어느 취재보도이든 언론인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객관성 무용론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태도 유형의 언론인들이 객관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만 언론 활동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파괴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Q 분류에서도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은 넓기 때문에 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도의 형태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는 진술문에 비교적 강한 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 뿐이 아니라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비판적 가치주의형 태도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서고자 하는 자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두드러진 것은 뉴스의 객관성에서는 객관성이라는 문자가 함축하는 바와는 달리 ‘주관의 개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형들을 2개씩 모아 모두 10쌍의 태도 유형을 Q 분류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다섯 가지 태도 유형은 각기 다른 유형과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 독특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

우선, 26명이 분류된 유형1(규범지상주의형)과 22명이 분류된 유형2(현실순응형)은 객관성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고 객관 보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나 성향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났다. 유형1은 유형2에 비해 주관의 배제에 더욱 역점을 두고 규범지상주의형이라는 명칭이 암시하듯이 객관성의 고유한 성격에 몰입하는 양상이다. 유형2는 상대적으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현실순응형’의 언론인들이다. 유형1이 뉴스 객관성의 가치를 언론(인)이 추구해야 하는 지고의 자리에 놓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유형2는 취재 보도의 틀 안에서 객관성의 뜻을 살려야 한다는 언론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유형은 언론 현장에서 비교적 잘 어울리는 편이겠으나 상대적으로 유형2의 언론인들이 현실적 제약 조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형1의 언론인들은 기사를 보는 안목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유형1(규범지상주의형)과 유형4(실천적 원칙주의형)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유형1이 객관성이라는 명분에 무게를 둔다면 유형4는 실천 쪽에 무게를 둔다고 할 수 있다. 객관성에 대해 유형1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 또는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으로 인식하지만 유형4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실천적 원칙주의형’의 언론인들은 객관성의 가치에 대한 관념적 진술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유형1이 객관성을 ‘언론의 생태적 사명’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유형4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유형은 객관성에서 물리적인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중요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뉴스 보도에 반영해주는 것이 객관 보도이고 객관성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 비슷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기계

적 균형을 잡는 것이 객관성이라는 것에 대해 동감하지 않는 점에 두 유형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태도 유형2(현실순응형)과 유형3(변화추구형)도 태도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현실순응형이나 변화추구형이나 현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형2는 대체로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 태도를 인정하고, 유형3은 이를 강하게 거부한다. 두 유형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시각 차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태도 차이를 보여준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유형3은 거절하지만 유형2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 ‘객관성이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인가?’라는 질문에 유형2는 긍정의 답변을 하고 있으나, 유형3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객관성이 언론인의 취재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라는 진술에 대해서 ‘현실순응형’ 언론인들은 강하게 거부하는 반면, ‘변화추구형’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종합하건대, 유형2는 객관성의 가치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인정하면서 취재 보도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나 유형3은 그런 태도를 멀리한다.

태도 유형3(변화추구형)과 유형4(실천적 원칙주의형)는 일단 명칭만으로도 배타적인 태도유형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천적 원칙주의형도 변화추구형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중시하므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유형은 현실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뉴스를 취급한다. 일례로 유형4는 객관성과 겸종 가능한 사실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 현상을 주관의 개입 없이 보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추구하는 유형3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전통에 얹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현실적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형3은 객관 보도의 성격과 관련, 현실에 맞게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쪽이고 유형4는 그렇게 되면 객관성이 훼손돼 저널리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유형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의 종류, 근무 경력, 직위, 오래 근무한 부서 등 언론인들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태도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언론사 종류에 따른 태도 유형 분포에서는 방송기자가 신문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칙보다는 현실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방송기자들의 태도 유형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규범지상주의형과 현실순응형 등 두 유형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근무경력에 따라 태도 유형별 분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살펴본 결과, 10년 이하 경력에서는 현실순응형(유형2)이 50.5%를 차지했고, 11년 이상에서는 규범지상주의형(유형1)이 55.3%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직위에 따른 태도 유형 분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평기자들은 현실순응형에, 데스크는 규범지상주의형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로써 세대에 따라 뉴스 객관성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뉴스 객관성에 대한 짚은 언론인들의 태도가 현실순응형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다.

편집국 또는 보도국의 6개 부서를 중심으로 언론인들의 태도 유형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사회·전국·수도권부에서는 유형1-유형2-유형3-유형5-유형4 순으로 언론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유형1인 규범지상주의형이 가장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은 언론인들이 뉴스 객관성을 준수해야 할 대상, 도달해야 할 목표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논의로 미루어 언론인들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 유형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의 논의는 환경적 특성이 객관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종합하건대,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규범지상주의형, 현실순응형, 변화추구형, 실천적 원칙주의형, 비판적 가치주의형 등 다섯 가지로 도출됐다. 이 유형들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독특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는 보도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로 얻어낸 태도 유형들은 언론 보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결과로 보도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도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뉴스의 객관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한 가운데 보도 내용을 논의하는 쪽으로 소재가 한정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 연구가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 연구에 작은 발판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뉴스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를 Q 방법론을 통해 다섯 가지로 유형화했다. 연구결과는 우선, 언론 현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고 보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언론인들이 자신의 취재 보도 활동 상황에 대한 성찰과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언론인을 지망생이나 현직 언론인 또는 수습기자들의 연수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뉴스의 객관성과 관련한 언론학 연구의 지평을 조금이나마 넓히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언론인들의 활동 장소가 서울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지역 신문이나 지역 방송의 언론인들이 객관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답이 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연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인들은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태도에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언론인들의 태도를 도출해 서울과 지역 언론인들의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신문기자 52명 방송기자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애초 이 연구가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 일반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 것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방송기자의 수를 좀 더 늘리고, 온라인 매체 기자도 포함시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를 규명해냈지만 그 태도가 실제 보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 문장들을 Q 진술문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돼 객관성에 대한 태도 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명구 (1994). 『한국저널리즘 이론』. 서울: 나남.
- 강명구 외 (2001). 『한국언론의 신뢰도』(조사연구 2001-01). 서울: 한국언론재단.
- 고명식 (1963). 『신문연구』. 1963년 겨울, 제4권 제2호, 33-37, 관훈클럽.
-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2000). 『한국언론의 좌표』. 서울: 관훈클럽.
- 김세은 (2003). 『독자와 신문 신뢰도』. 서울: 재단법인 미디어연구소.
- 김영욱 (2002). 『저널리즘의 객관성』. 한국언론재단.
- 김현수 · 원유미 (2000). 『Q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남재일 (2004). 한국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두션생 (1923). 신문 당국자에 경고하는 一言, 『개벽』 제36호.
- 박영상 (1998). 뉴스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 객관성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언론학보 제17집(1997), 261~286.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 驟啞子 (1923). 동아일보에 대한 불평. 『개벽』 제36호.
- 송용희 (2005). 한국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례신문 사회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3호, 80~105.
- 송정민 (1996). 한국 언론의 현상유지 기제에 관한 논의. 『현대사회과학연구』 제7권.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100~129.
- 언론중재위원회 (2007). 『2006 연간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연합뉴스 (1998). 『기사작성 길잡이』, 서울: 연합뉴스.
- 오기영 (1934). 신문인과 신문도. 『신동아』 5월호.
- 오수정 (2006). 『200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조사분석 2006-06). 서울: 한국언론재단.
- 유광렬 (1935). 기자 생활의 고락. 『쩌날리즘』 창간호.

- 유선영 (1995). 객관주의 100년의 형식화 과정, 『언론과 사회』 제10호. 언론과 사회. 86~128.
- 이광린 (1974).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대한 一考察. 『한국개화사연구』. 서울 일조각.
- 이은택 (1999). 『언론인의 윤리의식』(연구서 99-09).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인옥 (1985). 뉴스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근수 (1984). 『언론과 역사』. 서울: 정음사.
- 정범준 (2007). 『이야기 관훈클럽』. 서울: 랜덤하우스.
- 정진석 (1984). 『한국현대언론사론』. 전예원.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정진석 (1998).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 I』. LG상남언론재단.
- 조세형 (1963). 『신문연구』. 1963년 여름, 제4권 제1호. 40~45. 관훈클럽.
- 차배근 외 (2001). 『우리 신문 100년』. 방일영문화재단.
- 추광영 · 강명구 (1989). 구한말 한국신문에 있어 뉴스의 성격에 관한 연구. 『신문학보』 24호, 29~80.
- 황치성 (2007). 『한국의 언론인 2007』(조사분석 2007-01). 서울: 한국언론재단.

- Allison, M. (1985). A literature review of approaches to the professionalism of journalist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2). 5~19.
- Beam, R. A. (1990). Journalism professionalism as an organizational-level concept.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Monographs*, 121.
- Blankenbury, W. B. & Walden, R. (1977). Objectivity, interpretation and economy in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54(3), 591~595.
- Bond, F. (1967). *An introduction to journalism: A survey of the Fourth Estate in all its forms*. New York: Macmillan Company.

- Boyer, J. (1981). How editors view objectivity? *Journalism Quarterly, Spring*, 25~28.
- Breed, W. (1956). Analyzing News: Some Questions for Research. *Journalism Quarterly, 30, Fall*, 476~477.
- Brooks, et al., (2002). *News reporting. and writing.* New York: Bedford/St. Martin's.
- Campbell, V. (2004). *Information age journalism.* London: Arnold.
- Cannon, L. (1974). *Reporting: an inside view.* CA: California Journal Press.
- Chalaby, J. (1998). *The Invention of Journalism.* London: Macmillan Press.
- Charnley, M. (1960). *Report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Church, G. (1938). The socio-psychological nature of news. *Social Forces, XVII(December).*
- Cohen, S. & Young J.(eds.). (1973). *The manufacture of news: A reader.* Berverly Hills. CA: Sage.
- Cunningham, B. (2003). Re-thinking objectivity. *Columbia Journalism Review*, July/August issue. Columbi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Dennis, E & Merrill, J. (2006). *Media Debates*(4th ed). Toronto: Thomson Wadsworth.
- Dimmick, J. (1977). Canons and codes as occupational ideologies. *Journal of Communication 27(2)*, 181~187
- Emery, E. & Emery, M. (1984). *The press and america: An interpretive history of the mass media*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ink, C. (1995). *Media Ethics.*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한국언론연구원(편역) (1995). 『언론윤리』, (저널리즘 실무서-2).
- Fishman, M. (1980).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Fowler, R. (1991).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Fuller, J. (1996). *News values: ideas for an information 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ns, J. (1979).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Vintage.
- Gans, J. (1980). Sources and Journalists. In *Deciding What's News*, 116~145. New York: Vintage Books.
- Gieber, W. (1964). "News is what newspaperman make it". *People, Society and Mass Communication*. New York: Collier-Macmillan, 173~182.
- Glasgow University Group (1976). *Bad new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Gynn, C. (1995). *Beyond objectivity and relativism: A view of journalism from a rhetorical perspectiv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Hallin, D. (1985). The American news media. *Critical Theory and Public Life*. John Forest(ed.). 121~146,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Hohenberg, J. (1973). *The professional journalis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Hunt, T. (1974). Beyond the journalistic event: The changing concept of news. *Mass Communication Review*, I(April), 23~30.
- Janowitz, M. (1975). Professional models in journalist: The gatekeeper and the advocate. *Journalism Quarterly* 52(4), 618~626.
- Johnson, G. (1962). *What is news*. New York: Alfred Knopf.
- Kerlinger, F. (1964). *Foundations of behavior researc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Kerlinger, F. (1972). *Q methodology in behavioral research in science, psychology, and communication: Essays honoring William Stephenson*(ed). Steven R. B. & Donald J. B.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Koch, T. (1990). *The news as myth: Fact and context in journalism*. New York: Greenwood Press.
-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Crown.
- Kriegbaum, H. (1962), *Facts in perspective*. NJ: Prentice-Hall.
- Lippmann, W. (1920). *Liberty and the new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Howe.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Free Press.
- Lippmann, W. (1931), Two revolutions in the American press, *Yale Review* 20, 433~441.
- McQuail, D. (1986). From bias to objective and back. *Studies in Communications*, vol(3).
- McQuail, D. (2000).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4th ed). London: Sage.
- MacDougal, C. (1972). *Interpretative reporting*(6th ed.). New York: Macmillan.
- Mechner, M. (1987). *News reporting and writing*(4th ed.). New York: William C. Brown.
- Merrill, J. & Barney, R. (1975). *The ethics and the press*. New York: Hasting House.
- Merrill, J. (1991). *Global journalism: surve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2nd ed.). New York: Longman.
- Merrill, J. (1985). Is ethical journalism simply objective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62(2), 391~393.
- Mills, R. D. (1983). Newspaper ethics: A qualitative study. *Journalism Quarterly* 60(4), 589~594.

- Mindich, D. T. Z.(1998). *Just the facts: How "Objectivity" come to define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ott, L. (1959). *American journalism: A history of newspaper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260 years: 1690-1950*. New York: Macmillan.
- Mott, L. (1962). *The news in Americ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yne, H. (1970). *History of journalism in the United State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Park, R. (1940). News as a form of knowledge; A chapter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5, 669~686.
- Pinson, J. (1996). *Objective journalism and Ayn Rand's philosophy of objectivism*. A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Reese, D. (1990). The news paradigm and the ideology of objectiv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7, 390~409.
- Repo, S. (1986). *Journalistic objectivity, the discourse on democracy and the birth of the popular press*.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Toronto.
- Robonson, J. (1984). Television news and the claim to facticity. *Interpreting television*. Beverly Hills: Sage.
- Sanders, K. (1972). Q study of editor's attitudes toward journalism research. *Journalism Quarterly*, 49.
- Schiller, D. (1981). *Objectivity and the news: The public and the rise of commercial journal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chiller, D. (1979). A historical approach to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in American news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29, 45~57.
- Shoemaker, P. & Reese, S.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2nd ed.). White Plains, NY:

- Longman.
- Schramm, W. (1949). The nature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26, September, 259~264.
- Schramm, W. et al., (1963).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New York: Basic Books.
- Schudson, M. (1989). The sociology of news production. *Social meanings of news: A text-reader*. CA: Sage.
- Schwartz, P. (1988). *Objectivity in journalism*. Oceanside, CA.: Second Renaissance Books.
- Sign,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Lexington, Mass: D.C. Health and Company.
- Stensaas, H. (1986). Development of the objectivity ethic in U.S. daily newspaper.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1), 50~60.
- Stephens, M. (1997). *A history of news*. Harcourt Brace. 이광재 · 이인희 역(1999). 『뉴스의 역사』. 서울: 황금가지.
-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phenson, W. (1965). The ludenic theory of newsreading. *Journalism Quarterly*, XLI.
- Stephenson, W. (1967). *The play theory of mass communi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wart, H. (1969). *The opposition press of the federalist period*.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treckfuss, R. (1990). Objectivity in journalism: A search and a reassessment. *Journalism Quarterly* 67(4), 973~983.

- Streeter, T. (1989). Polysemy, plurality and media studies.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13(2), 88~106.
- Reese, D. (1990). The news paradigm and the ideology of objectivity: A socialist at the *Wall Street Journal*.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7(4), 390~409.
- The Missouri Group. (1999). *News reporting and writing*(6th ed.) Boston: Bedford/St. Martin's.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 660~679.
- Tuchman, G. (1978a).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Tuchman, G. (1978b). Professionalism as an agent of legitima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28(2), 106~113.
- Tumber, H. (1999). *News: A Reader*(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rd, H. (1997). *Mainstreams of American media history- A narrative and intellectual history*. Boston: Allyn and Bacon.
- Warren, C. (1959). *Modern news reporting*(3rd ed.).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Westersta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General premises.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
- Wolfe, T. (1973). *The new journalism*. New York: Harper & Row.
- Zelizer, B. (2004). *Taking journalism seriously: news and the academy*. CA: Sage.
- Zhao, Y. (1989). *Objectivity and commercial news: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objectivity in north America journalism*. Unpublished master thesis.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신문>

- 강명구 (2004, 4, 7). 신문의 날…언론의 위기, 한국일보 26면.
- 경향신문 (1990, 4, 7). 신뢰받는 신문의 조건, 사설.
- 동아일보 (1990, 12, 4). 범죄기사와 실명보도, 사설
- 동아일보 (1993, 6, 16). 문민시대의 언론자유, 사설.
- 박승관 (1997, 6, 12). 학생폭력과 뉴스폭력, 한겨례신문, 15면.
- 서울신문 (2002, 1, 16). 독립정론으로 거듭나며, 사설.
- 세계일보 (1990, 9, 8). 신파(설왕설래), 2면.
- 세계일보 (1992, 5, 15). “김용호는 용이 못된 이무기” 인물평, 22면.
- 세계일보, 1992, 3, 12). 공정한 선거방송의 실천, 사설
- 손숙 (1992, 3, 7). 선거보도… 언론에 기대한다, 경향신문 5면
- 오두범, (1992, 4, 7). “사회변화 주도해야”…한국언론에 바란다, 조선일보 5면.
- 오택섭 (1993, 4, 24). 건강한 견제, 동아일보 5면.
- 우병동 (1996, 11, 4). 맹목적 객관보도 ‘참언론’은 어디에, 한겨례신문, 8면.
- 이민웅 (1993, 10, 30). ‘백선장 생존설’ 오보의 책임, 동아일보 6면.
- 조선일보 (1965, 11, 7). 객관적 공정 잊지 말아야, 3면.
- 조선일보 (1975, 3, 5). 조선일보의 길, 사설.
- 조선일보 (1996, 3, 1). “여론조사 발표금지는 알 권리 침해”, 29면.
- 한겨례신문 (1990, 6, 10). 감사원은 권력에서 독립부터 하라, 사설
- 한국일보(1991, 5, 1). 정치력 살아야 위기 수습한다, 5면
- 한국일보 (1994, 5, 29). “외교·안보 보도 객관성 결여”, 2면.
- 한국일보 (1996, 9, 23). 정간법·국감 등 심층해설·기획기사 돋보여, 24면.

<부록 1>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에 관한 학문적인 논의는 오랜 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혁직의 전문 언론인들이 객관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자님께 이 연구에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자님의 협조는 이 연구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번거롭지만 알찬 연구 결과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받아보시는 설문지는 생경하게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Q-Method라는 것으로 태도 연구에 주로 사용됩니다. 기자님께서 해주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누어 드린 45개의 진술문(Statements) 중에서 가장 동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골라 빈칸을 채워주시는 일입니다. 분류 방법은 동봉한 다른 종이를 참고 하십시오.

또 하나는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응답해주시는 일입니다.

그 결과는 통계기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기자님께서 응답해주신 것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님의 답변이 훌륭한 논문을 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권문한 배상

분류방법 안내문

동봉한 진술문 풍치는 저널리즘의 객관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정의(definition), 객관성에 대한 평가(evaluation), 객관성에 대한 철학적인 격언을 응용한 것들입니다.

진술문들을 분류하실 때에는 관심이나 가치 혹은 평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분류표>에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단, 분류표의 한 칸에는 한 개의 번호만 적어 주시고, 진술문 번호는 한 번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시고 평소 느낌대로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책상이나 테이블에서 다음 순서로 이 작업을 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분류 순서>

1. 우선 45개의 진술문을 한 번 읽어 보시면서 <동의하는 것>, <동의하지 않는 것>, <잘 모르는 것> 등 3가지 부류로 나누어 주십시오.
2. 그 중 <동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것 3개를 골라 분류표의 맨 오른쪽 칸에 진술문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동의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 3개를 골라 분류표의 맨 왼쪽 칸에 진술문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의하는 진술문 번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번호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채워 가시면 됩니다.
5. 분류표의 가운데에 있는 0점 짜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로 채우시면 됩니다.
6. 이렇게 45개의 빈 칸에 45개의 번호를 다 채우시면 조사는 끝나게 됩니다.
7. 분류를 하시다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위치를 바꾸거나 다시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응답자 인적사항에 대한 설문

다음 질문에서 적절한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소속된 언론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신문사 ② 방송사 ③ 통신사 ④ 온라인 언론사 ⑤ 기타

2. 귀하가 언론사에서 실제로 일한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3. 귀하의 현재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평기자 ② 차장 ③ 부장 이상 ④ 논설(해설)위원 ⑤ 선임(전문)기자 또는 편집위원

4. 귀하가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 한 곳에 √ 표시를 하시고, 그 부서에 근무한 기간(년수)를 팔호 속에 적어 주십시오.

- ① 사회 · 전국 · 수도권부() ② 경제 · 산업부() ③ 정치부() ④ 국제부()
⑤ 편집부() ⑥ 문화 · 생활 · 엔터테인먼트부() ⑦ 인터넷뉴스부() ⑧ 스포츠()
⑨ 논설 · 해설위원실() ⑩ 기타()

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부록 2> 뉴스 객관성 Q 분류의 P표본 현황

P 표 본 번호	소속 (년)	언론사 경 력(년)	직위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근무 경력)	성별
1	신문사	11-15년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2	신문사	5-10년	평기자	문화·생활·엔터테인먼트부	남자
3	신문사	5년 미만	평기자	경제·산업부	여자
4	신문사	5-10년	평기자	경제·산업부	남자
5	신문사	11-15년	평기자	경제·산업부	남자
6	신문사	5-10년	평기자	경제·산업부	남자
7	신문사	5-10년	평기자	경제·산업부	남자
8	신문사	5년 미만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여자
9	신문사	5-10년	평기자	편집부	남자
10	신문사	21년 이상	차장	편집부	남자
11	신문사	11-15년	평기자	스포츠부	남자
12	신문사	11-15년	평기자	편집부	남자
13	신문사	5-10년	평기자	편집부	남자
14	신문사	11-15년	평기자	스포츠부	남자
15	신문사	21년 이상	차장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16	신문사	16-20년	차장	정치부	남자
17	신문사	11-15년	평기자	경제·산업부	남자
18	신문사	11-15년	평기자	문화·생활·엔터테인먼트부	남자
19	신문사	16-20년	차장	편집부	남자
20	신문사	11-15년	평기자	편집부	남자
21	신문사	16-20년	차장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22	방송사	11-15년	차장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23	방송사	16-20년	부장이상	정치부	남자
24	방송사	16-20년	차장	편집부	남자
25	방송사	21년 이상	부장이상	정치부	남자
26	방송사	16-20년	차장	정치부	남자
27	방송사	21년 이상	부장이상	경제·산업부	남자
28	방송사	11-15년	차장	정치부	남자
29	신문사	16-20년	차장	경제·산업부	남자
30	방송사	16-20년	부장 이상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31	신문사	16-20년	부장 이상	정치부	남자
32	신문사	16-20년	차장	편집부	남자
33	신문사	16-20년	부장 이상	인터넷뉴스부	남자
34	신문사	16-20년	차장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35	방송사	5년 미만	평기자	인터넷뉴스부	남자

36	신문사	5년 미만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37	신문사	16-20년	차장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38	신문사	5-10년	평기자	문화·생활·엔터테인먼트부	여자
39	신문사	16-20년	차장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40	신문사	5-10년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41	신문사	16-20년	차장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42	신문사	16-20년	논설위원	경제·산업부	남자
43	신문사	16-20년	부장 이상	국제부	남자
44	신문사	5년 미만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여자
45	신문사	11-15년	평기자	국제부	남자
46	신문사	11-15년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47	신문사	16-20년	차장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48	신문사	5년 미만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49	신문사	16-20년	차장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50	신문사	16-20년	차장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51	신문사	5-10년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52	신문사	5-10년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53	방송사	5-10년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54	신문사	5년 미만	전문기자	기타	남자
55	신문사	5년 미만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여자
56	신문사	5-10년	평기자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57	신문사	5-10년	평기자	국제부	남자
58	신문사	16-20년	차장	국제부	남자
59	신문사	5년 미만	평기자	국제부	남자
60	신문사	5년 미만	평기자	국제부	남자
61	신문사	16-20년	차장	사회·전국·수도권부	남자
62	신문사	5-10년	평기자	문화·생활·엔터테인먼트부	남자

<부록 3> 뉴스 객관성에 대한 Q 분류 결과: 태도유형별 표준점수

문항 번호	진술문	태도유형 구분	1	2	3	4	5
		유형별 적재인원 수	26	22	9	3	2
1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근간(根幹)이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1.3	1.3	1.4	-1.0	.8
2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다.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다듬고 채워주는 원동력이 객관성이라고 생각한다.		1.5	.5	-.3	-1.0	-.8
3	뉴스는 언론 매체가 만드는 것이라면, 객관성은 뉴스를 만드는 과정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1.0	.5	-.1	-1.0	.3
4	객관성이라는 것이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성은 직업 이데올로기이나 저널리즘이 스스로 만든 뉴스 제작의 관행일 뿐이다.		-1.2	-1.3	1.3	.6	1.1
5	객관성은 실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취재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적의 진실을 캐내고 알리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 윤리에서 나온다. 이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업 윤리에 충실한 행동이 바람직한 취재보도 태도다.		-1.3	-1.5	-.8	-.4	1.4
6	객관성은 뉴스가 얼마나 사회 전체(수용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보도를 충실히 할 때 객관성이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		.5	-.4	.0	.1	.2
7	객관성은 저널리즘에서 뉴스에 권위를 부여하고, 취		1.2	.8	1.1	.9	-.2

재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언론인에게 취재보도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며 뉴스가 선전이나 광고 등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차별점을 제시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8 나는 기사를 쓰면서 한번도 객관성을 생각해 본 일 -1.8 -2.2 -1.3 -.4 1.6
이 없다. 막연히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를 알고 이를 실천할 뿐이다. 누가 무엇이 객관적인 보
도냐고 물어 볼 경우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이 솔직한 느낌이다.
- 9 객관성, 그것은 언론인의 취재행위를 정당화시키고 -1.6 -2.0 .6 -.7 1.0
직업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방패일 뿐이다. 실제로는 객
관적 보도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10 객관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검증된 사실만으로 .9 -1.2 -.7 2.2 -1.8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주관을 배제한 채 사회 현상
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한 것이다.
- 11 뉴스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 -.1 .4 .8 -.2 -.3
나 객관성은 협업에서 공유하고 수용자 그리고 사회전
체가 요구하는 느슨한 규범이고 원칙이다. 따라서 객관
성은 좋은 저널리즘을 향한 유익한 길잡이라고 생각한
다.
- 12 객관성에 대한 해석은 사회의 요구나 사안에 따라 -.5 .1 1.9 1.0 -.2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 내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특정
한 가지 원칙에 얹매이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13 객관성은 최소한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고 종 1.1 .5 1.4 2.1 -1.1
합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 14 전문직에게 으뜸의 실천 덕목은 자신에 대한 담금질 1.0 .5 1.4 .4 -.7

이다. 객관성은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발현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고 전문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 15 객관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수록 실체가 명확해지 -3 .2 .7 -.6 .2
기보다 더 큰 미궁에 빠져들 우려가 크다. 주관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객관성의 요체이다. 원리나 원칙은 간명할수록 실천 가능성성이 높아진다.
- 16 저널리즘에서 객관적인 보도란 외연이 넓고 내포가 -3 .4 1.5 -1.1 -.2
깊어서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에 담긴 뜻이 변할 수 있다.
- 17 객관성이란 언론인에게 정체성의 시작이고 직업윤리 1.6 .7 .1 .9 -1.0
의 근본이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직에 대한 헌신이며 책임과 책무를 다 하라는 명령이다.
- 18 언론에게 부과된 으뜸의 사명은 진실을 캐내고, 변질 1.4 .3 .8 -.4 -.3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접근하면 진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성실한 언론인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진실을 찾거나 보호할 수 있다.
- 19 객관성의 연원이나 발전 궤적은 간단한 것은 아니다. -1.2 -1.3 -.7 -1.3 .4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막연히 저널리즘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뭉뚱그리고 싶다.
- 20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사건(안)을 보도할 경우 미디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어떤 관점을 축으로 사건(성)을 정리해 내는 것이 객관성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입체적인 보도가 더 유용한 때문이다. -1.1 -.9 .9 -1.6 .0
- 21 객관성에 관한 논의는 부질없는 짓이다. 사건(안)을 -1.7 -1.4 -1.4 -1.1 1.4

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22 객관성은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주의 주장을 첨삭 없이 뉴스에 반영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이고 객관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3 -1.5 -1.1 -.3 -.6
- 23 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이다. 언론(인)과 수용자를 묶는 것이 뉴스이다. 수용자는 언론에 의해 가공되고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라 언론의 눈에 비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해주길 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뉴스의 질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3 .8 .7 -.9
- 24 사회 과학 방법론이 요구하는 검증의 원리를 수용하여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언론(인)에게는 실체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작업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객관성을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정의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3 5 1.0 1.0 -.3
- 25 언론이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뉴스 대상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점이나 강조점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주관이 개입하면 사실이 어그러진다.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5 1.5 1.5 -.9 -.9
- 26 객관 보도라 하면 서로 대립하는 견해나 주장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적인 입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은 진실을 밝히는 데 -.5 .0 -.2 -1.4 -.1

기여하기 보다는 뉴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의 성격이 짙다.

- 27 언론인이 자기에게 충실하다면 객관성은 별 의미가 없다. 언론인이라는 존재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이지 않는 언론은 언론이 아닌 것이다. -.6 -.6 -1.1 -.7 .3
- 28 제도화된 뉴스 제작 과정이나 관행에서 언론인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객관성이다. 언론한테는 객관성이라는 직업적 의무가 있으나 객관성에 대한 해석의 폭은 넓다. 따라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도의 형태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 -.2 1.3 .3 .8 1.3
- 29 객관성은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공 1.8 -1.0 -.4 -1.6 1.9
감은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 30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객관보도의 주요한 요소로 지적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안(건)을 해석하고 이를 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 -1.4 -1.0 .2 -.5 .2
- 31 객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의 개입을 금하는 것이다. 1.0 -.6 -1.3 -.5 1.2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그리고 사실성의 총화이다.
- 32 언론(인)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과 관련해 자주권 또는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적인 저널리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0 1.3 -.4 .5 -1.7
- 33 완벽한 객관성이란 이상이나 관념의 세계에 존재한 .3 1.2 -1.6 -.3 1.2

다. 충실한 사실보도, 정보 전달에 최우선권을 두는 보도태도는 객관성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 34 객관성은 언론인 의식 속에 존재한다. 무슨 기술이나 기능처럼 배우고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원자재이다. .2 .7 -.7 1.9 -1.2
- 35 객관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1.0 -1.7 .9 1.5
- 36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1.1 -.8 .2 1.7 .0 저널리즘이 진화하면서 선택된 생존 전략을 풍뚱그린 것이다. 객관성은 어찌 보면 언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와 수용자들에게 내세우는 상징 같은 것이다.
- 37 뉴스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을 수용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이한 점이나 관심 사항이 돋보일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유용한 정보의 전달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1 .7 -.2 .6 -1.2
- 38 뉴스 가치는 일반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며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객관성은 뉴스 제작의 관행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조건 있는 사실 전체를 보도한다고 그것을 객관 보도라 할 수는 없다. .2 1.6 .3 .4 1.1
- 39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뉴스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충실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1.3 .4 -1.6 1.0 -1.7

- 40 언어는 뉴스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언어는 사용자의 선택이나 보도 대상이 되는 사안의 모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사실을 보도할 때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가 객관성을 결정할 수 있다. .5 1.0 -.0 1.0 .1
- 41 훌어진 사실을 수집하고 사건(안)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해석하며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객관성의 핵심 개념이다. 1.1 .6 -.0 -.6 -.4
- 42 뉴스의 다양성은 관점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어떤 목표를 겨냥하고 취재 활동의 범위나 방향을 제시한다면 뉴스의 다양성은 위축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취재보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성은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1 -.9 -.9 -.5 -1.1
- 43 객관성이 목표는 아니다.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정겹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객관성이 최고의 덕 목으로, 영속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1.6 .3 .5 -1.3 .5
- 44 언론(인)은 본질상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명령이고 생래적인 것이다. 사실보도나 진실보도는 객관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은 언론의 생래적인 사명이다. 1.0 1.0 -.3 -.2 -1.9
- 45 역피라미드형 기사나 6하 원칙에 충실 하라는 얘기 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객관적 보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4 -.9 -1.7 1.1 .8

ABSTRACT

A Study on Objectivity of News: A Q-methodological Approach

Kwon, Moonhan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measurement of cognitive recognition among journalists about concept of news objectivity.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Q methodology, which is a group of techniques by which subjects operantly define their attitudes by sorting self-referent statements, was us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2 journalists working for the newspaper companies or broadcasting stations in Seoul.

In the literature review, the concepts of news and the characteristics of objectivity wer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objectivity were formed in four dimensions like rules and standards, practical procedures, ethics, and criticism. The brief history of news objectivity was also included in the review.

As the results of the Q sorting, five types of journalists in relation to objectivity were extracted. The interpretation of each type is as follows.

Type I is a group of journalists who observe the objectivity of news as a supreme value. They strongly recognize objectivity as a norm or

standard while they are working in the field. The journalists of this type consider news objectivity as their fundamentals of professional ethics. The type is designated as "Norm Supremacist".

The TypeII recognizes the reality of news gathering and reporting with the idealistic aspects of objectivity. This type is named "Reality follower". The journalists in the group, who are elastic in making an application of objectivity, agree strongly to the statement that objectivity should be measured under the practice of news making and the standard of news values.

TypeIII is defined as "Change Seeker". The journalists here prefer to lead changes of journalism rather than keep traditional practices. They argue that the meaning of objectivity might be differing to the changes of situations or social needs, while their attitudes toward objective writing like inverted pyramid style are negative.

The TypeIV journalists concern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s of objectivity, without despising practical aspects in the real world. They recognize that objectivity is that they should write articles only with verified facts or verifiable facts. Thus TypeIV is designated as "Practical Fundamentalist".

TypeV is unlike from other types in that the journalists of the type agree to the statement "Objectivity is nothing else but a slogan". They recognize that objectivity in news reporting is undesirable as well as unrealizable, while objectivity is generally a virtue to follow in the world of journalism. This type is named as "Critical Valuer".

Five types explained above were extracted from the subjects' responses to the 45 statements about objectivity of news. There are not so many common items among the types, which means that each type of journalists

has peculiar characteristics. However, a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ype I (Norm Supremacist) and TypeII (Reality follower) is high, the distance seems to be comparatively near. On the other hand, as TypeV (Critical Valuer)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rest of five types, the attitudes of the TypeV journalists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s.

In this study, it is also made clear that the attitude of journalists concerning objectivity of new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ir traits such as sort of organization, length of career, position, and division where they have worked long time.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the objectivity of news is common credo among the Korean journalists. News reporting is influenced by the views of news objectivity of journalist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when the credibility of audience changes. In this regard, the types of journalists on objectivity could help us understand the proceeding of journalism these days in Korea. Additio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ful for a discussion of qualitative enhancement of journalism and contribute to encourage the studies on perceptions of news objectivity.